



6

198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4. 6호

(루게 440)



◆◆◆◆◆◆◆◆◆◆ 차 례 ◆◆◆◆◆◆◆◆◆◆

조선의 태양 우리러	4
우리 시대의 영웅	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5
높은 창가에서(외 1 편).....	6
그 마음으로 따르네 어머니당을	7
운명개척을 위한 심오한 진리를 밝힌 철학적인 종자	8
혁명의 기수로.....	13
렬차안에서	14
주작봉마루에서	16
사령부로 가는길	16
간석지의 새노래	17
귀 결.....	18
사랑의 대전당이여!.....	31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한 녀성당원의 참다운 형상	32
나는 화분에 물을 준다.....	37
지남침	38
병사의 손(외 2 편).....	39
맑은 이슬 한방울도	39

포근한 잠자리를 넘겨주고.....	40
운명의 길	41
내 삶의 영원한 시절	50
삶의 위치	51
영생하는 사람들	61
생활의 론리와 동화적 환상의 진실성.....	63
탄전의 새 주인들이 온다.....	66
한 혈육	66
직행렬차	67
꼭지술가락	68
방수아바이	69
새책소개	78
우리	79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다.....	80

조선의 태양 우러러

-공화국창건 35 돌경축 군중시위광장에서-

조 령 출

꽃은 오늘을 위하여 피어난듯
감격에 넘쳐 설레입니다
기발은 오늘을 위하여 태어난듯
영광에 넘쳐 물결칩니다
백만의 시위대렬은
공화국이 걸어온 서른다섯해
장엄한 승리의 화폭들을 펼치며
주석단상을 우러러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꽃보다 더 좋은것 없어
가장 아름답고 고운 꽃들을 흔들니다
우리 당의 기발이 좋아
우리 공화국기발이 좋아
환호성 높이 심장으로 흔들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위광장에는
어버이수령님 높이 모시고
수령님 혁명위업 한몸에 이어나아가시는
친애하는 그이를 함께 모시였나니

아아, 그이의 모습은
서른다섯해전 수령님의 그 모습
공화국창건을 선포하시던
슬기와 정열에 넘치시던
바로 그 청년장군의 모습이 아니신가

바라볼수록 바라볼수록
온 누리가 환해지는 그 모습 우러러
70고령의 늙은 전사인 이 마음도
오늘은 가슴에 더욱 뜨겁게 솟구쳐 오르는
그날의 그 눈물보다 뜨거운것을 흘립니다.

무에서 유를 찾으시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하시며
우리의 공화국을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으로 꽃피워 나아가시는 그이

침식을 잊으시며
밝으신 예지로 온갖 난관을 헤치시며
주체의 붉은 노을을
온 누리에 펼쳐 나아가시는 그이

영광찬란한 그 해발 우러러
온 세계가 그이께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공화국은
일체의 야수에게 짓밟히고 버림받던
그 옛날의 그 조선이 아닙니다

만국평화회의 마당에
배를 갈라 피를 뿌려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던
천애고아의 그 명색없던 조선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 공화국은
어버이수령님 태양의 품으로 일으켜주시며
인류력사우에 거룩한 자세로 일떠선 주체의 조국
주체조국의 향도의 해발이신
친애하는 그이께서 사랑의 품으로 안아 이끄시여
주체의 리상세계로 나아가는 위대한 조선

아아, 복반은 조선이여
반만년력사에
어느 시대 어느 세월에
이런 행복이 있었던가
은혜로운 태양과 향도의 해발속
영원한 사랑에 안긴 이런 행복이

온 세계 친선의 벗들이
백이 넘고 천이 넘는 귀중한 사절들이
끝없는 흠모와 존경을 안고 축하를 드립니다

조선의 행복을
인류의 행복으로 축하합니다

조선의 긍지
조선의 영광
민족의 태양과 향도성을 우러러
하나로 뭉쳐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억센 의지가 물결칩니다
백만 시위대렬의
꽃의 바다 기발의 대하

찬란한 미래를 열어 나아가는
조선의 이 전진은

그 어떤 험산도 탁류도 밀어제끼며
아직 이루지 못한 조국통일의 그날을 향하여
통일된 조국의 광장으로
억세게 억세게 나아갈것입니다

우리의 념원이 꽃핀
그날의 그 광장 그 꽃바다우에

오늘같이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석단우에 높이 오르실 때
아아 우리 인민은
오늘의 이 뜨거운것보다
더 뜨겁고 뜨거운것을
우리의 두눈에 흘리고 흘릴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웅

다비드 마위레

맑은 하늘 저 멀리에서
광명한 미래를 부르듯
인류력사의 새 장을 펼치며 솟아오른 눈부
신 태양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솟아오른
위대한 태양
공산주의의 찬란한 태양은
천지의 물결우에 맑게 비껴여
온 누리를 비치네

공산주의의 맑은 태양
그이는
우리 시대의 영웅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시는
영재

그이께서는 백두의 정기를 안으시고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탄생하시어
일제의 패망을 목격하시며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령도예술
을 체득하신분
엄혹한 시련과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시며
참된 혁명가로 성장하신분

그이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을
위대한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신
사상의 천재이시며 인류의 스승
그이는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겨 꽃피우시는
탁월한 령도자
그이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
자애로운 어버이

그이께서 찬란한 태양이 빛발로
온 누리를 비쳐주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기에
인류의 미래를 앞당겨 나아가는 세계인민들
의 앞길에는
영원한 영광과 승리만이 빛나고있어라
(짐바브웨민족군 5려단 포련대 전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무스라파 투레

입니다

조선의 앞길 밝히시는 당신은 희망의 별로 찬연
한 빛을 뿌립니다
당신은 가시는곳마다에서 인민의 마음 헤아리
시고
그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는분
당신의 의지는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자양분

그 의지로 하여 모든 꿈은 현실로 바뀌어지나니
당신은
조선의 불굴의 투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혈로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내이시는 길에

산악과 격랑이 앞을 가로막아도
결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 당신은 영원성의 구현자
우리에게 주체사상을 안겨주신 분
당신의 숭고한 천품앞에
당신의 사상의 위대성앞에
내 깊이 머리숙이옵니다

조선인민의 오늘의 영광이시며
미래의 빛나는 희망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당신을 모시여 조선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리니
당신께서 부디 만년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자 세네갈 다니엘 쏘라노 민족극장)

높은 창가에서 외 1편

김 송 남

그저 꿈만 같아
다시 또다시 어루쓸어보며
눈물에 젖은 볼을 비비던
그 벽체 그 창가에 나는 서있다...

하늘에도 별무리
땅우에도 별무리
끝없는 불빛의 흐름속에
당중앙의 밝은 창문을 우러러 찾으면
나의 기쁨을 물어주시는
다심하신 그 음성 들리어 울듯

다시금 내 몸에 젖도록 스며든다
방안에 가득차 흐르는 신묘한 광채도
따스한 이 온기도
사랑의 눈빛인듯
사랑의 미소인듯...

아, 창광거리
나의 새 살림집
극장도 위원회의 청사도 아니건만
만지기조차 송구한 이 모든 가구들은
무엇을 위해 우리 식구를 기다렸더냐

로동일의 하루하루
명절같은 나날을 보내고 맞으며
여섯식구 모여서 웃고 떠드는
그 평범한 밤들이
더 아름다우라고

조용히 밥이 끓고
하늘을 나는 꿈속에
아이들 이불깃을 차던지는
그 레사로운 시간들에도
세상 비길데 없는 기쁨이 있으라고

이 높은 창가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천사람이 즐기고
만대를 누려도 남은
세상 좋은것 여기 다 갖추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은정이어!

꽃이 소원이면
꽃피는 봄을 그대로 안겨주시고
별이 소원이면
별 많은 하늘을 통채로 펼쳐주시는
그 사랑에 받들려 내 어디에 올랐느냐

여기서는 구름도 발밑에 흘러가고
신비로운 무지개도 눈아래서 일어선다
여기서는 한번 손을 뻗치면
바라는 모든것
이 세상도 한손에 움켜쥘듯하거니

아, 여기서 나는 본다
하늘땅 가득한 향도의 빛발속에
내 가슴에 넘치고
내 조국에 넘치는
삶의 무한한 이 환희를

사랑하노라고

사랑하노라고

내 물을 주니 꽃이 웃는가
꽃이 웃어 이 마음 뜨거운것인가

내 집 맑은 창가에 웃는 꽃
해당화는 아니건만
송이송이 나에게 속삭여주는구나
월미도의 어린 전사 섬을 떠나며
마지막 남긴 그 말

-해당화에 물을 주세요...

떠나간 전사도 남은 대원들도
그 누구도 살아서는 다시 못본 꽃
그래도 누굴 위해 피어나라고
물을 주라 그 당부는 남기었으며
물을 주마 그 약속은 지키었던가

심장의 마지막 피 방울방울을
섬기슭에 뿌려 가던 그 시각에도
물통의 마지막 물 방울방울로
해당화 뿌리를 적시여주었거니
참으로 그대들은 사랑할줄 알았구나

그래서 흐려지던 그 눈동자들에
다가서며 붉게 타던 그 꽃송이는
못잊을 처녀의 눈빛이었더냐
그리운 어머니의 웃음이었더냐

아, 포화속 웃는 꽃송이에
자기들의 웃음도 맡기고 떠날때에
장군님 계시어 승리할 래일을
피는 꽃처럼 믿던 그 마음...

하많은 생각을 불러주누나
내 집 창가에 웃는 꽃
해당화는 아니건만
이 꽃을 사랑한다고
내 어찌 쉽게 말해왔던가

오, 다시금 준엄한 날 다가온다면
이 꽃에 물을 주라 그 당부 남기고
서슴없이 펼쳐나설 그 마음 없이야
사랑하노라고 사랑하노라고
너를 쉬이 바라보랴...!

가사

그 마음으로 따르네 어머니당을

김 병 두

내 어릴 때 뛰놀던 시내가에서
어머니 날 찾을 때 안기던 마음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세월은 가도
그 마음으로 따르네 어머니당을

고향집 떠나서 그 어디 가도
어머니 못잊어 그러운 마음

이 세상 한끝에 멀리 있어도
그 맘으로 따르네 어머니당을

흐르는 세월속에 나이들수록
당중앙 그 사랑 더욱 귀중해
은혜로운 해빛속에 한생을 살며
그 맘으로 받드네 어머니당을

운명개척을 위한 심오한 진리를 밝힌 철학적인 종자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의 종자에 대하여-

박 용 학

문학예술작품의 불멸의 가치, 영원한 생명력은 그
에 사람들의 운명개척을 위한 심오한 진리가 얼마나
깊이있게 천명되어있는가에 의하여 중요하게 결정
된다.

세계의 주인으로 살며 자기 운명개척의 주인이 되
려는 사람들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혁명적문학예
술,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
는데서 반드시 의거하지 않으면 안되고 지침으로 삼
지 않으면 안되는 고귀한 진리가 담겨진 참된 문학
예술작품은 세기에 세기 두고 전해지며 사람들을 자
주위업의 실현을 위한 성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
는데 힘있게 복무하는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공연 된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이 바로 그러하다. 이 작
품은 사람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도 자신에게 있다는 투철한
자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참된 삶을 위한
진로를 밝혀주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이 보여
주고있는 이 심오한 진리는 명작이 담고있는 철학적
인 종자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으며 밝혀지고
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이 담고있는 종자는 주체시
대 자주적인간들의 운명개척을 위한 심오한 진리를
밝혀주는 철학적인 종자로써 특징된다.

최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연
극 《성황당》의 종자에 대하여 심오한 해명을 주시
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연극
《성황당》의 종자는 없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제 힘을 믿어야 한다는것이라고 밝혀주시고 그것이
작품의 종자로 되는 근거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없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제 힘을 믿어야 한
다는 혁명연극 《성황당》의 이 종자는 사람들에게
운명개척을 위한 진리를 깨우쳐주는 참으로 철학적
인 종자로서 깊은 뜻을 담고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종자에는 무엇보다먼저
운명개척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그에 대한 해명이 주어져있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
의 사람은 사회의 한 성원으로 살면서 운명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되며 그 개척을 위한 투쟁에 힘

있게 떨쳐나서게 된다. 운명문제란 일반적으로 사람
들의 생사존망, 흥망성쇠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리게
되는데 이것은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과정으로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
기 위하여서는 이 면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진리
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올바른 방법론을 소유하여
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운명은 결코 스스로 개척
되지 않는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람의 운명은 운
명개척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진리를 체득하고 자
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 투쟁을 벌려나갈 때 개척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앞에는 운명개척의 올
바른 길을 밝혀주는 심오한 진리를 천명하는 혁명적
문예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게 되는것이다.

사람들의 운명문제를 다루고 그 개척을 위한 진로
를 제시해주는 생동하고도 진실한 영상을 창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사
회주의적문학예술, 노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으로 사람들을 적극 불러
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사
람들의 생활과 활동, 투쟁에서 나서는 근본적인 문
제, 가장 절실한 활동, 투쟁에서 나서는 근본적인 문
제, 가장 절실한 문제를 종자로 제기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사람은 그를 둘러싸 자연과 사회와의 관계속에서
살며 활동한다. 사람은 자연과 이러저러한 련계를
맺으며 사회의 한 성원으로 된다. 사람은 결코 자연
과 사회와 고립적으로 존재할수 없으며 그와 무관계
할수 없다.사람의 운명도 자연과 사회와의 관계속에서
개척되게 된다. 사람은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과정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운명도 개척하게 된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운명개척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람자신인가 아니면 사람을 떠난 외부세계에 그 어
떤 주인이 있는가, 사람은 이에 대하여 우선 올바른
리해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운명
개척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
지는것은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출발점으로 된

다고 말할수 있다.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인식을 가지고있어야 확신에 넘쳐 주인의 위치에서 목적 의식적인 활동을 능동적으로 벌어나갈수 있는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에 대한 과학적인식이 있어야 주인으로서의 자세와 입장을 투철히 가지고 그에 주동적으로 대할수 있으며 필요한 힘을 쓰게 되는것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없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제 힘을 믿어야 한다는 종자로 제기하고 완벽하게 해명함으로써 운명개척의 당사자,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이 중요한 원칙적문제에 심오한 철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미신을 비롯한 종교에 대한 신앙심은 사람들의 자주의식이 높이 못하고 창조적능력이 극히 부족하였던 고대시기에 나타났었다.

자주의식이 극히 낮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였던 당시의 역사적조건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로부터 신에 의하여 운명문제를 풀어 보려고 하였으며 반동적인 착취계급들은 신, 종교를 인민대중을 기만하고 억누르는 통치수단으로 삼아왔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 사람들은 과연 운명개척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데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운명개척에서 자신이 서야 할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는 력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에 이르러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명을 주어 사람들에게 운명개척의 당사자,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겨주고 그들을 계급적억압에서뿐아니라 신의 구속에서도 해방시켜 참된 삶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앞에 나선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시대가 문학예술앞에 제기하는 이 절실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에 심오한 해명을 줌으로써 주체시대 사람들의 운명개척을 위한 진로를 밝혀주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것으로 하여 작품은 만사람들의 심장을 그처럼 억세게 틀어잡고 있으며 생활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는것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종자에는 다음으로 사람은 운명개척의 당사자, 주인일뿐아니라 사람에게는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이 있다는 심오한 진리가 또한 밝혀져있다. 여기에 이 명작의 종자가 철학성을 띤 종자로 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있는것이다.

운명개척의 주인이 사람자신이라는 측면과 운명개척의 힘이 사람자신에게 있다는 측면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전자가 운명개척의 당사자를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라면 후자는 운명개척의 요인

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철학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는데 기초하여 운명개척의 당사자와 그 요인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작품의 주인공 돌쇠와 기타 인물들의 극적 형상을 통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고 미학적인 해답을 줌으로써 사람들의 운명개척과 관련한 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깊이있는 예술적형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작품의 주인공 돌쇠와 그리고 복순이와 그 어머니의 형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에게는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이 얼마든지 있다는 엄숙한 진리를 강하게 느끼게 한다. 연극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소박하고 근면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투쟁에 떨쳐나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압제자들을 타승하고 자유와 행복을 전취할수 있는것이다. 돌쇠와 마을사람들의 투쟁에 의한 황지주, 백구장을 비롯한 계급적 원수들의 비참한 종말은 그것을 웅변적으로 확증하여준다.

사람이 운명개척의 주인으로서의 힘을 가지게 되는것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자체의 본질적특성과 관련된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이것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고 발전하려는 요구를 가지게 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합목적적으로 벌어나가게 된다. 다시말하여 사람에게는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가 있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창조적힘, 능력이 있는것이다. 사람에게는 이 요구와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운명개척의 주인으로 될뿐아니라 운명개척의 힘도 가지게 되는것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 창조적능력, 힘을 발휘함으로써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결정적력량, 요인으로 되는것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철학이 밝혀준 심오한 원리들과 운명개척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진리들을 극적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천명함으로써 종자의 철학성을 담보하고있으며 작품의 사상에술적 완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는것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고전적모범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작품의 철학적깊이는 결국 종자의 철학적 무게와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는것이다. 이것은 철학적인 종자의 선택과 그것의 깊이있는 예술적해명에 의하여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 철학적깊이가 좌우되게 된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란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를 말합니다.》

문학예술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데는 물론 여러 형상적요인들이 작용한다. 철학적깊이는 일련의 형상적요인들의 유기적인 작용에 의하여 달성되는 창작과정의 총체인것이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종자이다. 종자는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일련의 형상적요인들과의 호상관계에서 주도적위치에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미학적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것은 창작에서 종자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의하여 설명되어 진다.

철학적무게를 가진 종자에 의하여서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과 사회적문제의 예리성도 담보되며 생활의 새로운 탐구와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도 형상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데서 종자는 여러 형상적요인들과의 관계에서 주되는 위치에 있고 주되는 형상적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것을 확증하여 준다.

혁명연극 《성황당》이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철학적깊이가 있는 우리 시대 혁명연극의 본보기로 될수 있는것은 중요하게 작품이 체현하고있는 철학적인 종자와 관련되어있는것이다.

이 혁명연극은 없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제함을 믿어야 한다는 작품의 종자속에 담겨진 운명 개척의 당사자, 주인은 사람자신이며 사람에게는 그것을 개척할 능력, 힘도 있다는 진리를 빛나는 예술적 형상으로 풀어내감으로써 철학적깊이를 보장하였으며 사람들에게 강렬한 사상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는것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이 제기한 철학적인 종자는 이 작품의 심오한 주제사상을 조건 짓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혁명연극 《성황당》의 주제는 종교의 허위성과 반동성을 폭로하는 문제, 종교는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으로 된다는것이며 사상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착취와 억압에서뿐아니라 종교와 미신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도 해방되어야 한다는것이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의 철학적인 종자는 그 심오성과 독창성으로 하여 불멸의 가치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다.

그것은 혁명연극 《성황당》이 제기한 종자가 지구상에 의하여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쪼먹는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는 조건에서 성황당과 같은 재래의 토착신앙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종교와 신의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그들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도록 하는것은 자주적인간의 운명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은 온갖 계급적예속에서 벗어나야 할뿐아니라 자주성을 구축하는 종교와 같은 온갖 신앙에서도 해방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반동적인 통치배들에 의하여 인간의 자주성을 구축하고 자주의식을 쪼먹는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되어 왔으며 그것으로 하여 종교는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의 역할을 하였던것이다.

오늘 미제와 그 주구 전두환군사장패도당들이 온갖 미신을 되살려 남조선인민들의 날로 높아 가는 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은 그 단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미제와 남조선의 군사파쑸도당들은 종교와 몽매한 미신숭배사상을 극성스레 주입시킴으로써 제놈들의 반인민적정체를 가리우고 견잡을수 없이 무너져 가는 저들의 통치를 부지해 가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이것은 오늘 종교파 미신이 인민의 원수들에 의하여 사람들의 건전한 리성을 쪼먹고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 마약으로 리용되고 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지구상에 아직도 각양각색의 종교와 미신이 남아있어 사람들을 이리저리하게 구속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비과학성과 허위성, 반동성을 철저히 폭로하여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사람에게는 운명을 개척할 힘, 능력이 있다는 생활과 투쟁의 진리를 깊이 인식하고 체득하는것은 자신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준비하며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을 보다 힘있게,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문예사에서 새로운 개척한 명작이다.

작품은 참으로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그러한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빛나는 예술적해명을 줌으로써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로 되고있다. 여기에 혁명연극 《성황당》이 인류문예사에서 차지하는 그 특출한 위치가 있으며 불멸의 가치가 또한 있는것이다.

동서고금의 문예사를 더듬어 보면 종교와 미신의 허위성과 반동성을 일정하게나마 폭로한 작품들이 전해지고 있다는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있다. 그러한 작품들은 인간의 자주정신을 마비시키고 중독시키는 종교의 허위성과 비과학성을 폭로함으로써 사람들을 반종교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을 주었던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종교의 비과학성과 허위성, 반동성을 비판하는것과 같은 계몽주체의 작품들은 전해져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종교의 허위성과 비과학성을 폭로 비판하는것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발자욱 더 깊이 들어가 그것을 인간의 운명개척의 문제로까지 승화시킨 그러한 작품, 즉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자각에 관한 문제, 그를 위한 투쟁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확대 시키고 심화시킨 그러한 작품은 없었다는것을 알고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작품은 새로운 경지를 독창적으로 개척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인류문예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며 그 가치와 생명력은 영원불멸한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의 철학적인 종자는 완벽한 예술적형상으로써 감명깊게 밝혀지고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종자는 작품의 주인공인 돌쇠의 감동적인 형상과 복순이와 그 어머니의 설득력있는 형상에 의하여, 그리고 작품의 양상적특질에 의하여 해명되고있다.

이 혁명연극의 심오한 종자는 무엇보다먼저 돌쇠의 형상에 의하여 감명깊게 밝혀지고있다.

그것은 주인공 돌쇠의 형상이 종교의 허위성과 반동성을 지혜롭게 폭로하면서 마을사람들을 미신적인 속박에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자기 힘에 대한 자각을 안겨주는데로 일관하게 지향하고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돌쇠의 형상은 지혜롭고 총명한 청년이 형상으로서 특징된다. 그는 부자집자식들처럼 학교는 크게 다닌적이 없으나 야학에서 실속있게 공부함으로써 종교의 허위성과 비과학성을 똑똑히 인식했으며 사람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이 세상에 없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제 힘을 믿어야 한다는 진리를 체득한 지혜있는 활달한 청년이었다. 그는 자기가 확신하고있는 이 진리를 마을사람들속에 인식시켜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돌쇠는 복순어머니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뜻깊은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잘 살려면 말이에요. 없는 귀신을 믿을게 아니라 제 힘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모두다 잠에서 깨여납시다. 이제 여기두 또 야학을 세웁시다. 아는것이 힘이에요. 모든건 우리들이 어떻게 제구실을 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두 잘살때가 와요.》

돌쇠의 이 대사속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있으며 그것은 그대로 이 작품의 종자를 표현해준다.

작품은 지혜있는 청년인 돌쇠의 감동적인 형상을 통하여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귀신이나 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오직 제 힘을 믿고 일떠서야 하며 운명의 주인이라는 투철한 자각을 안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할 때 반드시 운명은 개척되고야만한다는

생활과 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힘있게 밝혀주고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극중에서 하는 돌쇠의 이 철학적인 대사, 명대사를 들으면서 정녕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며 그것은 막이 내린 다음에도 지울수 없는 여운을 남기게 한다.

돌쇠의 형상은 자주적인간의 생동한 극적형상으로서 특징적이다. 돌쇠의 형상은 단순한 미신타파와 같은 계몽적인 형상인것이 아니라 운명개척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실생활로써 느낀 주체시대 자주적인간의 림름한 형상이다. 이기에 혁명연극 《성황당》의 주인공 돌쇠의 형상이 가지는 혁신적의의가 있는것이다.

돌쇠의 형상은 이 세상에 없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제 힘을 믿어야 한다는 진리로 소박한 마을사람들을 무장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형상으로서 또한 특징적이다. 이에 있어서 그는 인민들의 피땀을 뺀아 배를 불리는 기생충들인 황지주와 백구장, 전도부인과 중놈을 비롯한 착취자들의 간교하고도 음흉한 정체를 놀라운 기지와 지혜로써 통쾌하게 발가놓는데 이것은 참으로 감동적이며 가슴 흐뭇한 형상으로 안겨온다.

돌쇠의 이러한 기지에 찬 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자주정신으로 무장한 소박한 인민대중이야말로 그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로우 존재이며 바로 그러한 사람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투쟁에 일떠선 때 압제자들을 타승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취할수 있다는 엄숙한 진리를 심장으로 느끼게 하는것이다.

이 혁명연극의 심오한 종자는 다음으로 복순이와 그 어머니의 인상깊은 형상을 통하여 깊이 있게 밝혀지고있다. 다시말하여 복순이나 그의 어머니와 같이 없는 귀신을 믿던 사람들이 미신에서 깨어나 성황당을 짓부셔 버리게 되는 각성과정은 이 작품의 종자의 예술적 구현과정으로 되는것이다. 복순이와 그의 어머니는 없는 귀신은 믿다가 그것의 허위성과 반동성을 깨닫고 마침내 운명개척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것을 확신하고 각성되어 가는 미더운 인민들의 전형적형상들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없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제 힘을 믿어야 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천명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복순일가의 극적생활에 대한 진실한 사실주의적묘사와 극적형상을 통하여 깊이 있게 해명하고있다. 복순이와 그 어머니 박씨가 없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제 힘을 믿어야 한다는 진리를 체득하기까지에는 실로 심각한 극적체험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의 경우에 운명개척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이 진리는 결코 손쉽게 체득되여진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황당과 같은 몽매한 미신에 대한 《기대》가 하루이틀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각성되지 못한 사람들속에 뿌리깊이 박힌 하나의 악습으로 되기때문이다.

성황당과 같은 미신에 대한 《기대》는 복순이와 그의 어머니의 각성과정을 집요히 방해하였으며 그것은 종교는 사람들의 자주정신을 마비시키는 아편과 같다는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여 준다.

잠에서 깨어난 박씨는 《내가 못산건 사주팔자때문이 아니라 이 도깨비당을 믿었기때문이다. 도깨비당!》라고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성황당을 후려 갈린다. 박씨의 이 형상은 사람은 제 힘을 믿고 운명개척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진리에 대한 힘찬 호소이며 사람의 운명은 결코 그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수 없다는것에 대한 확신에 찬 웨침인것이다.

이 혁명연극의 심오한 효자는 다음으로 이 명작고유의 양상적특질에 의하여 인상깊은 형상으로 밝혀지고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종래의 풍자극과는 달리 웃음도 있고 사색도 있는 독특한 양상적특질을 가지고있는데 이것은 없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제 힘을 믿어야 한다는 작품의 종자를 밝히는데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풍자희극적인 양상의 극작품으로서 이 측면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기념비적명작이다.

이 작품은 풍자희극적인 양상을 띤 작품이나 웃음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색도 있고 눈물도 있다. 작

품에는 복순일가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이 진실하게 반영되어있을뿐아니라 모진 가난과 학대속에서도 래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을 속삭이는 만춘이와 복순이의 정서생활도 또한 있는것이다.

작품에는 참으로 현실생활 그대로 웃음도 있고 사색도 있으며 정서도 있고 눈물도 있는것이다. 작품에 그려진 이러한 웃음과 사색, 정서와 눈물은 없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제 힘을 믿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로부터 초래된것이였으며 또 운명개척의 이 심오한 진리를 터득하는데로부터 작중인물들이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감정정서였다. 그리하여 이 작품에 진하게 비친 양상은 어디까지나 주인공을 비롯한 작중인물들의 성격을 특징짓고 종자를 형상적으로 해명하는데 바쳐지고 있는것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창조경험은 문학예술작품, 특히 극작품에서 양상은 철저히 생활의 요구에 맞게 잡아나가야 하며 그것은 작중인물들의 성격적특질을 규정짓고 종자를 형상적으로 해명하는데 적극 이바지될 때만이 자기의 고유한 미학정서적기능을 참답게 수행하게 된다는것을 웅변적으로 확증하여 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은 주체시대 사람들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종자로 제기하고 빛나는 예술적형상으로 해명함으로써 운명개척의 진로를 밝혀주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혁명의 기수로

최 장 수

미처 몰랐어라
소문도 없는 우리 공장을
찾아오실줄이야
문득
저의 기대앞으로 다가오실줄이야

태양같이 환히 지으신 미소
다정히 이 손을 잡아주시며
몸소 허리 굽혀 물으셨네
나이와 이름까지

짙바람 부는 간석지에,
아니면 싹트는 땡산모판에
들리신 그 걸음걸음이신가
흙물은 신발에 풀냄새 아직 나는듯

예지에 넘치신 사랑의 눈길
기대우에 빛나며 날리는
모범기대 우승기에서
기대공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누구보다 기뻐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동무의 충성심은
저 기발이 다 말해주오!
참 장하오!
아, 이 얼굴 순간에 붉어지고
이 작은 가슴에 감격의 파도 일어
목이 메이고
말문이 열리지 않아
인사도 미처 올리지 못했는데
바이트는 돌고돌아 불꽃 날렸네

속도전의 불바람, 만부하의 동음도

날마다 달마다 넘쳐한 과제도
이 붉은 기폭에서 읽으시는듯
잠시 사색속에 계시였거늘

몸소 26호선반을 잡으시고
로동계 급속에
조국을 받드는
그 마음을 심어주시며
기적과 혁신의 나래를 펼쳐주신 그 나날
아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리신
그날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듯

아, 내 아직은
그 모범 따르는 길에서
기쁨을 드리기엔 너무나도 이르건만
그토록 만족해하시었나니

그 사랑 그 믿음 한없이 고마와
이 가슴 뜨거워 행복에 젖어
기발이 겨웁도록 기쁨에 설레는가
마음속 더더욱 붉게 피여라

래일도 모레도 오늘에 살며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승리의 노래 높이
제2차7개년 봉우리우에
남먼저 오르라신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말씀 가슴깊이 간직하고
내 오로지 이 기발
이 순회우승기
기대와 함께 영원히 살리
혁명의 기수로!

렬차안에서

박 창 민

후두둑, 후두둑…
차창을 치는 비발속을 헤가르며 렬차는 경쾌하게 달리고있었다.

오색기발 필력이는 건설장들, 뭉게뭉게 연기를 뿜어 올리는 공장굴뚝들, 하늘과 키돋움하며 솟아 오른 철탑들…

들끓는 조국의 거창한 모습이 차창으로 물결쳐 왔다.

제 2 차 7 개년계획의 마지막해를 승리로 빛내이기 위해 창조로 들끓는 생활의 한복판으로 취재의 길을 가는 나의 마음은 즐겁기 그지없었다.

《어델 가나 저렇게 들끓는군요.

우리 농장주 아버지수령님께서 다녀가신후 몰라보게 달라졌지요.》

《아버지수령님께서 그 험한 산골에도 가셨겠습니까?》

《그럼요. 지난날 우리고장은 사람 못살곳으로 알려졌지요.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그 험한 산길을 몸소 걸으시면서 이렇게 산을 깎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버림받던 산관을 방목지로 만들어 주시고 큰 목장도 꾸려주셨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흔하디흔한 산열매와 나무잎을 원료로 쓰는 식료공장, 직물공장 종이공장도 세워주셨지요.》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탄광에까지 오시여 탄부들의 손을 잡아주시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있던 옆의 학생의 말참견을 하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셨했어요.》

《그래?》…

들을수록 가슴뜨겁다.

손님들이 내리고 손님들이 올랐다. 고장이 바뀔 때마다 그들을 아버지수령님께서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주신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정녕 이 나라의 어느 이름없는 오솔길에도, 간석지동쪽길에도, 자그마한 포구에도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노래하는 위대한 사적이 깃들어있지 않는곳이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성스러운 일이며 값있고 보람찬 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걸어온 혁명투쟁

로정에 대하여 언제나 뚝뚝하게 생각하며 혁명사업에 몸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로정마다 인민을 위해 바치신 심혈의 자욱 그 얼마나 뜨겁게 아로새겨져있으며 그 길에 바치신 로고는 또한 그 얼마인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와 탁월한 령도, 고매한 덕성으로 이어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도의 길, 이 현명한 령도의 길, 은혜로운 사랑의 길로 조국땅 그 어디에나 위대한 변혁의 새 력사가 펼쳐진것이 아닌가!

렬차가 험산준령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령이 험하기도 하다.》

《계속 차굴이구만.》

《옛날에야 인적 없는 심산이었지요.》

손님들이 차창밖을 내다보며 하는 말이였다.

언뜻언뜻 지나가는 산밭들, 험산계곡들, 산기슭을 감도는 흰구름… 령이 높기도 하다. 그 기슭을 에돌며 실오리처럼 가는길이 뻗어있다.

후두둑, 후두둑…

비방울이 차창을 때렸다.

렬차는 두줄기 레주를 따라 험산기슭을 감돌며 령을 넘어가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렬차안이 범석거렸다.

《아 - 위대한 수령님이신것 같소!》

《뭘, 수령님?!》

《그렇소 수령님이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도의 길은 가고계시오.》

손님들이 와르르 차창으로 밀려가며 소리쳤다.

순간, 렬차안에는 격동의 파도가 굽이쳤다.

나는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정말 승용차들이 령을 오르고 있었다.

철길옆으로 흘러간 길을 따라 달리는 아, 낮은 까만 승용차!

수도의 네거리에서, 취재길의 비 내리는 농장마을 길에서, 눈덮인 제철소구내길에서 많이도 보아 온 위대한 수령님의 승용차!

(아,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도를 가시누나! 단 하루라도 쉬시웁기를 그처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 노래가 되어 온 강산에 울려가는데 이렇게 찬비 내리는 날 또다시 현지도의 길을 가십니까!)

눈앞이 흐려졌다. 감격이 솟구치는 걱정 of 눈물인

가 차창으로 줄줄이 비물이 흘러내렸다.

흐려지는 나의 눈앞에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떠올랐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쌓이고 덧쌓이는 피로를 오히려 보람으로 여기시며 이 세상 험한 길을 모두 걸으시는 우리의 수령님!

단 하루밤, 한나절이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병사들 것처럼 간절히 바라건만 아침에서 아침까지 위대한 사랑의 길을 이어가시는 거룩한 자욱자욱...

암담하던 지난날 바람 세찬 광야에서 갈길을 몰라 헤매이던 사람들을 혁명의 길에 세워주시며 한별로 빛나시던 그때로부터 영광으로 빛나는 어버이수령님의 50 여성상에 걸치는 혁명의 자욱!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시작하신 혁명의 그 길을 항일의 싸움길과 건국의 초행길에 불타는 전선길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의 길에 이으시여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길 끝이 없다.

백두의 행군길 피로도 푸실새 없이 그리운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시고도 들리시지 않으시고 강선을 찾으시던 그 갈림길로부터 농민들과 함께 모를 내시던 그 논판과 전화의 날에 찾아주신 잊지 못할 그 발머리, 두만강기슭의 진펄길을 걸쳐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나날 그이께서는 쉬임없이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신다.

위대한 사랑을 안으시고 끝없이 이어가시는 그 길에 바치신 수고를 우리 어떻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생각할수록 가슴뜨겁다.

조국의 그 모든 길우에 불멸의 서사시를 아로새기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땅 그 어데라 없이 이어가시고 또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길, 그 사랑의 자

욱우에 주체로 빛나는 오늘의 조선이 솟아나고 끝없는 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진것이 아닌가.

은혜로운 그 사랑의 해빛아래, 위대한 그 령도의 손길아래 이 땅에 천지개벽의 노래 흘러넘치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시는곳마다 살기좋은 문화 농촌들이 생겨나고 그 옛날 《아리랑》노래 구슬피 울리던 고개길로 오늘은 트락트르들이 통탕거리며 넘어간다. 아이들을 태운 통학배스가 달려간다. 양떼가 흐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시는곳마다 새 광산 개발의 발과소리 울리고 무심히 흐르던 개천에 칠색송어떼 육설거린다.

그 옛날 사람 못살곳이라 버림받던곳에 문화주택 즐비하고 병원과 문화회관이 일어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령길 저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아도 나는 차창에서 눈길을 땔수가 없었다.

령을 넘어 가신 길은 몇천굽이며
들을 지나 가신 길은 몇만리런가
사회주의 이 강산 그 어디에나
수령님의 손길은 어려있어라...

내 마음의 노래인양 렬차방송에서 노래소리 절절하게 울렸다.

렬차는 쉼 없이 달려갔다.

위대한 수령님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나의 마음을 싣고 기쁨을 싣고 행복을 싣고.

나의 눈앞에는 령을 넘어가시던 그이의 거룩한 영상이 사라질줄 몰랐다.

아- 수령님! 수령님!...

주작봉마루에서

박 철

잊지 않으시고
수령님 잊지 않으시고
30년...40년 ...
년년 쌓이고 쌓인 세월속에서
찾아오시고 안아오신 이들은 누구?!

사진도 없어
누구도 남기고 간 혈육도 없어
그 한명 한명을
심중에 새겨진 모습으로
수령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들은?!

바람찬 고유수 동터오는 하늘가에
한별의 노래를 남기고 간 지휘원도 있어라
철쇄에 묶여 십여년
한번 다진 맹세 지켜싸우다
해방의 날을 며칠 앞두고 간 공작원도 있어라

한흠의 미시가루로
백여일 눈보라를 헤치면서도
그이의 결을 아니 떠났고
원썬들에게 두 눈을 빼앗기고도
우러른곳은 장군님 계신 사령부였나니

하나와 같아라 열백이 넘어도
뜨거운 눈물로 받아안은 삶
붉은 피도 서슴없이 바칠줄 안 이들
오직 하나 전사된 의리로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그이 받들어 심장을 고여온 충신들

그때문에 그때문에
우리 수령님 못잊으시여라
한생의 1년을 함께 걸으시였건
한생의 10년을 함께 싸우시였건
평생을 두고두고 추억하시나니

오, 주작봉은
의리앞에 의리로 부끄럼 없는
전사들이 서는곳

쓰러졌어도 두 눈동자에
수령님의 영원한 사랑
해빛을 담고 푸른 하늘은 담고
전사들 영생하는곳

안고가리라, 의리로 빛나는 저 모습들을
이 냈, 이 심장
걸음걸음 투사들의 의리로 불태우며
나도 저들처럼 이 년대에 살고싶어

그 어느 혁명의 전구에서
그 어느 순간에 삶을 마쳐도
내 당을 받들어 다한 의리로
나의 한생 당의 한가위속에 남고싶어
우리 당의 기억속에 살고싶어

사령부로 가는길

신 지 락

보이는듯싶어
발돋움하면 저기 숲너머로
사령부귀틀집 지붕이 보여오고
붉은 기발의 펄럭임소리도

금시 귀에 들려오누나
이제라도 달음쳐가면
앞서간 투사들을 따라설듯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젊으신 장군님의 영상
몸가까이 만나뵈울듯...

이 길이어라,
천리만리
그 어디 싸움길 멀리 가있어도
그리워 장군님 그리워
우등불가 쪽잠 든 꿈결에도
투사들 마음 나래쳐 가던 길이

살이 타고 뼈가 부셔 지는
악형의 긴긴 밤
스스로 허를 끊어
투사가 지키여낸것은
아, 사령부로 향한
이 길이였어라!

밀림의 저 설레임소리는
장군님 찾아 투사들이 헤쳐오던
그날의 눈보라소리 아닌가
발목까지 묻히는 가랑잎은
이 길에 새겨진 투사들 발자취
눈비에 흐려질가봐 쌓였는가

피 흐르는 가슴 그러쥐고
사령부를 향해
한치한치 투사가 기어서 넘던
저 아름다리 진대나무엔
그날에 뿌린 선혈이
이끼로 푸르렀구나

여기 이어졌으리
월미도 영웅전사들이
꽃같은 청춘을 바치고

웃으며 달려간 그 길도
열명 당원들이 걸어온
락원의 그 구내길도

장군님 떠나 선 순간도 살수 없고
운명의 그 품을 떠나선
삶도 희망도 미래도 없기에
인생의 길은 천만갈래여도
충신들이 걸어온 길은
장군님 향한 이 길이였구나

그날의 투사들이 열어간 길
그날의 영웅들이 걸어간 길
세월을 넘어
세대를 이어
오늘은 천만심장속에 뻗어왔거니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길을 걸으리
짧아도 길어도 한생을
영원히 이 길로만 걸어가리

아, 사령부로 가는 길
우리 당중앙으로 가는 길이어!

가사

간석지의 새노래

한 찬 보

벼바다 넘실 물결쳐오는 달밝은 밤에
간석지마을 그 어디선가 가야금소리
아 설레는 간석지 넓은 벌에
저 달도 둥실 노래에 실려 하늘에 웃네

기슭을 치던 푸른 물결은 어데로 갔나
황금의 파도 이 벌에 넘쳐 굽이쳐오네

아 수령님사랑이 꽃피나는
희망의 새 벌 행복의 마을 노래하여라

새살림 펼쳐 웃음꽃 피는 창문마다에
청춘을 바쳐 조국땅 넓은 자랑도 많네
아 이 마음 담아서 울려가라
지평선넘어 수평선넘어 가야금소리

귀 결

김 병 훈

1

깜깜한 그믐밤이었다. 손전등으로 발밑을 비치며 범고개의 비탈진 험한 오솔길을 뚫아오르던 도경제 지도위원회 부위원장 한경수는 중턱에 멈추어 서서 헐떡헐떡 가쁜숨을 태우며

《제길, 늑긴 늑었군...》라고 중얼거리더니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작업복차림이지만 50대의 풍채 좋은 체격이며 일거일동 서두르지 않는 몸가짐은 오래 몸배인 간부의 체취를 감추지 못한다.

그는 초가을의 싱그러운 밤공기를 한껏 들여마셨다. 어쩐지 공기속에 무르익는 머루, 다래, 도토리, 밤따위 가을열매들의 향기가 풍기는것 같았다.

예전에는 광산에서 읍까지 5리가 넘는 험한 범고개와 10리 학교개를 한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넘어다녔다. 평소에 사람들한테서 늑지 않는다니, 젊어진다니 하는 소리를 들었고 자신도 그렇게 자부하여 왔는데 범고개 하나도 넘지 못하고 주저앉다니...

하για 30년세월이 흘렀지. 세월앞에는 정말 영웅호걸이 없는것인가?...

그는 단숨을 후유 내뿜며 멀리 샘골바닥에 무수히 깔려있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가끔 푸른 용접광이 하늘을 가를 때마다 골바닥에 들어찬 2, 3층 건물들의 룬팍이 드러나보이군 한다. 새로 일어서는 로동자주택마을이다. 등뒤의 범고개너머전에서는 마광기며 권양기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 거기에는 광산본부가 있는것이다. 한경수는 저녁전에 범고개를 넘어와 샘골주택지구 건설장을 돌아보고 되넘어가는 길이었다.

그는 감회어린 표정으로 먼 불빛을 바라보았다. 근 30년만에 보는 산천이다. 중앙에서 일하다가 도에 내려온지도 3년세월이 지났건만 지방공업총국을 맡아보는 동안은 버리기만 하다가 끝내 와보지 못했다.

그가 정전직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받은곳이 바로 여기 원흥광산이다. 그러나 그때 여기에는 광산도 없고 집도 없었다. 지배인과 당위원장, 생산지도원인 한경수, 이렇게 세사람이 무인지경 이골안에 들어와 전선에서 곧바로 개발지로 달려온 제대군인들과 함께 바라크 몇채를 지어놓고 땅뚜정을 떼는 첫 발파소리를 울려 골안의 범과 곰, 메돼지들을 놀라게 하였었다. 누군가 밤중에 범을 꼬리에 달고 함께 넘었다고 하여 이 고개에 범고개라는 이름이 붙고 약수샘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저 골짜기를 샘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것도 다 그무렵에 있는 일

이다.

그때 전쟁 3년간에 헤어져 살던 가족들이 뒤따라 왔지만 첫 쇠돌을 실어내기까지 일년동안은 20리가 가까이 떨어진 면소재지마을에 옷방살이를 시켰었다. 스물다섯밖에 안되는 한경수에게도 아이들을 돌씩이나 데린 안해가 찾아와서 창피를 당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오랜 광부출신의 텃석부리 지배인이 깜짝 놀랐었다.

《아니, 이 전쟁통에 어느새 대학을 다니구 장가까지 들어 아이를 돌씩이나 벌어들였소?》

옛 추억이라 지금은 우습지만 그때는 몸둘바를 몰랐다. 늑마에 외독자를 본 부모들이 겨우 스무살난 한경수를 욕바지르다싶이 장가를 들었다. 낫을 못들고 다니는데 마침 그해 가을 그가 선반공으로 일하던 기계공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으로 가게 되었다.

30년, 어느사이 그처럼 긴 세월이 흘렀던가. 종업원 오륙백명이던 자그마한 광산이 이제는 유색금속 150만톤고지점령에 큰몫할 손꼽히는 광산으로 자라났다. 격세의 감 새삼스럽다. 그간 자신은 또한 얼마나 변했는가? 광산에서 지도원, 과장을 거쳐 부지배인을 하다가 5년만엔가 소환되어 올라가 여기저기 중앙의 경제지도기관들속에서 사업하였었다. 그러다 3년전에 도지방공업총국을 책임지고 내려왔는데 올해초에는 다시 경제지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하여 채취공업부문과 지방공업 부서들을 맡아보게 되었던것이다.

이렇게 30년 긴 세월을 지내고 찾아와보니 그간에 자라난 광산과 자기 사이에 그 어떤 야릇한 운명의 반연이 느껴지며 저도 모르게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험치 않은 30년세월을 대과없이 지나 이 골짜기를 찾아온 자신의 한생이 어쩐지 대견스럽다.

《늑다니, 무슨 소리를...》

누구에게 항변이나 하듯 중얼거리며 엉뚱이를 드는데 갑자기 어딘가 가까운데서 와르르 돌각담 허물이 지는것 같은 소리와 함께 찌지는듯 날카로운 너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와스스 수풀을 헤치는것 같은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다음순간 조용해졌다.

머리깃이 쭈뼛해진다. 한경수는 소리가 난 길아래 권쪽에 손전등을 켜대고 조심조심 걸어내려갔다. 바로 코앞에서 너자의 가느다란 비명소리가 또한번 일어나는것을 들은 한경수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 손전등으로 주변을 더듬었다.

《누구요!》

이렇게 소리쳤으나 응답이 없다. 길가의 다복술언저리에서 흠칫 불빛을 멈추었다. 나무밑에 웬 녀자가 쪼크리고 주저앉아있다. 흰자위 돌아간 겁질린 눈으로 쳐다보다가 다급히 한손으로 얼굴은 가리며 뒤걸음친다. 품에 자그마한 보통이를 껴안았다. 가쁜숨을 따라 보통이가 턱우에까지 들렀다내렸다 한다.

《대체 무슨 일이요?》

이렇게 물으며 불빛으로 주변을 더듬었으나 별 다른 흔적을 찾을수 없었다.

혹시 제발로 돌을 굴리고 놀란거나 아닐까?

《난 광산사람이요. 무슨 일이 있었소? 혹시 길가의 돌을 굴린게 아니요?》

녀자는 귀밑에까지 솟았던 어깨를 떨구며 긴숨을 내쉬더니 떨리는 소리로 대답하였다.

《무슨 시커먼게... 갑자기 앞에서 화닥닥 뛰쳐일어나 달려드는것 같았는데...》

녀자는 길건너편 캄캄한 숲쪽을 떨리는 눈길로 바라본다. 한경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음. 메돼진게로구만. 가을철이면 저 백운산 뒤 골안에 사는 메돼지들이 밤을 타서 가끔 넘어오군 한다오.》

《그런가봐요.》

녀자는 또한번 모두숨을 내쉬더니 주섬주섬 나무 밑에서 나왔다. 수수한 양복치마저고리를 입은 30대의 녀성이 었다. 한손에는 보짐을 들었다.

《어디 다친덴 없소?》

한경수는 녀자의 발치를 비치던 불빛을 치들며 물었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녀자는 소곳이 인사하고 고개를 쳐들었다. 좀 먼 구한 표정이였다. 녀자의 모습을 여겨보던 한경수는 저도 모르게 한걸음 다가섰다.

《아니 이게... 혹시 정옥이가 아니요?...》

한경수는 기연미연 이렇게 물었다.

《예예?!》

녀자는 눈이 둥그래서 한경수를 쳐다보았다. 틀림 없다. 모색은 펴 달라졌지만 크고 밝은 눈모습만은 변함이 없다.

30년전 광산을 개발할 때 한경수는 가족들을 20리 고개너머 면소재지 (지금은 군소재지 읍으로 되었다.)부락, 바로 정옥이네 집 사랑칸에다 일년 가까이 동거시켰다. 정옥의 아버지는 면인민위원회 서기장이였는데 나이는 한경수보다 20년가까이 우이지만 딸들은 동갑이여서 노란 머리꽂매이를 달랑거리며 학교에도 함께 가고 놀기도 언제나 함께 뛰놀았다. 그후 광산골로 옮겨 온 다음에도 서로 가고오며 자매간처럼 자별하게 지냈었다.

광산을 떠난후 정옥이를 다시 본것은 십여년전 평

양에 살 때였다. 딸 은순이가 낮모를 대학생처녀를 데리고 와서 누군가 맞혀 보라고 하였는데 정옥이라는 이름을 대주어서야 겨우 알아보았다. 하긴 그때도 눈매만은 눈에 익었다. 평양에서 사범대학을 다니는 몇해동안 집에 자주 다니군하였는데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간 다음에는 어느해엔가 딸 은순이가 정옥이 결혼식 보러 간다면서 선물을 마련하던 기억이 있다. 은순이 갔다와서

《참 애두, 내가 평양에다 그럴듯한 대상자를 몇 사람 소개한건 다 고개를 흔들더니 군인민위원회 지도원인가 한 사람한테 시집갔어요. 은순이보다 키가 작을사한게 불품없이 생겼는데... 집에서도 반대하는걸 제가 우겼다나요. 참 정말 뭘 보고 훌쩍 반했는지...》라고 도달거리던 생각도 났다.

순간에 모든것을 회상한 한경수는 몽클 달아오르는 옛정을 느끼며 한걸음 더 다가섰다.

《나 은순이 아버지야.》

《예?!》

정옥이는 또 한번 놀란다. 그제야 한경수는 자기가 불빛뒤에 섰다는 생각이 들이 손전등을 자기에게로 돌려댔다.

《아이 정말, 아저씨!》

정옥은 반색하며 달려왔다.

《어떻게 이렇게... 아저씨를 이렇게 만나뵈줄은...》

정옥은 내미는 한경수의 손목을 두손으로 마주 움켜잡고 놀라움과 반가움이 엇갈려 설레이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어쩔줄을 모른다. 가까이에서 보니 모색은 더욱 놀랍게 변했다. 살짜인 불편과 눈귀에 잔주름이 잡히고 관골이 솟은 불편에는 검버섯이 얼룩졌다. 무정한 세월이라더니, 함박꽃같이 탐스럽던 처녀가 어찌면 저렇게도 변했단말인가...

《나도 그렇소. 내 광산에 온지 십여일 되는데 그간 가끔 정옥이네 생각을 하면서도 경황이 없어서... 그래 부모님들은 모두 무고하시겠지?》

《아버지는 년로보장을 받으시다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

《뭘 돌아가셨단말이요!》

《예, 로환으로...》

듬직하고도 순박하고 인정깊게 생겼던 로인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였다. 정옥이도 아버지를 닮았다.

《흐음, 이번에 꼭 만나뵈리라 생각했는데... 그래 어머니는?》

《어머니는 동해안에 사는 오빠네 집으로 가셨어요.》

한경수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무상함이 가슴에 젖어든다. 한경수는 짙막한 한숨을 쉬고나서 다시 정옥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아직 교편을 잡겠지?》

《예, 읍중학교에서》
한경수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살갗인 얼굴의 주름과 검버섯이 세월탓만은 아닌것 같다.

《그래 애들이 있겠지?》

《예, 오누이 둘이에요.》

정옥인 수집게 귀밑을 붉혔다.

《헌데 무슨 일로 아닌밤중에 이 험한 고개를 넘어왔소? 광산에 급히 불일이라도 생겼나?》

정옥은 당황한 빛으로 머뭇거리다가 어물어물 대답하였다.

《애아버지를 만나려고...》

《애아버지라니? 군인민위원회엔가 있다는 소릴 들은것 같은데, 광산으로 직장을 옮겼소?》

작금년간 광산이 확장되면서 술한 제대군인들과 린근지구의 노동자, 사무원들이 광산으로 진출하였다.

《예, 지난 겨울에...》

역시 내키지 않은 대답이였다.

《흐음, 그렇게 되였구만...》

한경수는 마음이 언짢아졌다. 주택을 못받아서 이 고생이구나. 그러니 달마다 몇번씩은 저렇게 갈아입을 옷가지들을 궁겨들고 한밤중에 험한 고개를 넘어오겠지! 어린것들을 집에 두고...

한경수는 종업원들의 생활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야겠다는 강한 충격을 느꼈다. 주택과 합숙을 잘지어주며 기름, 물고기, 남새 등 부식물을 풍족히 공급하라는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오후 한껏 후방 부일군들과 대책을 의논하고 또 주택건설장도 돌아보고 오는 길이지만 정옥이의 정상을 보니 더 강하게 내밀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경수는 측은한 빛으로 정옥이를 여겨보다가 한마디 하였다.

《그럼 어서 넘어가자구. 밤도 깊었는데.》

《예...》

두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이제는 범고개 등성이의 삭도탑 불빛이 가깝게 바라보인다. 정옥은 종종걸음으로 따라오며 무슨 말을 할듯 자주 한경수를 살피보군하지만 그의 표정이 무거운것을 보고 입을 떼지 못하는것 같았다.

《안됐구만 정옥이, 고생을 시켜서. 하지만 이제 겨울전으로 주택이 해결될게요.》

한경수가 느닷없이 하는 소리였다. 그러자 정옥은 우뚝 멈추어섰다.

《아이, 그렇게 아니라...》

한경수는 어질어빠진 정옥이 미안해서 그러는줄 알고 저아래 썸골 불빛이 주택건설장이라는걸 설명해주려고 하는데 때마침 고개마루에서 누군가 불빛을 휘휘 저으며 소리쳤다.

《부위원장동지 아니십니까?~》

한경수는 잠시 바빠 마주 내려오는 불빛을 바라보다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누구요?~》

《북갱현장의 통계원입니다.》

간데라불을 든 사람이 앞에 다가와 서며 계속하였다.

《도에 전화가 걸속되였다고 합니다. 교환수가 썸골현장에 알아보니까 북갱으로 넘어가셨다고 하더라면서 북갱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부위원장동지 도착하시지 않았지. 그래 바빠 달려오는 길입니다.》

통계원은 주먹으로 이마의 땀을 훔친다. 고대하던 전화였다.

세사람은 범고개등마루에 올라섰다. 그대려 곧추 넘어가면 광산본부가 있는 큰골이요, 왼편으로 백운산허리를 끼고 내려가면 새로 개발하는 북갱현장이다.

《안됐구만 정옥이, 급한 전화가 돼서, 그럼 내려가서 애아버지를 만나보라구. 래일아침 자동차로 읍에 데려다줄테니 마음놓구. 아침에 애아버지와 함께 나를 꼭 만나보고 가야 돼. 자, 이걸 가지구.》

무엇인가 미련이 있는듯 서운한 표정으로 서있는 정옥이의 손에 손전지를 쥐여주고나서 한경수는 백운산너머편으로 반달음쳐 내려갔다.

2

북갱개발은 명년부터 쇠돌생산을 대뜸 3배로 늘어야 할 원흥광산확장공사의 생명선이다. 그래서 한경수는 매일같이 북갱현장에 넘어와 불어서 살다싶이 한다.

잘 들리지 않는 전화로 30 분가까이 목청을 돋구고나서 기진하여 앉았는데 지배인이 들어섰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뜸 묻는 소리다.

《해결됐소. 정무원에서는 지령을 떨켰고 무역부에서는 며칠안으로 사람을 띄운다누만.》

《이젠 살았구나.》

체통 아깝게 우는 소리 잘하는 지배인은 후유 긴숨을 내뿜며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것은 25 톤중량자동차 수입 문제다. 북갱개발에서 마지막으로 거린 문제가 선팡장까지의 광석운반에 중량차를 도입하는것인데 국내생산은 이미 계획에 올린외에는 한대도 여유가 없다고 하였다. 한주일나마 정무원과 매일같이 전화로 아웅다웅하였는데 오늘 끝내 풀리였다. 한경수 역시 마지막 시름을 놓는 심정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구석에는 아직 한가지 깨름직하게 걸린 문제가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것 보우.》

한경수는 안전모를 벗어놓고 이마의 땀을 훔치는 지배인을 건너다보며 계속하였다.

《로동자들속에서 자동차 대신에 벨트콘베아를 놓는 안이 제기된게 있다면서?》

지배인은 우뚝 몸을 일으켜세웠다.

《거 누가 그러니까?》

《누가 그러긴, 굴진중대동무들이 모두 그러두만.》

《허망한 소리 그만두라구, 그만큼 타일렀는데 끝. 부위원장동지, 아예 그 소린 귀도 기울이지 마십시오.》

《귀를 안기울일수 있소? 로동자들이 <25 톤차를 수입해다 쓰면 당장은 쉽게 해먹을수 있지만 일년이 지나 부속을 갈아대는 날부터 우리 광산이 남의 나라 자동차회사에 뒤다리를 잡히운 절름발이 신세가 된다. 다리를 절고서야 어떻게 유색금속 150 만톤고지에 오를수 있겠는가. 힘들어도 당의 방침대로 벨트콘베아를 놓자.>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말이 백번 지당하단 말이요.》

《지당하기야 지당하지요. 하지만 이제부터 반년도 못되는동안에 800 메터의 갱도를 어떻게 뚫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모험입니다.》

지배인은 열이 올랐다.

《그건 그렇소. 하지만 광산이 정말 절름발이가 되는 날에는 콘베아 발기를 목살한 책임문제가 제기될수도 있다는걸 알아야지.》

《목살은 누가 목살합니까? 그럼 자동차로 급한 목을 막은 다음 명년부터 늘늘히 콘베아운반갱도 뚫읍시다. 여하간에 그 문젠 그닥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걸 발기한 주동인물의 하나가 누군고 하니 읍에서 파오를 범하고 내려와 로동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이제 몇달 있으면 돌아갈 사람인데 그 사람이야 발기도 많이 하고 열성도 부려 좋은 평정서나 받아가지고 가면 그만이지요. 원홍광산에서 쇠돌이 3 배가 나오겠으면 나오고 말겠으면 말고...》

《아니, 대체 그가 누구요?》

한경수는 놀라며 물었다. 그동안 굴진중대 로동자들과 닳을 익혔으나 짐작가는 사람이 없었다.

《윤광순이라구 그 왜 몸집은 작달막한게 머리만 큼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서른대여섯 된... 참간밤 그 사람과 함께 광차를 미시는것 같던데?》

《아, 그 동무요?》

알만하다. 그래서 언제나 말이 없이 수격수격 일만 하는 사람이었구나.

《부위원장동지, 동요하지 말고 내밉시다.》

지배인이 다짐을 놓는다.

《그러기요. 하지만 지배인동무, 누가 어떤 발기를 했건 앞으로 로동자들의 의견에 신중하게 대하도록 하오. 군중관점문제니까.》

한경수는 한마디 충고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때마침 밖에서 구르릉구르릉 발파소리가 들렸다. 그는

안전모를 집어 들고 현장 사무실을 나섰다. 보름전 도당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책임일군들이 방법론을 찾아 한가지라도 일을 실속있게 밀고나갈 대신에 내려오는 과업은 아래로 되받아넘기고 아래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위로 받아넘기면서 형식주의, 요령주의로 자리지킴이나 하는 무책임성이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저해하는 기본장애물이라는것을 전면적으로 신랄히 비판하고 당의 방침대로 책임일군들을 사무실에서 떼내어 현지로 지휘부를 옮기도록 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였다.

회의에서 북부산간지대인 원홍지구의 3 개 군을 지도할 전권을 위임받은 한경수는 즉시 현지로 내려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되는 원홍광산에 지휘거점을 정하였다. 처음에 그는 당황하였다. 도에서 떨어졌다는 광산확장을 위한 자재, 설비, 기술보장 계획이 말이 아니었다. 중요자재설비들의 태반이 현품으로는 오륙십프로가 고작이고 나머지는 자금으로 물려 놓았다는데 광차, 레루, 권양기, 강판, 세멘트 같은 자재를 광산자체가 돈만 가지고 어디가서 사온다는건 도저히 말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계획을 자기 손으로 종합하여 내리떨군 사실이였다. 그때에는 이만큼이라도 자재, 설비, 자금을 돌려맞춰 놓은 자기 수완을 은근히 만족하게 여기었는데 뜻밖에도 현지로 내려와 그 계획이 고스란히 제 어깨우에 되실리고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자업자득이라 누구한테 한마디 터놓고 하소연조차 할데가 없었다.

집행위원회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 되받아넘기기를 규탄하던 준절한 목소리들이 귀전에 살아났다. 회의에서는 남처럼 별로 딱 찍혀 비판 받은것이 없는 한경수는 결불에 약간 덴 정도였는데 이제 비로소 규탄의 목소리를 상기하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받아넘기다못해 자신에게까지 되받아 넘겼다고 보고서 같은데 실리기만 하면 폭소를 터뜨리겠다.

정신이 펄쩍 든 한경수는 그간 십여일동안 이미 도에서 계획을 짤 때에 풀었어야 할 문제들을 푸느라고 경황없이 지냈는데 25 톤차 수입으로 일단락지었다. 현지에 나오기가 천만다행이다. 원홍광산의 혼란을 내쳐두었다라면 아마도 다음번 집행위원회 무대에는 웃음거리실례와 함께 자기가 나섰을것이다.

한경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아직 초연대 매캐한 갱안으로 부지런히 걸어들어갔다.

갱휴계실은 흥성거리고있었다. 발파후 가스가 살때까지 30 분가량은 휴식시간이다.

《부위원장동지, 어서 오십시오.》

《이리 와 앉으십시오...》

휴계실안에 놓여있는 길다란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물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며 떠들썩하던 로동자들

이 한경수를 보자 저마끔 자리를 권한다. 20대의 젊은 제대군인들이 태반이었다. 한경수는 림름한 젊은 일꾼들을 미덥게 바라보았다.

《발파시간을 수태 당겼구만.》

내여주는 자리에 걸터앉으며 한경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두시간 십분 앞당겼습니다.》

《새벽에 한발과 더 뒤울 작성입니다.》

청년들은 저마끔 활기있게 대답한다.

한경수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장하오. 이 기세면 갱관통을 훨씬 앞당길것 같구만...》

《부위원장동지, 한잔 드십시오.》

옆에 앉았던 기름한 얼굴에 정기있는 큰 눈이 인상적인 소대장이 그에게 물잔을 내밀었다. 한경수는 열겔에 받아들였다.

《어서 드십시오. 약수가 시원해서 정말 좋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또 권하였다. 그러나 한경수는 마시게 않고 보글보글 기포가 끓어오르는 물잔을 굽어보았다, 휴식참에 콩우유같은것을 공급했으면 얼마나 좋으랴, 섯꿀에 혼한 약수나마 며칠전 수령님께서 다시금 노동자들의 생활문제에 대하여 교시가 계셨다는 전달을 받고서야 겨우 공급을 조직하였다. 광석생산을 3배로 늘이는 문제가 오직 노동자들의 혁명적열정여하에 달려있는 지금에 와서 더더욱 그들의 생활을 돌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낀다.

한모금 추기고 물잔을 놓으며 한경수는 말하였다.

《안됐소 동무들, 우리 일꾼들이 일을 쓰게 못하여 설참에 우유 한잔 못먹이고 이런 맹물을 공급하는구만.》

갑자기 신중해 진 한경수를 노동자들은 유심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는 계속하였다.

《며칠전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근로자들의 생활문제, 특히는 올해 탄광, 광산 부문에 대대적으로 진출한 제대군인들과 노동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셨습니다.》

한경수는 정색하였다.

《겨울도 멀지 않은데 주택과 합숙들은 다 마련되었는지, 기름, 남새, 물고기 같은 부식물들은 제대로 공급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여러해동안 군대에 나가 언땅에 엎드려 비바람을 맞으며 초소를 지키다가 당과 수령의 호소를 받들어 고향에도 돌아가지 않고 곧장 탄광, 광산으로 진출한 귀중한 동무들인데 설사 생산건설을 좀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겨울전으로 주택, 합숙을 완비하고 잠자리를 따스하게 꾸려주며 부식물도 떨구지 말고 제대로 공급하라고 교시하셨습니다. 특히 기름을 넉넉히 공급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양사람들이 양뿔 순대를 먹지 못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듯이 우리는 인민들이 기름을 먹지 못하면 안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셨습니다...》

한경수는 수령님께서 기름문제를 풀 방도까지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휴게실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우리가 무슨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그토록 걱정하시는지...》

누군지 탄식조로 한마디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이제 광산의 생산을 3배로 넘큼 들어올린 다음에 집도 짓고 장가도 들고 기름이며 불고기며 흔히 먹어도 됩니다.》

소대장이 열기면 큰눈을 번쩍거리며 하는 소리였다. 청년들은 모두 호응하였다. 그들의 심정이 가슴 뜨겁게 안겨왔다. 그러나 한경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생산도 생산이지만 동무들의 생활이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안착되기전에는 그이께서 걱정을 놓치 못하십니다.》

더 할 말을 찾게 못하는 청년들의 눈동자에는 한결같이 강렬한 빛이 불타고있었다.

《건설중에 있는 주택, 합숙은 늦어도 10월중이 준공하려고 합니다. 가을남새는 풍작이 들었고 물고긴 이달에 탕동창고만 준공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걸린건 기름입니다. 하지만 외화를 주고 사오더라도 기름문제도 반드시 풀 작성입니다.》

《기름을 외국에서 사온단말입니까?》

누군가 불쑥 이렇게 묻는 바람에 한경수는 돌아보았다. 둘러앉은 노동자들 뒤전에서 키가 자그마한 사람이 얼굴만 내밀고 서서 그를 쳐다보고있었다. 한경수는 바로 그가 지배인이 말하던 윤광순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윤광순은 매우 놀란듯한 표정이였다. 어질고 순박하게 생긴 사람인데 무슨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기에 강직되었단 말인가? 하긴 콘베아안 발기자의 한사람이라는걸 보면 심상히 넘겨 버릴 사람이 아닌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 눈매에 어딘가 은근한 총기와 열정이 깃들어 보이기도 한다.

한경수는 유심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노동자들을 둘러보며 계속하였다.

《그러니 동무들, 가을에는 가족들을 데려올 동무들은 데려오고 약혼녀가 있는 동무들은 잔치도 하고 김장이랑 무독무독 담가 넣은 다음에 수령님께 보고를 드립시다. 그러면 얼마나 만족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소대장이 일어나 격한것을 누르는 조용한 어조로 말하였다.

《동무들, 새벽까지 또 한발과 제껴봅시다!》

청년들은 우르르 따라일어섰다. 한경수도 그들의

뒤를 따랐다.

3

어두한 새벽에 또 한발과 날린 다음 교대하는 소대가 막장을 차지하는것을 보고야 한경수는 굴에서 나왔다. 정옥이와 약속한 일이 생각나서 본부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니 아직 그런 녀성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찾아오면 꼭 기다리게 하라고 이른 다음 백운산고개를 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범고개마루 삭도탑근방에서 윤광순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제일 작은 호수의 작업복을 타입엿을텐데도 품과 바지가랭이가 훌렁훌렁해 보인다. 하지만 머리는 정말 남북으로 뺏여진게 엄청나게 크다. 보통 상점에서 파는 모자는 맞게 있을것 같지 않다. 그는 유순하게 생긴 얼굴에 어쭙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하였다.

《이자 넘어오십니까?》

인사를 받으며 다가서던 한경수는 흠칫하고 멈추어섰다. 놀랍게도 그의 손에 낫익은 보집이 들려있었다. 둥글둥글한 구름문양이 간 혼방직의 푸른 보자기, 간밤 정옥이가 들고있던것과 똑같다.세상에 그런 보자기가 한두개 아닐테지만 한경수는 순간에 머리를 치는 룩감이 있었다. 남편에 대하여 묻자 고개를 수긏하고 내키지 않는 대답을 하던 정옥이, 검버섯이 얼룩얼룩 하던 그 얼굴... 키랑 작고 볼품없는데 어디에 반했는지 모르겠다고 딸 은순이 도달거리던 생각도 났다. 틀림없구나! 얼굴의 검버섯도 교원노릇하여 속썩인탓만은 아닌것 같다. 세상에 이게 무슨 변이라. 타격이 오죽하랴, 그러니 간밤 광산합숙엔 공결음하고 북경에 올라와서 남편을 만났을텐데 그길도 돌아간 모양이지, 가슴이 아리다. 한테 자그마한 이 사나이가 대체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질렀게 제재를 받았을가? 짐작할수 없다.

어쨌건 오늘아침 잘 만났다.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힘닿는껏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굳어진 한경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쳐다보며 무엇인가 망설이는듯하던 윤광순이 먼저 한마디 하였다.

《부위원장동지, 제 사실은 좀 말씀드릴게 있어서...》

안해 한테서 나를 만난 사연을 들은 모양이지, 한경수는 이렇게 짐작하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나도 동무를 만나자던 참인데 잘되었소. 가만 저기 가서 앉지요.》

두사람은 광산골안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등성이우에 앉았다. 건너편 산마루우에 새벽노을이, 빨강게 타번지기 시작하였다. 윤광순은 한동안 말없이 건너편 하늘만 바라본다. 밤새워 일한탓인지 얼굴은 혈색이 없고 꺼칠한데 눈만은 빛을 띠였다. 막상 터놓고 이야기하자니 거북하기도 하고 피롭기도 할것

이다.

《어서 이야기하오. 한집안식구처럼 생각하고 허물없이...》

한경수는 측은한 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예 부위원장동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아니라 엿저녁 말씀하시던 기름문제말입니다.》

《뭐 기름문제?...》

한경수는 전혀 탄소리를 하는 윤광순을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예, 우리 군은 도내의 기름작물 집중재배지의 하나입니다. 기름작물 더미우에 앉아서 기름을 다른 나라에서 사다 먹는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는 단숨을 후유 내뿜는다. 피기 없던 불편이 불깃하게 피여났다. 흥분한 모양이다. 어떻게 된 일인가? 혹시 정옥의 남편이 아니라 탄 사람인가, 아니면 안해한테서 아무 사연도 듣지 못한것인가? 혹시 만나지 못하고 보집만 전달 받은것이 아닐가?

《그럼 동무가 나한테 얘기하자는건 기름작물문제요?》

어제저녁 윤광순이 휴게실에서 기름을 사오냐고 물던 일이 생각났다. 정말 정옥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일수도 있는것이다. 아무려면 정옥의 남편이 파오를 범하고 로동을 하랴?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나는 기름작물만 잘 가공하면 원흥지구 3 개 군 기름문제를 넉넉히 풀수 있습니다.》

갈수록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한경수는 이제는 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윤광순을 살펴보았다.

《기름작물재배지라는건 나도 아오. 하지만 간밤 료해해 보니 명년에 백톤가량밖에 공급 못하겠다면 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닙니다. 가공에 걸려서 그렇니다. 900 톤은 짤수 있습니다.》

《뭐 900 톤!...》

한경수는 눈이 둥그레졌다.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가? 좋은 평정서나 받아가지고 돌아가면 그만인 사람이라고 하던 지배인의 말이 생각났다. 그렇다고 아무려면 이따위 허튼소리까지야 할수 있으랴? 게다가 윤광순의 표정은 너무도 진지하고 심각하였다.

《예, 부위원장동지, 올해 우리 군의 기름작물 수확은 3 천톤을 넘길것이 예견됩니다. 기름작물 3 천톤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그는 생각을 가다듬으며 침착하게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걸 제대로 가공만 하면 거기서 기름이 900 톤 내지 천톤, 물엿이 600 톤가량, 게다가 부산물로 수백톤의 술, 농마가루, 사료를 뽑아낼수 있습니다.》

침착해 진 그의 두눈에는 은근한 열정과 밝은 충기가 깃들이 보였다. 그는 계속하였다. 그는 원흥지

구 3개 군의 인구와 기름소비량을 구체적으로 계산 하고나서 계속하였다.

《...그러니 900 톤이면 원흥지구 3개 군에서 뒤집 어씹니다. 정확하게는 880 톤이 필요하지요. 게다가 물엿, 농마가루, 700 여톤이면 지구내 유치원, 탁아소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도 보장할수 있습니다. 워낙 우리 군을 기름작물재배지로 정한것은 산간지대인 원흥지구 3개 군의 기름문제를 풀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경수는 저속 흥미를 느꼈다.

《동무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군에선 백톤밖에 생산할수 없다고 하오?》

윤광순은 입을 꼭 다물더니 다시 얼굴빛이 무거워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공에 걸렸습니다.》

《가공에 걸리다니, 기름작물가공이야 건조와 저장 이 기본인데 작년에 이 군에도 건조장이 건설되지 않았소?》

한경수는 그가 아직 지방공업총국을 말아보던 작년 여름 기름작물재배지들에 건조장을 지어줄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도내 몇개 지구에 건조장 건설을 포치한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물었다.

《건조장은 큼직하게 건설되었지만...》

침울한 눈길로 아침노을 타번지는 건너편 하늘을 바라봄 혼자소리처럼 대답하던 윤광순은 한경수를 돌아보며

《부위원장동지, 한번 범고개너머에 있는 건조장을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쳐다보는 그의 눈에는 소년처럼 애되고 순결한 그 어떤 절절함이 넘쳐있었다.

《그럼 건조장이 제구실을 못한다말이요?》

한경수는 어쩐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작년 가을에 건조장 운영문제로 무슨 말썽이 있었던 일이 어슴푸레 떠올랐던것이다.

《그렇습니다. 워낙은 2 천톤능력으로 설계되었지만 건설할 때 욕심을 부려서 싸이로만 몇개 더 놓으면 4 천톤까지도 건조저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고작 사오백톤밖에 건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름도 백톤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별기, 콘베아, 선풍기들이 더러 못쓰게 됐고 또 전력과 석탄사정이랑 걸린 문제들이 있는데 군의 힘으로는 좀 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위원장동지가 밀어만 준다면 해결될수 있습니다. 기름작물수확기까지는 아직 뒤달 남아있습니다. 수령님께서 기름문제로 것처럼 애를 태우시는데 기름작물 3천톤을 허투루 버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부위원장동지, 한번 넘어가 봐주시시오.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윤광순은 한경수의 손목까지 잡고 애걸하였다. 그

의 손은 뜨겁다. 체소한 몸에서 것처럼 열이 풍기는 것이 어쩐지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가봅시다. 한데 이것 보우.》

한경수는 새삼스럽게 윤광순의 모습을 유심히 여겨보면서 물었다.

《동무는 그 기름작물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오?》

윤광순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서슴없이 대답을 하였다.

《제가 바로 건조장을 그 꼴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건 또 무슨 소리요?》

한경수는 다시 한번 놀랐다.

《전 군인민위원회 공업담당지도원이였습니다. 작년에 건조장을 건설할 때부터 책임지고 나가 있었는데 그만 그 훌륭한 건조장을 잘 운영하지 못하여 술한 기름작물을 썩여버리구 또 올해에도 건조장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그러구선 헛소리까지 췌치구...》

기가 막힌 노릇이라든듯 허구픈 웃음을 짓는다. 그 표정이 더욱 순박하고 진실해 보였다.

《그럼 동문 그 책임으로 광산에 오게 되었소?》

《예, 범한 죄파를 보면 재판을 받아야지요. 한데 부위원장동지, 한번 꼭 넘어가 봐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광순동무...》

한경수는 윤광순이옆에 놓인 보짐에 다시 눈길을 보냈다. 최초의 의혹이 이제 되살아났던것이다. 군인민위원회 지도원이었다고 하지 않는가!

《혹시 그 보짐이 간밤 집에서 가져온게 아니요?》

윤광순의 눈이 등그래졌다.

《그렇습니다.》

《애어머니 이름이 정옥이지, 리정옥이?》

《예, 한데 어떻게 그걸?...》

윤광순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렇됐구만...》

한경수는 묻는 말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광순동무, 어떻게 되어 기름작물을 썩였소? 좀 자세히 이야기해줄수 없겠소?》

한경수는 윤광순의 곁으로 다가앉으며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야 이 순박하고 총명해 보이는 사람이 그런 엄청난 파오를 범했을것 같지 않았다. 윤광순은 묻는 뜻을 가늠하려는듯 유심히 한경수를 쳐다보다가 대답하였다.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분한 이야길 들어서 뭣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부위원장동지에게 말씀드리자고 버른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3천톤의 기름작물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그러잖아 벌써 부터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었지만 일은 제가 다 망

쳐놓고 주제넘게 나서는것 같아 망설였지요. 그러나 외국에서 기름을 사온다기에 더 건딜수 없어 말씀드린겁니다. 급한건 3천톤의 기름작물을 살리는 일입니다. 부위원장동지가 조금만 밀어주면 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애되리만치 순결하고 뜨거운 념원이 넘쳐보였다.

한경수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리고 간밤 범고개 마루에서 무엇인가 미련과 아쉬움에 찬듯한 표정으로 정으로 헤어지던 정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자 웬일인지 그는 남편과 함께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딸생각이 났다. 야릇한 운명의 대조가 한경수의 가슴을 더욱 언짢게 허비였다.

4

한경수는 점심후에야 틈을 내어 승용차로 학교개를 넘었다.

사품치며 쏟아지는 호룡천기슭을 따라 한참 굽이돌아 내려가니 차츰 골짜기가 열리며 멀리 꽤 넓은 벌판이 티어보인다. 벌판을 둘러싼 왼편 산모퉁이로 웅기중기 이삼층건물들이 모여앉은 군소재지 거리도 시야에 들어온다. 거리 변두리로 공장건물들과 높은 굴뚝들이 솟아있다. 30년전에는 귀틀집 백여호가 모여앉은 촌락이었다. 감개무량한 옛 산천이었으나 한경수는 그 심정을 새길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기름작물, 건조장, 윤광순의 운명, 뜻하지 않게 부닥친 문제들이 가뭇없이 그의 가슴속에 불안을 자아낸다. 그는 지금 작년에 기름작물의 건조, 가공과 관련하여 총국에 제기되었던 일들을 더듬어보고있었다.

《저긴것 같습니다.》

운전수가 속도를 늦추며 말하였다. 벌판으로 나서는 골짜기의 마지막굽이 물기슭에 창고같은 큰 건물 두채가 솟아다. 윤광순이 가르쳐주던 건조장이 분명하였다.

공장립지를 벌나가는 잡았다. 빗하러 거리에게 이렇게 떨어져 세웠을가? 용수문제? 건조장에 용수가 들면 얼마나 들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며 차에서 내리는데 건조장건물안에서 기름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80대의 사나이가 수건으로 손을 문지르며 마중나왔다. 건조장 책임자 노라고 하였다.

한경수는 건조장을 돌아보면서 윤광순이 하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것을 알았다. 선별, 건조, 운반, 저장설비들이 이것저것 고장, 파손된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군자체로도 보수할수 있겠다.

더군다나 그의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하나의 공장과 맞먹는 이 큰 건조장에 종업원이라고는 1호 건조장에서 선풍기를 해체하고 똑딱똑딱 수리하고 있는 처녀들 대 여섯명과 그를 안내하는 책임자뿐이라는것이였다. 그나마 여름내 다른 일에 동원되었다

가 며칠전야야 놓여 나와서 보수정비에 달라붙었다고 한다. 언어도단이다. 도대체 건조장을 쓰자고 건설했는가, 이렇게 내버려두었으니 기계들이 어찌 《성하겠는가!...

한경수는 얼굴이 달아올라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하였다.

《이건 너무 하지 않소? 파괴행위나 같지!》

《그렇게 됐습니다. 간부동지...》

키가 후리후리하고 소탈하게 생긴 책임자는 멋지게 웃었다.

《더군다나 기름작물 가을철이 코앞에 다가오는 데 이렇게 팽가쳐두다니. 동무 혼자 처녀를 몇사람을 데리고 어느 세월에 보수한단말이요?》

한경수는 죄없는 책임자인줄 알면서도 터지는 율화를 새기기 어려웠다. 그러나 책임자는 타내는 빛없이 대답하였다.

《그래두 수확기까지 1호건조장 하나는 살려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없긴 합니다만...》

책임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짙막만 한숨을 내쉬었다.

《소용없다니, 건 어떻게 하는 소리요?》

책임자는 묻는 말에 대답치 않고 힐금힐금 결는 질한다. 어느 급, 어떤 부분의 간부인지 금새를 저울질하는 눈치 같기도 하였다.

《지금 할당된 석탄과 전력을 가지고는 기껏 500톤밖에 건조 못합니다.》

《그건 어쩌서 그렇게 배정됐소?》

《알수가 있습니까. 무슨 놈의 조화속인지? 작년 실적으로 원자재지표를 늘렸다는 건데 작년실적이라는게 어디 제대로 돌려나봤나요?》

《도에서 그렇게 할당했단말이요?》

《도에서 할당했는지 군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지 누가 무슨 주먹구구를 했는지는 모르지요. 여 하간이 건조장은 주인이 없습니다. 건조장이 이쯤 된것은 주인 없는 고아신세가 된때문이지요.》

《고아신세라니?》

《건조장을 건설할 때에는 도에서도 군에서도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한다고 벽작 떠들더군요. 그러나 지어 놓고 만세를 부르고는 그게 답니다. 이 건조장의 첫 책임자가 파오범하고 떨어진 뒤로는 넘겨다보는 사람도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저같은 죄꼬만 사람 등에 넘겨씩워놓고...》

책임자는 험악한 도끼입질을 망탕 해댔다.

《떨어졌다는게 누구요? 윤광순동무말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 건조장의 진짜배기 주인이였는데 그만 사람이 너무 우직스럽다나니 기름작물을 썩이는 엄중한 과오를 범했지요.》

《그래 그 동무가 어떻게 되어 기름작물을 썩였던 말이요?》

《내막을 모르십니까?》

한경수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담배 한대 없습니까?》

책임자는 반죽 좋은 사람이였다. 담배를 붙여문 책임자는 선별장에 무저논은 가마니 짝을 내려놓고 한경수에게 자리를 편한 다음 자기도 마주앉았다.

《그 동무는 제대배낭을 메고 우리 군에 와서 십여 년 동안 식료공장 생산지도원으로, 기사로, 군인민위원회 공업담당 책임지도원으로 일하였는데 우리 군 식료공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지요. 작년에 아마 그 먹으로 재판은 면했을겁니다.》

책임자는, 이렇게 전제하고 계속하였다.

《건조장은 건설할 때부터 그 동무가 말아하였는데 조업한 다음에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그대로 책임지고 눌러앉아 건조장을 관리운영하게 되었답니다. 준공하자 기름작물가율이 시작되었지요. 풍작이었습시다. 작년에 첫해인데 2 천톤수확을 예견하였거던요. 기름작물 실은 트랙트르들이 꼬리를 물고 밀려들어 여기 선별장마다에 산더미처럼 부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딱 걸렸습니다.》

《무슨 문제네?》

《전력과 석탄이지요. 아시다싶이 우리 군에서야 석탄 한톤, 전력 한키로와트 나는데가 있습니까? 군에서 도의 총국이며 배전부에 대고 아우성 친 모양인데 끝내 건조장은 한 20 프로나 가동할 정도의 전력, 석탄밖에 받아내지 못하고말았지요. 이러다간 산더미같은 기름작물을 썩이든지 얼구든지 변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민위원회에서는 별수 없다. 올해에는 기름작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해주라 그러면 옛도 달이고 농마가루를 내어 국수도 눌러먹는다니 썩이기보다는 낫다. 다 노나주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나 지도원동무는 건성 대답해 두고 우리 건조장 일꾼들에게는 도에 올라가 문제를 풀테니 그동안 까딱 다치지 말하고 엄명한 다음 떠나갔답니다.》

《그래 도에 올라갔단말이요?》

한경수는 무엇인가 뜨끔한 충격을 느꼈다.

《예, 사흘을 약속하고 간 사람이 한주일만에 얼굴이 새까매서 돌아왔더군요. 순진한 사람이지. 도에 가서 큰 간부를 만나 실정을 보고하면 꼭 풀릴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 할수없이 기름작물을 되실어내기 위하여 더미를 헤쳐 보니까 썩은것이 적지 않았습시다. 백톤 가까이 썩었지요. 지도원동무 썩은것을 한줌 쥐고 주저 앉아버렸지요.》

한경수의 표정은 굳어졌다.

《자습으로 검정시험을 쳐서 기사자격을 받은것을 보면 똑똑하고 마음씨도 어질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 아이들처럼 우직하게 군답니다. 글썽 도나 군의 간부들이 저보다 못해서 기름작물을 주민들

에게 노나주라고 했겠습니까? 시키는대로 했으면 국가에 손해도 안주고 저도 편안할걸 가지고...》

책임자는 이야기를 계속하였으나 한경수의 귀에 더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굳어진듯이 꾹꽂혀 앉아있었다.

생각난다. 이제는 작년에 있는 모든 일이 석연하게 떠오른다.

기름작물 가공대책을 세우라는 정무원지시를 식료가공을 보는 처장에게 넘겨주어 포치하게 하였는데 그후 건조장이 건설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 파업은 일단락 지은것으로 치부하였다. 그런데 초겨울 어느날엔가 처장이 와서 난처한 표정으로 원흥에서 공업부 지도원이 찾아와 기름작물 조건조장에 쓸 전력과 석탄을 내라고 사흘째나 버티는데 암만 타일러도 듣지 않고 꼭 총국장을 만나보게 해달라고 애원한다는것이였다.

《건 무슨 소리요? 건조장 전력, 석탄이야 년간 계획에 물려있지도 않던걸 여기저기서 뜯어내어 배정해준것 같은데?》

한경수가 의아쩍게 물었었다.

《그걸 가지고는 건조장을 20 프로도 가동하지 못하기때문에 당장 수천톤의 기름작물이 썩게 되었다는겁니다.》

《썩다니, 건조하지 못할 기름작물처리대책을 안세웠소?》

《왜 안세웠겠습니까? 군에서 제기해온대로 나머지는 생채로 주민들에게 공급하여 한알도 허실하지 말라고 결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썩인다는건 무슨 소리요?》

《저도 그렇게 따졌지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기름작물이야 기름을 짜서 인민들에게 공급하라는것이 당정책이지 어디 옛이나 달여먹고 국수나 눌러먹자는건가. 그건 썩이는것과 같다. 도에서야 그만한 전력과 석탄쯤 새발에 피같은것일텐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여 기름 600 톤을 잃어버린다는게 말이 되는가? 이것은 당앞에 죄악이다. 이렇게 걸고듭니다. 원사람도 생기긴 고추알만한게 고집은 어떻게 황소고 집인지 군의 간부들이 시키는대로 하면 될걸 공연히 증뿔나게 뛰어 올라와 가지고...》

처장은 두덜거렸다. 한경수도 속으로는 부아가 치밀었으나 억제하고 한마디 하였다.

《처장동무, 이제는 군의 지도원까지 나한테 달려들어 손을 내밀게 돼서야 내가 총국장을 해먹겠소? 책임은 군의 지도원이 지게 하지 않을테니 걱정 말고 내려가라고 일러서 돌려보내오. 만나 채도 난 지금 시간이 없소.》

그다음 한경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었다. 또 한가지 번개처럼 떠오르는것은 그때 승용차를 타고 정문을 지나가는데 웬 사람이 접수실 문을 열어 쫓히

고 달려나와 자동차를 따들듯 몇걸음 달려오다가 멈추어서서 멍청히 바라보던 정경이었다. 몸집이 체소하였다. 그때도 피곳 처장이 고추알만 하하던 그 사람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게 바로 그였구나! 윤광순이, 정옥이의 남편!... 세상에 이처럼 공교롭고 맹랑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모르면 길에서 사돈을 만나도 뺨치고 싸운다더니 정옥이의 남편을 그렇게 쫓아버렸더라 말인가... 매일 매 시각 전화로, 전보로, 또 돌쩌귀에 불이 나게 직접 찾아와 우는 소리를 하며 손을 내미는 술한 기업소 책임일군도 모두 그러루하게 짤라서 돌려보내는 일이 항다반사라 군의 지도원이 찾아왔던 일쯤 까맣게 잊어버리고말았었는데 그가 바로 정옥이의 남편일뿐 아니라 그 일로 엄중한 파오를 저지르게 하다니, 그때 알고 만나만 보았더라면 어떻게든 도와주었을것이 아닌가! 그는 갑자기 당황해지는 심정을 건잡을길 없었다.

5

군인민위원회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밤중이었다. 거기서 알아본 경위도 책임자한테서 들은 이야기와 대차없었다. 밖에 나서는 하였으나 한경수는 길길을 잃은 사람처럼 당연히 서서 불빛이 널려있는 읍거리를 바라보고있었다.

기름작물사건은 갈수록 그의 마음속에서 파문을 크게 번지여놓는다. 그것은 결코 남다른 사이인 정옥이의 남편을 몰라본 의리문제, 그래서 그의 운명에 시련을 덮썩은 인정을 저버린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기름작물을 썩인 장본인은 누구인가? 근본문제는 여기에 있는것이다. 건조장 건설을 처장에게 맡겨버리고는 그것이 구실을 하도록 돌보지 않은 자신, 더군다나 기름작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구원을 청하러 달려온 사람을 만나주지조차 않은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결심하고 나서면 그만한 전기와 석탄 예비를 짜낼수 없었겠는가?

그러나 실사 기름작물을 아주 썩어버린 책임이 주민공급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멋대로 거부한 윤광순에게 있다고 치자. 하지만 수령님의 교시대로 꼭 기름을 짜서 주민들에게 공급하자고 아득바득 애쓰다가 실수하여 얼마간 썩어버린 그의 죄가 과연 기름은 몇방울 짜지도 않고 수천톤의 기름작물을 허투로 썩버린 사람의 죄보다 더 무겁단말인가?

온 몸이 그 어떤 틀에 끼인듯 죄어드는 죄의식과 함께 지체없이 사태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복받쳐올랐다. 그는 성큼성큼 자동차에 다가갔다.

《광산으로 돌아가시잡니까?》

운전수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군당으로,》

윤광순의 문제부터 풀어야 가슴이 좀 풀릴것 같았

다. 그만했으면 그의 파오는 씻고도 남았을것이다.

그러나 얼마큼 차가 달리자 그는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 급한것은 누구 한사람의 파오문제가 아니라 올해에도 제구실 못할 3천톤의 기름작물문제라고 애원하던 윤광순의 목소리였다. 옳다. 윤광순의 말이 옳은것이다.

《차를 군인민위원회로 도루 돌리오.》

운전수는 어리둥절하였으나 말없이 차를 돌려 세웠다. 한경수는 군인민위원회의 접수실에 잠시 들렀다. 나오더니 운전수에게 말했다.

《동문 광산에 넘어가 윤광순이라는 동무를 데리고 낮에 들렀던 건조장으로 오우, 지배인동무한테 전할 걸었으니 기다릴게요. 여기서 잠시 일을 보고는 나도 거기 가겠소.》

차를 떠나보내고나서 한경수는 큰 길로 나섰다. 건조장을 살려낼 구체적방도는 아무래도 윤광순이와 의논해야 할것 같았다. 그동안 한경수는 그의 집을 찾아볼 작정이다. 간밤 정옥이와 너무도 무심하게 헤어진 일이 어쩐지 사람의 의리를 다하지 못한것 같았다. 군인민위원회에서 대주던 큰 길 막바지 3층아파트에서 윤광순이네 집을 찾았다.

《아니, 아저씨가 어떻게!》

무심하게 내다보던 정옥은 눈이 둥그레졌다. 간밤 들고 왔던 보자기무늬같은 파란 원피스를 입었다. 넓지 않은 방이었다. 방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어찌선가 딸생각이 났다.

《앉으세요. 방이 루추해서...》

정옥은 옷독에 놓인 이불장에서 깨끗한 방석을 꺼내며 자리를 권하였다. 방은 작지만 알뜰하였다. 아른거리는 노란 장판구들, 옷목에 가지런히 놓인 이불장과 옷장 그리고 레스몬보를 친 창밀에 자리잡은 책상과 책장, 책상앞에 큼직한 체경을 걸어놓았다. 《축 결혼》이라고 쓴 빨간 글자가 좀 퇴색하였다. 딸은순이 그 체경을 사들고 들어와 한경수에게 글을 써달라고 조르던 생각이 났다.

아래목에는 열살쯤 나보이는 소년과 대여섯살 남직한 귀엽게 생긴 계집애가 홀이불을 덮고 가지런히 누워 자고있었다. 알뜰하고 단란한 이 가정에 누가 모진 폭풍을 던졌는가...

《오누이요?》

남매를 보는 한경수의 눈굽은 저리였다.

《예, 크게 아홉살, 작은건 여섯살입니다.》

정옥은 처녀때처럼 수줍게 불편을 붉혔다. 전등불 밑이 되어 그런지 간밤보다 얼굴이 밝아보였다.

《아이들이 아버지 보고싶어할테지...》

간밤 매달리는 어린것들을 이웃집에라도 떼맡기고 떠났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리다. 정옥은 대답없이 소곳하게 눈길을 떨구더니 다른 소리를 하였다.

《은순이 외국으로 나간 담엔 편지거래가 끊어지다

나니 아저씨가 도에 내려오신것도 여직껏 모르고 지냈어요.》

《그렇게 되었구만. 내려온지 3년나마 되는데 나도 이쪽으로 나오면 한번 찾아본다고 버리기만 했지 어디...》

《은순넌 잘 있나요? 거긴 사철 무덥다는데.》

《그 애들이야 잘 있지. 더운게 무슨 걱정이겠소? 한 일년 있으면 들어올거요.》

의사들인 딸부부는 4년전 아프리카에 의료단으로 나갔다. 한경수는 화제를 돌리었다.

《그래 애아버진 가끔 집에 다녀가우?》

《예...》

정옥은 입안의 소리로 대답한다.

《내 윤광순동무를 만나보았소.》

《만나보셨습니까?...》

예상보다 정옥이의 반응은 크지 않았다.

《안됐소. 참 일도 공교롭겐 꼬였더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정옥은 처녀때의 모색대로 남아있는 그 맑고 은근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한경수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대충...한테 애아버지도 애아버지 지만 그간 정옥이 모진 시련을 겪었겠구만, 아이들을 데리고... 하지만 이제 쉬이 풀리겠지...》

한경수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싶었지만 문제를 개인적인 인정, 의리관계에다 뒤버무리고싶지도 않았거니와 어쩐지 이야기하기가 낯두꺼운 느낌도 들었다.

《시련은 무슨 그게 큰 시련이었습니까? 사람이 일 하느라면 파오도 범할수 있고 시련도 겪게 마련이지요. 애아버지도 저도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도 진실하고 조용한 표정이어서 한경수는 섣뜻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듯 어질고 순박한 정옥이부부앞에 저지른 자기의 잘못이 더욱 가슴 무겁게 실려온다. 정옥은 짙막한 한숨을 쉬고나서 계속 하였다.

《전 그것보다도 애아버지가 해보자던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게 애가 타서 그래요. 이제 로동이야 얼마간 더 하느라면 끝나겠지만 끝난 다음에 과연 제자리로 돌아와 하던 일을 계속할수 있겠는지?...》

그의 큰 눈에 애마른 심정이 펴고있었다.

《아니 그까짓 군공업담당지도원자리가 뭐이라고? 재간있고 열정도 있고 얼마든지 발전할수 있는 동문데...》

한경수는 저도 모르게 어조가 격해졌다. 로동에서 풀리기만 하면 도의 곡산공장에든지 도 경제지도위원회에 소환하고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내놓고 말할수는 없었다. 그러나 정옥이는 한경수의 심정을 가늠한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게 아니예요...》

그리고 계속하였다.

《저 뭐 떨어질가봐 그러는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더 <발전>하기를 바라서 그런것도 아니예요. 제가 그런것을 바랐다면 무엇하러 은순이랑 집에서랑 반대하는걸 무릅쓰고... 아저씨, 제 그저 아저씨를 돌아가신 친아버지처럼 믿구 터놓고 말씀드리겠어요.》

눈빛은 더욱 강해지고 살까인 볼편에 홍조가 피어 올랐다.

《어서 이야기하오.》

《애아버진 해놓은 일 없이 파오는 저질렀지만 그래도 제판에는 우리 군의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보겠다고 십여년동안...》

정옥은 말을 시작하다 말고 입을 꼭 다물었다. 한경수는 정옥이 하려다가 만 이야기를 짐작할수 있었다. 윤광순이 군내 지방공업, 특히는 산열매가공과 간장 된장 등 식료가공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이야기를 방금 군인민위원회에서 들었다. 그가 가공시 제품이 든 배낭을 메고 전 군의 학교와 농장들을 찾아다니면 산열매원천조성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불러일으킨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정옥이가 윤광순이를 알게 된것도 아마 그무렵이었을것이다. 하려던 많은 이야기들을 마음속에서 비약시키고난 정옥이는 이윽고 계속하였다.

《애아버지가 수령님께서 언제나 걱정하시는 먹는 기름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결심하고 나선지도 여러해 되었어요. 애는 펍 쓰는것 같은데 유지원천이 풀리지 않았어요. 산골이라 경지면적이 보잘것 없지, 그래 산에다 분지며 잣, 쪽까래따위 유지원천을 조성하느라고 뛰었지만 은을 못냈어요. 그러던차에 바로 우리 군이 수령님께서 장만하여 주신 유지작물 집중재배지의 하나로 찍히게 되었답니다. 글썄...》

정옥은 갑자기 눈가장자리가 벌개지고 눈굽에 이슬이 글썽하게 고여올랐다. 그는 당황한듯 눈굽을 찍어내며 잠시 마음을 진정하는것 같더니 계속 하였다.

《그때 애아버지도 이제는 수령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눈물이 다 글썽했답니다. 그러고는 밤마다 무슨 계산을 하고 자료를 연구하고 꼬박꼬박 새우는것이였어요. 그러던 사람이 그만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마지막 도에 갔다가 와서는 큰 간부들이 실정만 알면 꼭 풀어주리라고 믿었었다고 하였지만 그게 글썄 말뿐이지... 참 그때 아저씨가 도에 계시는 줄만 알았더라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윤광순은 가슴을 쿵 찢리는것 같았다.

《흐음...》

한경수는 신음소리를 내며 휴유 단김을 내불었다. 류달리 커보이는 윤광순의 순박하게 생긴 얼굴이 눈

앞에 떠올라보였다. 그런 사람이었구나!...

《구차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아버지!》

정옥은 무릎으로 한걸음 나갔으며 계속하였다.

《도와주세요. 광산에서 로동이나 했다고 파오를 다 씻겠나요? 올해에는 기름작물이 3천톤이나 난다는데 여전히 처리할 대책이 없지 않나요? 하지만 애 아버지에게는 그걸 건조할뿐아니라 몽땅 가공할 방도를 다 가지고있어요.》

《몽땅 가공하다니, 어떻게?》

윤광순이 당장한테서도 그런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저 골안 건조장옆에다가 소형발전소를 놓겠다는 거예요.》

《소형발전소를?...》

이야기가 너무 비약하는바람에 한경수는 떨떨해졌다.

《골안에 호룡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다 소형발전소를 놓는답니다.》

들을수록 놀라운 소리라 한경수는 대답을 못했다.

《어렵지 않게 놓을수 있다고 합니다. 건너편까지 한 20메터가량 취수본가 한걸 건너막는데 그건 폐동막듯이 통나무로도 막을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200메터가량 아래쪽으로 락차를 얻는 물굴 뚫는게 좀 어려운 공사인데 그것도 이제는 공산에서 기술을 배웠기때문에 한 20명 로력만 있으면 한달 남짓한 사이에 뚫을수 있다고 합니다. 양덕에서는 그런 발전소를 달반동안에 건설하였다는만요.》

《그래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나는 전력이면 다 풀린다고 합니다. 석탄도 필요없답니다. 석탄가열로를 전기로로 개조하여도 그 전력의 절반이면 건조장은 넉넉히 돌릴수 있고 나머지 전기는 군의 식료공장, 기름공장들을 확장하는데 돌려 24시간 만가동만 하면 3천톤의 기름작물을 우리 군에서 몽땅 가공해낸다는겁니다. 애 아버지의 말이 3천톤의 기름작물을 고스란히 기름으로 짜내자면 앉은자리에서 가공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철도도 안 통하는 우리 군에서 그걸 수백리 도내 각지의 식료공장들에 실어내자면 천여대의 자동차가 늘어셔야 하는데 그 자동차와 휘발유를 어떻게 당하겠는가 하는겁니다.》

윤광순이 안해에게 얼마나 붙어넣었는지 정옥은 자기의 구상처럼 거침없이 풀어내린다. 하긴 이들부부는 말그대로 일심동체인지 모른다.

《발전소는 애 아버지가 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 19차전원회의결정을 받은 때부터 구상 해오던것인데 배전부 기사동무와 함께 설계까지 다 짜놓았답니다. 건조장 자리를 호룡천기슭에다 잡은것도 그걸 예견한거라나요. 장차로는 거기 상류에다 발전소 하나를 더 건설하고 전문적인 기름작물가공공장도 세

울 작정이였습니다.》

엄청난 구상이며 녀원이였다. 하지만 허망한 꿈은 아니다. 그것은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설계였다. 산간지대 지방공업발전에 대한 당의 방침, 중소수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전원회의결정, 기름작물을 재배할데 대한 당의 방침, 그 모든 당의 정책과 방침, 결정들을 윤광순이는 마치 제집 살림살이처럼 받아들이며 원흥땅을 개조하고 생활을 전변시킬 생동한 설계로 만들어놓았다.

그는 녀트 잃은 사람처럼 멍청히 초점없는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보고있었다. 돌이켜보면 자기는 그 모든 문제들을 토의하는 전원회의들에 직접 참가까지 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는 그것들을 실생활과 이처럼 가까우며 절박한 요구라는것을 오늘에야 비로소 깨닫는것인가?...

열망에 불타는 눈으로 쳐다보는 정옥이의 모습과 그와 나란히 점점 거인처럼 크게 떠올라 보이는 윤광순의 얼굴... 한경수는 그들과 자기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 어떤 엄청난 거리감, 격차감을 느낀다. 그들 앞에서 자기는 여전히 이방인같은 소원 감을 느낀다. 언젠가 며칠간 집에 다녀간 딸에게서 풍기던 이국의 향수냄새같은...

묵묵히 감회에 잠겨있는데 밖에서 경적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한경수는 정신을 차렸다.

《참, 광순동무를 건조장에 불러놓구선 까맣게 잊었됐구만...》

한경수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애 아버지를 불렀습니까?》

정옥이 놀란다.

《불렀소.》

대답하며 모자를 쓰는데 먼저 밖에서 문기척소리가 났다. 윤전수가 찾아왔다.

한경수를 바라워주는 정옥의 감사와 기쁨의 정 넘치는 눈에는 이슬이 글썽하였다. 그 모습에 한경수는 더욱 가슴이 찢리우는듯싶었다.

X

한경수는 이튿날까지 윤광순이와 함께 건조장과 식료공장들의 능력 확장과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짰다. 그리고 윤광순이를 광산에 돌려보낸 다음 한경수는 원흥지구 3개 군의 관계부문 책임자들을 불러 협의회를 열고 로력, 설비, 자재를 짜낼 빈틈없는 분공조직을 하였으며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밀고나갈 지휘부도 내왔다.

그 이튿날 윤광순은 원 직무로 소환되어 기름작물 가공설비확장을 위한 건설지휘부의 참모장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발전소건설이 시작된 이튿날 밤이 깊어서 한경수는 호룡천현장에 들렀다.

우등불이 길길이 타오르고 기발들이 퍼덕거리는

강기슭에서 돌격대원들은 엿사엿사 돌실은 밀차를 밀어다 와르르와르르 강물에 쏟아넣는다.

《오셨습니까?》

대원들과 함께 밀차를 밀던 윤광순이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마주나왔다. 문제가 다 풀리고 녀원도 실현되고있건만 광산에 있을 때나 다름없이 여전히 티없고 말없이 조용하게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만 한다. 어질고 순박해보이는 표정도 그대로인데 다만 눈빛만은 한결 생기를 띠었다. 작지 않은 공사장을 지휘하건만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것을 한번 보기가 힘들었다. 다만 오전에는 물굴공사장, 오후에는 건조확장공사장, 밤에는 가물막이공사장 하는 식으로 돌아가며 현장에서 살고있었다.

도대체 저 작은 몸집, 난데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다 것처럼 큰 열정과 지혜와 굳센 의지를 간직하고 있는것인가?

한경수는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새삼스러운 눈으로 윤광순이를 여겨 보게 된다.

《아저씨 오셨어요?》

어디선가 정옥이 나타나서 인사를 한다. 작업복에 머리수건을 가쁜히 동었다.

《정옥이도 나왔소?》

《예, 가두에서도 쫓기했어요. 가만히 앉았다가 기름만 받아먹겠는가구들 하면서...》

어쭙게 웃으며 현장쪽을 돌아본다. 작업복차림의 녀성들이 밀차에 돌을 싣고있었다.

한경수는 나란히 선 부부를 정차게 바라본다. 정옥이 어찌 윤광순을 사랑하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한생을 일심동체로 보람있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갈것이다.

《내 지금 광산에 넘어가면 며칠간 못와볼것 같소.》

한경수는 이런 소리를 하였다.

《무슨 일이 제기되었습니까?》

광순은 불안한 표정이다.

《다름아니라 동무네가 발기한 벨트콘베아말이요. 25 톤차수입을 걸어치우고 콘베아를 내밀 작정이요.》

《예?...》

윤광순은 눈이 둥그래졌다.

《그것도 기름작물 같은 문제요. 쉽게 해먹자는 놀이였지. 광산이 절름발이 된다는걸 뻔히 알면서...》

윤광순은 떨떠름한 표정이고 정옥이는 슬며시 물러나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정옥이, 그냥 있으라구. 내 꼭 한마디 말할게 있는데...》

정옥이 멈춰서서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광순동무가 작년에 찾아갔던 총국장이 바로 나였소.》

한경수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였다.

《예에?!...》

두사람은 눈이 둥그래졌다.

《안됐소.》

한경수는 긴 숨을 내쉬었다.

《부위원장동지, 뭘 그러십니까? 그야 뭐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아시고...》

윤광순이 난처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한경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나도 그게 미안해서 사죄하자는건... 아니요...》

한경수는 가쁜숨을 길게 내쉬었다. 두사람은 웅색하게 서서 아무 말도 못한다.

이윽하여 한경수는

《그럼 부탁하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광산에다 전화 걸어주요.》라고 한마디 하고 돌아섰다.

정옥이네 부부와 헤어져 학교개를 넘어가며 한경수는 생각하였다. 지난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기름작물이나 25 톤차문제처럼 처리되었을가? 아래로 위로 그렇게 마구 설치넘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당정책관철에 혼란을 일으켰을가? 나는 어찌하여 기름작물가공문제를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간절하신 녀원으로 받아안지 못하였을가? 언제부터 나는 떨어지는 모든 혁명파업을 부담으로 만 여기면서 아래서 위로 받아넘기기에만 급급한 고용살이군이 되었을가?...

차가 험한 범고개어구를 뚫아오를 때 문득 한경수는 30 년전 옛일이 생각났다. 배낭 한개를 지고 아지는 길도 없는 험한 고개를 헤치고 걸어올라가던 그 날에는 그의 가슴속에도 모든것을 전후복구건설에로 부르는 당과 수령의 호소가 불길처럼 타오르고있었다.

재더미속에 묻힌 강토우에 부강한 조국 풍성한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려는 순결한 충성과 푸른 꿈과 강렬한 정열이 온몸에 불타고있었다. 그때는 수령님의 녀원이 곧 자기의 녀원이였고 당이 아파하는 문제가 곧 자기의 아픔이었다. 방금 호룡천기슭에서 헤어진 정옥이네 부부처럼...

그렇던 자신이 어느사이 《벼슬자리》 지키는 《관리》가 되어버렸단말인가!...

풀어야 할 근본문제는 아직 자신의 머리속에, 심장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것을 한경수는 절감하였다.

사랑의 대전당이여!

조 허 림

바라볼수록 놀랍고
안길수록 은혜로운
그 이름도 뜻깊은 인민대학습당

금시 푸른 하늘로 날아오를듯
깃을 편 한뼘의 학무리인양
유서깊은 남산재언덕우에
높이도 솟았어라

무엇에 비기랴
아름다움의 극치
저 웅장하고 화려함
그 어느 호화로운 궁전도
전설속의 왕궁도 따르지 못하리

충마다 으리으리한 대리석무리기둥에
천만 보석 아롱진 빛을 쏘는듯
그 많은 방과 홀마다
그윽한 서재의 유정한 고요가 흘러
황홀하고 사뭇 숙연하야라

자랑스러워라
서가마다 장서인들 또 얼마나 많으랴
인류가 쌓아올린 정신적재부
시대의 슬기와 랑만이 숨쉬는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대보물고여!

오, 은혜로워라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수령님
세기를 두고 문명밖에서 허덕이던 우리 인민을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인류재부를 한손에 걸어온 거인으로, 내세워주셨
어라

지구우에 유구한 세월이 흘러갔어도
사람이 세계의 주인임을 처음으로 밝히고
알아야 주인구실을 할수 있다 하시며
인민의 학습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사랑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고마운 사랑...

간고한 항일전의 나날

혁명의 창창한 미래를 불러
배움의 종소리 쟁쟁히 울리고
눈보라치는 밀림의 우등불가에서도
대원들의 학습을 보살피시며
힘과 지혜를 안겨주시였거니

위대한 그 사랑의 해빛아래
누구나 다 마음껏 공부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만민을 위한 참된 학문과 문명이
꽃피고 무성 하는 지상락원으로 펼쳐진 사회주의
우리 조국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고
남먼저 공산주의 기슭으로 이끄시려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
영원할 사랑을 노래하는가
시간마다 울려퍼지는 저 시계종소리...

여기서 과학자는
꿈같은 행복의 절정우에 앉아
수난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을
근엄히 번저가며 눈시를 적시고

여기서
젊은 독학자, 과학자, 전문가들이
사색과 탐구의 불바람을 일쿠며
과학기술의 높은 령마루로 치달아오른다

수령님 세워주신 사랑의 전당에
시간마다 미지의 세계 다가서고
날마다 심오한 진리와 혁명정신 나래치는
소중한 시간이 여기서 흐르거니

아, 주체시대의 위용을 펼치며
우람히 솟은 사랑의 대전당이여!
너는 혁명의 수도 한복판에 높이 솟아
인류 행복의 보물고, 배움의 높은 탑으로
온 누리를 향하여
찬연한 자랑의 빛발 뿌리는구나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한 녀성당원의 참다운 형상

-장편소설 《너당원》에 대하여-

오 춘 식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키고있는 오늘 장편소설 《너당원》(김보행)은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불굴의 혁명전사, 당의 참된 충신으로 키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작품이 이처럼 커다란 고무적힘을 가지고 독자들의 심장을 틀어잡는것은 주체적인 문학예술창작에서 근본문제로 제기되고있는 혁명적수령관에 관한 문제를 중심에 놓고 한 녀성당원의 전형적성격을 통하여 그것을 훌륭히 구현한데 있다.

혁명적수령관은 혁명가적품성의 근본핵이다.

공산주의자의 기본 징표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관에 기초하고있으며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 품모는 혁명적수령관을 바탕으로 하여 높이 발양된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에서 혁명적수령관을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장편소설 《너당원》은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한 녀성당원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나가도록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장편소설 《너당원》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전쟁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락원기계공장을 찾으시여 주철직장 당세포회의를 지도하신 불멸의 혁명사적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난관도 뚫고 끝까지 해내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감명깊게 형상한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2년 6월 21일 락원기계제작소 주철직장 당세포 당원들과 하신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방금 한 녀성당원동무가 우리가 싸워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제놈들이 그렇게 마사놓고 간것도 2-3 년동안에 복구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전쟁이 끝나면 또 복구해가지고 잘살수 있으니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며 신심을 북돋아주는 말입니다. 이 동무의 말은 우리 로동계급의 강毅한 의지를 표현하고있습니다. 우리 로동계급은 난관과 시련앞에서 굴할줄 모르는 강毅한 의지를 가진 로동계급이며 이러한 로동계급이 있기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후복구건설도 훌륭히 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7권, 266페이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모든것이 파괴되어 재더미밖에 남지 않은 그 준엄하고 간고한 시기 락원기계공장의 한 녀성당원이 우리가 싸워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쟁이 끝나면 또 복구해 가지고 잘살수 있으니 너무 근심하지 말아달라고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말은 우리 당과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한 열화같은 충성심의 표현이였고 혁명적수령관의 참다운 발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락원기계공장에서 만났던 그 녀성당원의 말을 내내 잊지 않으시고 감회깊이 회상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날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거기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장편소설 《너당원》은 바로 이러한 감동깊은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서가는 한 녀성당원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고있다.

인간의 사상의식발전과정을 깊이있게 섬세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그의 내면세계를 구체적으로 파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세계와 심리의 변화과정은 사상의식 발전에 그대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내면세계는 생활발전과 성격의 론리에 맞게 구체적으로 그려야 하며 성장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사상의식이 점차 높아가는 인물의 형상을 그리면서 그의 정신세계의 발전을 따르지 않는다면 성격장성의 본질적인 과정을 펼쳐보일수 없으며 그의 행동과 생활에 공감이 가게 할수 없다.

《너당원》은 주인공의 사상의식이 점차 높은 단계로 심화 발전되어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서가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주인공 용녀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세계를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파고들면서 그의 성격장성과정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집중하고있다.

의지 연약하던 한 녀성이 전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겹치는 불행과 거듭되는 정신심리적고통을 이겨나가며 어떻게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나갔는가 하는것을 성격발전의 논리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의 중심 주인공인 주용녀는 본래 섬약하고 마음이 어질고 눈물이 헤쁜 녀성이었다.

해방전에는 운명에 순종하는데만 습관되어온 그러한 녀성이었다.

세로위원장 강태수아바이가 말한바와 같이 용녀가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며 안될 가장 기본적인 결합은 눈물이 헤쁜것이였다. 당원증을 수여받던 날도 북받치는 감격을 어찌하지 못하여 그는 옷고름으로 눈물만 흘렸고 회의때에도 늘 맨 뒤의자에 조심히 자리를 잡곤하였다.

조심성이 많고 두려움 잘타고 인정이 헤프고 모질지 못한 용녀이기에 공장당위원장이 조형작업반장일을 맡기자고 하였을 때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자기에게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긴다고 생각하는것이며 자기를 지난날의 반장들과 나란히 세울수 없을뿐아니라 사람들이 흥분을 안고 기다리는 《좋은 반장》이 될만한 재목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것이였다.

한것은 이날 이때까지 그 누구에게 지시하고 요구하는 일을 해본적도 없었고 또 그런 큰 살림을 맡아 두량해본 일도 없는 어질고 섬약한 눈물이 많은 녀성이였기때문이었다.

남편이 전선에 나간 지금 아이들을 타이르 때조차 그는 자기자신의 요구로써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온 다음 일러바치겠다》는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유지해나가는것이다.

긴 살눈섭에 검은 빛이 도는 류달리 큰 눈을 가진 몸이 작은 녀인인 주용녀에게 가해진 첫 타격은 소중히 간직하고있던 우정을 빼앗긴것이였다.

남달리 각별한 우정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며 살던 오랜 숙련공인 혜선이 남편이 전사했다는 불행한 소식을 안고 공장을 떠나 친정집으로 가게 된것은 전쟁의 시련속에서 용녀가 당하게 되는 첫 슬픔이며 불행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용녀의 성격발전에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점으로 된다.

용녀는 당원이였지만 침해당한 이 우정을 회복할 수 없었으며 또 회복할만한 힘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정은 남달리 깊었으나 불행으로 하여 가슴아파하는 혜선을 설복하고 이끌만한 힘이 없었던것이다.

용녀에게 가해진 두번째의 타격은 기둥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던 남편이 전사했다는 무서운 소식이다. 사실상 용녀에게 있어서 두번째로 가해진 이 타격은 참기 어려운 가장 큰 타격이었다. 우정을 빼앗겼을 때만 하여도 이처럼 가슴아프지는 않았었다.

슬픔을 먼저 나누어야 하였던 어두운 날에나 그 어둠이 물러간 밝은 날에나 언제나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던 남편이였고 그 남편은 아버지와의도 같고 어머니와의도 같은 마음의 기둥이였고 파스한 품이였다. 하기에 용녀는 남편의 전사로 하여 억울함과 분노, 슬픔과 눈물로 끝없이 몸부림치며 때로는 절망을 느끼기도 하는것이였다.

용녀에게 가해진 세번째의 타격은 세로위원장 강태수아바이의 희생이었다. 큰산같이 믿던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다음에도 담백처럼 뒤에서있어주어 마음이 한결 든든하던 당세포위원장이였다. 그런데 강태수아바이는 폭격에 파괴된 용선로를 구원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에서 장렬하게 희생되는것이다.

그러나 불행은 이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다. 반동놈들은 용녀의 가슴을 찢게 하는 아픔을 주려고 사랑하는 딸 명희를 살해하는 음모를 꾸민다. 남편의 슬픈 소식을 받은 가슴속의 그 상처에 더해도 앓기전에 또 새로운 불행이 용녀의 가슴을 덮치는것이다.

전쟁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피할길없는 불행을 강요하였으며 용녀는 그 준엄한 전쟁속에서 우정도 사랑도 귀중한 그 모든것을 다 빼앗기는것이다.

이러한 정신심리적고통속에 수류탄생산을 위한 첫 주물에서 많은 량의 수류탄이 불합격품으로 되고 적들의 맹폭격으로 용선로가 파괴되는 불행이 겹친다.

작품은 이와 같이 감정축적을 깊이있게 주면서 작품이 심어놓은 종자해명으로 한결음한결을 전진해나아간다.

귀중한 그 모든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것이 파괴된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는 억센 신념으로 그 모든 불행과 고통 아픔을 이겨나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온갖 불행이 겹치고 또 겹치는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살아 싸우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이것이 바로 이 작품에서 해결하고자 한 사상주제적과제이며 이 기본문제의 해결에서 작가는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서가는 한 녀성당원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고있는것이다.

이 작품이 해결하고자 한 기본문제, 그것은 바로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오직 한마음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철석같은 신념이다.

혁명은 그 어떤 절해도고에 홀로 남아있어도 변함없는 신념을 간직해야 한다.

신념이 없는 사람, 신념이 확고하지 못한 혁명가는 혁명가가 아니다.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동요를 면치 못하며 결국 배신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진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만이 영원히 충신으로 살수 있다.

신념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다.

혁명적수령관이 튼튼히 섰을 때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그러므로 혁명적수령관은 참된 혁명가와 우연분자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장편소설 《녀당원》의 주인공이 고생을 하고 불행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굴할 줄 모르며 역세게 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한 우리 인민은 반드시 싸워서 이길수 있으며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을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을 안고사는 당원이기때문에 전쟁승리를 위하여 남편과 아이를 잃고 집과 공장을 불태우고도 굴하지 않는것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전지구수품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입니다.》

혁명적수령관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이다.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할것을 요구하며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방침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한다.

장편소설 《녀당원》의 주인공 주용녀의 성격형상에는 이러한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조선로동당원의 참다운 모습, 우리시대 로동계급의 전형적특질이 확고하게 체현되어 있다.

주용녀의 성격에 체현된 혁명적수령관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점차적 발전단계를 거쳐 형성되며 확고한것으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주인공의 혁명의식이 짝고 튼튼히 박히여 그것이 점차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되어가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는 조건과 계기를 충분히 설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계기들이 잘 맞물려있지 않을 때 작품에 그려진 인간성격은 진실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귀중한 모든것을 빼앗기는 불행이 겹치는 조건에서도 불굴의 혁명적신념을 안고사는 당원으로,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서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계기를 충분히 설정하고 그 계기들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이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과정을 생활 그대로의 진실성을 가지고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어려서부터 남의집 아이보개와 부엌머슴으로 온갖 고역과 시달림을 받으며 살아온 주용녀가 비로소 참된 삶의 보람을 안고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있기때문이다.

남편 한인호나 주용녀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으로 공장의 주인이 되었으며 조선로동당원이라는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한평생 장군님만을 믿고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만 살아가지요.》

안해 주용녀에게 남편 한인호가 한 이말은 그들이 생활을 통하여 확고히 체득한 변함없는 혁명적신념이였고 생활의 좌우명이였다.

신의주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위대하신 장군님의 연설을 접하였을뿐아니라 장군님께서 몸소 불러주신 회의에 참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은 남편이였으며 또 장군님께서 바라신대로 공장을 복구한 남편이였기에 남편이 안겨준 이 신념은 한치도 드릴수 없는것이였다.

남편이 전선으로 떠난 뒤 공장에서 조형작업반장일을 맡은 순간에도 주용녀는 비록 어진 녀성이였지만 공장당위원장과 세포위원장 강태수아바이의 깨우침을 받으며 이 신념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나도 조선로동당원이며 장군님의 어엿한 전사라는 각오만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고 또 해내야 한다는것, 당에서 하라고 하면 작업반장사업이만이 아니라 지배인사업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하며 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것, 이러한 깨우침들은 용녀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공장으로 동자들에게 맡겨주신 수류탄생산과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야 한다는 높은 책임감과 함께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의리감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용녀에게 있어서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은 물론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으며 불행이었다.

그러나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진 세포당원들, 남의 불행과 슬픔을 자기의 불행과 슬픔으로 받아들이줄 알며 혈육보다 더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두터운 의리를 베풀줄 아는 한가정과 같은 세포당원들의 진실한 믿음과 보살핌속에서 주용녀는 위대한 장군님과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사랑과 은덕을 가슴깊이 느끼게 되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그는 약한 마음과 작별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다잡으며 눈물없이 곳곳이 살아가겠다는 당원으로서의 결심을 다지게 된다.

그리하여 용녀는 친정집에 가서 불행을 슬퍼하며 목적없이 살아가는 혜선이를 데려옴으로써 혜선이와의 관계에서 후회를 남겨두지 않고 동지로서의 의리를 지키려 하며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전의 인정무른 다심한 어머니의 관계로서만이 아니라 전사한 남편의 대를 이어 역세게 살아가는 새세대 혁명가로 자라나도록 요구성을 높이는것이다.

또한 학봉이와 정식이 같은 철부지소년들을 훌륭한 로동자로 키워내며 세포조직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기 독단에 빠져 엄중한 후과를 가져온 직장장 리성찬에 대하여 비판도 하며 전선에 보낼 수류탄을 생산하는 공장의 운명과 관련되는 1 호용선로복구를 위하여 2천리 먼길을 가서 내화벽돌을 기어이 구해온다.

그리고 정기남의 입당준비를 방조하며 귀여운 딸명희를 산에 묻고 온 그길로 다시 공장에 나와 정기남의 입당청원을 심의하는 세포총회에 참가한다.

딸은 잃었지만 혁명의 한길에서 함께 싸울 귀중한 동지, 당원 한명 얻은 기쁨으로 하여 용녀는 자신이 당한 슬픔이나 불행보다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하는것을 더욱 가슴아파하는것이다.

작품은 이와 같이 타당한 계기들에서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서가는 용녀의 성격을 깊이있게 파고들므로써 형상의 진실성을 튼튼히 담보하고 있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은 주체사상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삼는다는데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

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선 진짜배기 혁명가 당의 참된 충신을 가리켜 말한다.

《녀당원》의 주인공 용녀는 사상의식의 발전과정을 거쳐 바로 이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높이에 이르게 된다.

사랑과 우정, 귀중한 그 모든것을 다 빼앗기고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따르는 그 신념을 고이 간직하고있었기에 용녀는 전화의 불길속을 헤치시고 몸소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이곳 이름없는 공장에까지 찾아오시여 주물직장 당세포회의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다음과 같이 말씀 올리는것이다.

《장군님, 너무 넘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 이기기만 하면 복구건설은 문제로도 되지 않습니다. 해방후에 일제놈들이 그렇게 마사놓고간것도 우리는 장군님 말씀대로 복구해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도 미국놈들이 파괴한 용선로랑 복구해보니 그리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또 복구해가지고 잘살수 있습니다. 복구건설은 우리가 할테니 너무 근심하지 말아주십시오.》

눈물이 많고 연약하기 그지없던 한 녀성에게서 원쑤놈들은 하늘처럼 믿던 남편과 귀여운 살붙이까지 빼앗아갔으나 그는 쓰러지지 않고 자기가 입은 상처보다 조국이 입은 상처를 더 가슴아파하면서 전쟁승리에 필요한 수류탄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쳤을뿐아니라 나라의 복구건설을 자기의 작은 한가슴에 맡아안고 나선것이였다.

모든것이 파괴되어 재더미밖에 남지 않은 형편에서 조선은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것이라고 세계가 우려를 표시하고 앞으로 과연 파괴된 그 모든것을 복구할수 있겠는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있을 때 몸매 작은 한 녀성당원에게서 자기 힘을 믿고 굴할줄 모르는 신념에 찬 목소리가 울려나온것이였으니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는 가장 올바른 자세와 립장을 찾아보게 되며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우리당의 참된 당원,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미를 깊은 감동으로 찾아보게 되는것이다.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의 당원은 이러한 드팀없는 신념을 가지고 어떤 슬픔도 딛고 일어서야 하며 어떤 난관도 자기힘을 믿고 뚫고나가야 한다.

바로 이런 신념을 간직한 사람은 영원히 승리자

로 살수 있다.

이와 같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한길로만 걸으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어버이수령님의 심리를 덜어드리고있는 한녀성당원,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한데 이 작품이 거둔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가 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주인공의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짓고 뚜렷하게 개성화하기 위하여 인간심리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데 힘을 기울이고있으며 특징적인 생활세부들을 섬세하게 그려나감으로써 커다란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인간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세계는 오직 구체적이고 섬세한 생활세부를 통해서만 생동하게 표현된다.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생활세부를 골라잡고 깊이 있게 그려내는데 형상을 간결하고 명백하게 창조하는 비결이 있으며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으며 생활을 의의있게 보여주는 열쇠가 있다.

공장당위원회에서는 용녀에게 조형작업반장을 맡겼을 때와 소식없는 남편에 대하여 내내 알지 못할 불안을 느끼는 용녀의 심리,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용녀의 감정과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그리고 전사했다던 혜선의 남편이 돌

아온 날 용녀가 환각을 느끼는 장면과 전쟁이 승리한 날에 대한 용녀의 꿈이야기, 남편이 전선으로 떠나던 날 그가 좋아하는 파배기 한그릇 들려보내지 못하데 대하여 용녀가 거듭 후회하는 장면과 《전사》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 아들 명철이가 동무의 코피를 터쳐놓아 소동을 일으킨 생활세부들은 주인공의 사상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짓는데 효과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작품은 특히 현란한 미사려구나 멋부리는 문장이 없이 문체적흐름이 은근하고 박력있고 무게가 있어 노동계급의 사상감정과 의지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표현하고있으며 형상의 독창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이것은 작가의 깊은 탐구정신과 진지한 창작적 노력의 열매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장편소설 《녀당원》은 혁명적수령관에 관한 문제를 중심에 제기하고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한녀성당원의 참다운 형상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것이다.

나는 화분에 물을 준다

-2월초의 일기-

김 철

2월 초하루-

《팀 스피리트 84》...

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날아침에도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아들이 초소로 떠나면서

내 책상앞에다 옮겨놓은 화분에

×

내 언제 군화를 신은 발로

워싱턴의 거리를 밝은 일이 있었던가

또한 언제 권총이나 칼을 품고

서울에 가볼 생각하였던가

나는 꿈꾸었나니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날

남녘땅의 어느 신문이라든

눈물나는 시 한편 발표했으면...

그래서 생사조차 알길 없는

내 동생, 내 누이, 내 조카애들이

그 시의 필자를 찾아

신문사편집국에 달려오게 했으면...!

그런데 또다시 《팀스피리트》?!

어찌하여 이런 비렬한 불장난이

내 작은 소원마저 짓밟으려 하는가!

어찌하여 나의 절박한 의사도 함께 담긴

우리 최고주권의 엄숙한 제의에

이런 무엄한 도전이 행해진단말인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목새기려

창가에서 서성거리는 나에게로

막내딸 옥이가 다가온다

《아버지, 나도 영어 배울래》

《중학교에 올라가면 배우겠지》

《아니야 지금부터!》

《그건 왜 갑자기?》

《미제가 또 덤벼드니깐!

유-쎬 다이, 이흐유- 액트레클리슬리!

(you shall die, if you act recklessly!))

되알지게 울리는 옥이의 목소리...

내 저말을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던가?

그렇지 저 말은

지난해 이맘때 저 애 오빠가

군복을 입으면서 하던 말이다!

《유-쎬 다이, 이흐유- 액트레클리슬리!

(분별없이 행동하면 죽일테다!))》

×

조선의 아침은

북쪽과 남쪽에서 한시각에 밝는다

그러나 이 크지 않은 반도는

아시아와 세계의 한복판에서

타들어 가는 도화선을 허리에 둘렀다.

오, 어린것들을 키우는 세계의 너인들이여

저 불심지를 끊고 아이들을 지키라!

한생의 성실한 로력을 바쳐

난알과 옷과 집을 받는 수억만 사람들이여

당신들의 목소리를 합쳐

저 저주로운 폭음을 짓누르라!

나는 이미 50년대에

당신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렸다.

그러나 지금 조선에 떠도는 불구름은

이미 당신들의 창문에도 그림자를 던졌거니

나서라, 우리와 함께

전쟁미치광이들로 하여금

무분별한 망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세계의 도처에서 손발을 묶자!

×

나는 길을 떠난다

팽팽하게 행키운 조국의 하늘가에

새 비날론공장 기둥들이 솟고

새 강철직장들이 추녀를 맞대는

대건설장으로 시를 쓰러 간다

달리는 렬차...

차창가에도 소담하게 핀 꽃!

나는 그 향기를 가슴가득 마시며

옥이를 생각한다

그 애에게 꽃과 책을 맡기고 떠난
열아홉살 근위병을 생각한다

-애들아, 나는 이제
평화통일의 열차를 타고
서울로도 갈것이다
부산으로도 갈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의 사촌들을 찾아내어
우리 집에도 놀러 오게 할것이다.

그날을 위해 병사여
자위의 총검 더 굳게 잡으라

그날을 위해 옥이야
공부를 잘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
오빠의 화분에 물을 주는 일도

그어떤 《팀스피리트》
그 어쩔 전쟁놀음도
우리의 화분 하나 다치지 못하려니
아버지는 쓰고 또 쓰련다
창조와 건설의 음향을 담아
놈들에게 벼락을 안겨줄 시를!

지남침

최 준 경

남쪽 하늘만 보아도 생각난다
지리산 깊은 밀림속에
홀로 서있던 작은 초막 하나
눈을 감아도 삼삼히 떠오른다
지리산빨찌산에서 전사한 아들을
그 초막곁에 묻고
숫구리로 살아간다면 로인 한분

잊지 못해라
남진의 길 령남땅에 이어 놓고
북으로 북으로 떠나오던 날
향방모를 숲속덩굴을 헤칠 때
문득 피창문을 열고나온 그 할아버지
나의 손에 지남침을 안겨주며
뜨겁게 당부하던 말이여!

-북쪽바늘만 따라가면
장군님 계시는곳에 닿을걸세
원썬을 치며 여기로 다시 올 땐
남쪽바늘만 따라오게

전사한 아들이 안고 싸웠다는 지남침
할아버지 유물로 손때묻었다는 지남침
그 북쪽 바늘끝에 받들리워
나는 태백산도 나래돌쳐 넘어왔건만
다시 가지 못했구나 상봉의 그 길
남북을 갈라놓은 장벽이
이 작은 판도우에도 가로놓여있어

헤어질 땐 아쉬워
차마 배낭끈을 놓지 못하던 로인

지금도 살아있다면
아침저녁 피창밖에 나와
북쪽 산발만 쳐다보고있으리
굽은 허리 지팡이에 의지한채
풍상속에 백발마저 더 성긴채

오, 잠들면 꿈에도 보이는 그 모습
잠깨면 다시 눈앞에 어리는 그 모습
이 시각도 지남침 작은 판도엔
나를 부르는 그 손길 달려와있고
가지 못하는 내 마음 머물러있는듯
뾰족한 바늘끝은 예민하게 떨린다
내 마음의 끈을 초조히 당기며
남쪽 바늘끝은 원한에 몸부림친다

정녕 이제 더는, 이제 더는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을
가슴속에만 안고 살기엔 죄스럽구나
꿈에도 못잊을 상봉의 그 지점이
긴긴세월 나를 부르며 삼삼히 어려오거니
사나이 이 가슴엔 불, 불이 이누나

아 그래서 지남침만 꺼내들어도
불같은 내 마음
산너머 구름너머 그 초막으로 달린다
하루에도 그 몇번
남녘의 로인을 부둥켜안고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합쳐지는
통일의 넓은 광장으로 황황히 나선다
온몸이 그대로 온 넋이 그대로
지남침의 남극자석에 팽팽히 끌리어

병사의 손 외 2편

정 렬

총탁못이 박혀서
듣직하면서도
깨끗한
병사의 손

잡으면
벽돌담도 무너지고
내려치면
바위도 빠개지리

어린 날 그대는 그 손으로
탁아소의 오색팔랭이로부터
어머니조국이 주는
딸기통줄임에 우유
철따라 새 교복을 받아안았지

행복만을 알며
사랑만을 받아안던 그였기에
순간이나마 고마운 은덕을 잊고
깨끗한 그 손을 더럽힐수 있으랴

실버들 움트는 내가마을을 지나다가도
조무래기들 만나면
귀여운 제 동생처럼
능금알 두볼을 비벼주며
닝큼 들어올리는 깨끗한 그 손

소낙비 퍼붓던 밤
초소아래 저수지 쪽이 걱정되어
남먼저 삼을 쥐고 달려갔고

농장프락포르에서
떨어진 옥수수 몇이삭도
령너머 마을에 갖다주던 그날

어찌 알았으랴
농장벌에 오신
아버이수령님을 만나뵈울줄
감격에 목메여 울던 전사
손이 험하다고
머뭇거리고있을 때

투박하여도
얼마나 깨끗한 손인가고
나는 그런 손이 좋다 하시며
아버이수령님
눈물에 젖은 그 손을 꼭 잡으시고
오래도록 끌어주셨거니

아 인민에게는 깨끗하여
아버이수령님의 기쁨 되고
원썬들에게는 사나와
가차없이 징벌을 안기는
병사의 손

그 손으로
병사는
미체를 몰아내고
통일의 문을 열어제끼리라

맑은 이슬 한방울도

금시 불이 쏟아질듯한
병상의 총구앞에선
진달래 망울을 터치고
뽕무리 맘놓고 내린다

풀덤불로 위장한 어깨우에
피꿀새가 앉아 노래 불러도
사격권 안에서
살찐 노루 가담가담 풀뜯어도
병사는 노래우지 않는다
싱그런 바람결에

조국의 그윽한 향기 다 풍겨오고
정다운 음향이 다 흘러드는
심산속 병사의 초소

등뒤에서 울려오는 렬차의 기적소리
령너머 학교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며
광광 광산의 발파소리며
그 모든 정다운 음향들은
언제나 레사로이 들어도

병사는 용서치 않는다

천만 음향에 뒤섞여 들려오는
그 어떤 귀에 선 소음도
이슬이 구르는 작은 소리가
한밤에 깨어지는것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푸른 하늘로 숨새드는
낮선 먼지 한점
맑은 공기를 어지럽히는
티검불 하나라도

만약 고운 새들이 우짖고
노루가 뛰노는 사격권안에
낮설고 귀에 선 그 무엇이든
나타나기만 한다면
명중총성은 울리리라

병사가 지키는 이 땅에서
원썬들은 청신한 풀 한포기
구겨놓을수 없고
맑은 이슬 한방울도
떨굴수 없어라

포근한 잠자리를 넘겨주고

초소의 병실
이름표도 나란히 붙어있고
모포도 가ռ히 포개여놓은 침대이건만
병사의 잠자리는
비어있다

방금 읽다가 떠난듯
책상우에는 고향에서 온
우편엽서도 놓여있고
벽에는 바늘꽃이도 걸어놓고

다만 태엽을 팽팽히 감은 벽시계만이
알리누나
그의 숨결소리인양
밤새워 똑딱거리며...

기다리는 마음인양
병실안은 언제나 훈훈하여
방금 문 열고 들어설듯
어디선가

낮익은 발자국소리 들려올듯
하지만 이 밤
전사는 돌아오지 않아라

초소에 꽃봉투를 띄운
고향의 누나들을 재워놓고
쌔근거리며 단잠 자는
어린 동생들의 단꿈을 지켜
순찰의 밤길 떠났기에

그 어디에 소문도 냄이 없이
탈자국도 냄이 없이
밤마다 숲속길 걷기에
비어있는 침대
비워둔 잠자리

아 비어있는 잠자리가 있기에
고유속의 이런 밤
창가에 밤별이 돋는
행복의 요람이 있는것 아닌가

이 땅의 행복한 집들에
포근한 잠자리를 넘겨주고
고르로운 숨결을 넘겨주고
전사는 남모르게 떠나갔구나
산속의 험한 길
찬서리내리는 길로

운명의 길

박 윤

그날저녁. 나는 북부지구의 어느 한 제철소에 대한 취재를 끝나치고 평양역에 도착하였다.

안개가 서린 차창밖을 내다보니 역홈에는 사람들이 슬렁거리는 속에 북행열차가 출발을 서두르고 있었다.

뒤늦게 열차에 뛰어오르는 보위색옷차림을 한 청년돌격대원들을 단속하는 단발머리 역안내원의 청높은 목소리며 조급하게 울리는 호각소리 그리고 기적소리, 떠나며 바라며 맞이하는 각이한 사람들의 소음, 일제히 켜진 무리등불빛들과 우편물차들, 이동매대차들, 엄숙하게 푸른기를 쳐든 차장의 얼굴...

작별과 상봉, 숨가쁜 열정과 활력으로 들끓는 생활과 거창한 대도시의 일모가 나의 눈앞에 펼쳐진것 같았다.

생활의 서정시라고 불리우는 명절과도 같은 류다운 분위기가 대뜸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봄비는 려객들속에 끼여 열차승강대를 내려섰다.

아치형지하통로입구로 급히 내려서던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계단옆, 역홈지붕을 떠받들고있는 원주결에 서있는 회색코트를 입은 점잖은 사람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방금 움직이기 시작한 북행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있었다. 옆모습으로 보이는 뒤통만한 광대뼈며 두드러진 이마며 혈색좋은 얼굴이며가 대번 심진박사라는것을 알렸다.

나는 얼른 계단을 되짚어 그에게로 향했다. 그러나 나는 주춤 걸음을 멈추고말았다. 박사의 약간 세모진 눈에 비친 짙은 상념과 생각깊은 색조가 선뜻 다가서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나는 취재 가방을 역홈바닥에 내려놓고 박사의 시선을 따라 북행열차쪽을 살피보았다. 가까운 승강단에서는 보위색 돌격대옷차림의 청년들이며 머리를 틀어 올린 부인 등 여러사람들이 상반신을 내밀고 역홈에 몰려서있는 사람들을 향해 웃음과 웨침과 손저음을 보내고있었다. 박사가 누구를 배웅하는지는 딱히 알수 없었다.

열차가 점차 속력을 내기 시작하자 박사는 손을 내리우고 숙연한 눈길로 멀어져가는 기차를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두줄기의 궤도가 역홈의 네온등불빛에 반짝거렸다.

사람들의 흐름이 뜨음해지자 나는 박사에게로 다가갔다.

《선생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의 물음에 심진은 곁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와들

놀라더니 눈가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작가동무가 어떻게? ... 현지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구만요.》

《예... 그런데, 선생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려? ...》

《아, 아니요... 한 친구를 바래우러 나왔됐습니다.》

심진은 더듬거리며 한손을 내저었다.

우리는 역전광장으로 나왔다.

사람들의 물결속을 헤가르며 수십대의 승용차들이 광장을 빠져나가고있었다. 청회색 소형승용차 한대가 우리앞으로 소리없이 굴러왔다.

심진박사는 나의 손에서 취재가방을 빼앗아들었다. 나는 열결에 가방을 내주었다가 다시 손을 내밀었다.

《아니, 난 걸어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거리구경도 할겸...》

그러자 심진은 더 우기지 않고 선선히 가방을 내주고 코트 주머니에 손을 질렀다.

《그럼 함께 걷지... 나도 걸어본지가 오랬소.》

분초를 쪼개가며 과학연구사업에 헌신하는 그에게서 이것은 레외적인 일이었다.

나는 과학자들에 대한 작품을 창작하면서 오래전부터 그와 친교를 두터이하고있었다. 그러나 그와 마주앉아 한담하는 일이란 극히 드물었고 어쩌다 휴식일이나 명절날 집을 찾을 때에도 대체로 그의 안해의 이야기상대가 되곤하였다.

우리는 거리를 따라 한참 말없이 걷다가 대동강 유보도로 나갔다. 주체사상탑의 붉은 봉화빛에 강물은 붉게 물들고 계선장옆 강반은 고요하였다.

나는 침울한것 같으면서도 무엇인가 흥분과 사색이 비친 심진의 얼굴을 흘끔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겼다.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빨리 그와 헤어져 집으로 가고싶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것이란 안해와 어린 아들이 기다리는, 창가에 빨간 화분이 놓인 정든 집이었으며 한시바빠 려장을 풀어놓고 밤을 새서라도 작품을 원고지에 올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심진은 나의 마음과는 아랑곳없이 코트 주머니에 두손을 꼭 찌른채 말없이 스적스적 걷기만 했다.

약간 차거운 봄밤의 강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들추었다.

《선생님의 그 친구란 대체... 누구입니까?》

드디어 나는 오래 계속되는 침묵을 깨뜨리기로 결심하였다.

심진은 나의 물음에도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더니
이윽고 다소 갈린 목소리로 떠들썩 떠들썩 말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는, 림운성은 나의 오랜
친구요. 그와 알게 된 때로부터 벌써 많은 세월이 흘
렀소…》

그의 말에서 풍기는 류다른 색조가 별안간 나의
마음을 자극했다.

나는 호기심을 느끼며 심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우리들의 옆, 계선장 부근에서 비웃을 걸친 낯시
군이 뽀뽀이낯시를 던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진의 얼굴에는 회심의 그림자가 짙게 서려있다.
무엇인가 속을 터놓고 싶어하는 일종의 호소가 그의
눈가며 얼굴전체에 가득 실렸다.

그는 서두르는 빛이 없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
였다.

《…전쟁전에 우리는 한대학에서 같이 금속공학을
공부했소. 그는 노력가였소. 남보다 머리가 특별히
뛰어난 것은 아니었으나 비상한 탐구력과 열정을 지닌
진중한 친구였지. 일단 한번 책을 쥐면 끝장을 볼때
까지 호실에서 공공 앉았으니깐. 그래서 <곰>이라는
별명이 붙었었지. 그 정열과 검질긴 성미를 누구도
당해내지 못했소… 가끔 생물학부에 다니는 그의 고
향처녀가 찾아오곤했소. 그래도 이런 날은 그를 호
실에서 끌어낼수 있었소. 어쩐지 림운성은 그 여자
앞에서만은 곰살궂어 어디든 따라나서곤했소. 그들
은 함께 교외의 들길로, 대동강반으로, 모란봉으로
찾아가곤했지. 어떤 때는 억지로 나를 그 유쾌한 일
행에 끌어넣곤 했소. 스스럼없이 따라나설 때도 있
었지. 해방직후 지원대로 철도건설장에 나가 낮을
익혔고 함께 대학으로 온 그와 나는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소. 건설장의 천막속에서 이태를 한가마밥을
먹으며 시련을 함께 헤쳤고 배움의 뜻을 함께 간직
해 온 친구니깐…

림운성의 고향동무 한미랑은 싱싱한 꽃송이처럼
눈에 확 안겨드는 처녀였소. 그의 어디가 그렇게 사
람의 마음을 끌었던 지는 지금도 잘 리해되지 않소.
하여튼 길을 가다가 그 여자와 마주친 사람은 지나
쳐서 뒤를 돌아보지 않을수 없는 그런 처녀였소. 그
게 무엇이었던지? 아름다움이었던지. 리지적이었던
지…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 어떤 매혹과 류
다른 힘이 그 여자의 분꽃가루처럼 하얀 얼굴이며
눈언저리가 푸르스름한 맑은 눈이며 부드러운 조형
미를 띠고 흘러내린 탄력있는 몸매에 깃들어있는것
같았소.

대학에서 누군가 피치못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동무들이 꼭 그 여자를 끌어내어 강좌며 학부의 엄
한 교원들의 마음을 능치려 파견하곤 했으니깐. 그
게 그 여자의 매력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어떤 진
실성과 의협심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소.

그런 처녀니 자존심이 세고 누구에게도 속어들지
않는 림운성이었지만 늘 그앞에선 제 성격의 모를
죽여 주눅이 든것처럼 말이 없었고 지어는 어느 정
도 조심스럽기까지 했지. 이게 늘 우리의 유쾌한 비
난의 대상이었소…

함께 산책할 때면 한미랑은 상냥스러웠지. 그 너
자는 림운성에게 무엇인가 다정한 이야기를 속삭이
면서 걸곤했소. 나는 그 여자의 태도며 어조들에서
림운성에 대한 남다른, 그 어떤 특유한 감정을 느끼
곤했소. 그것이 또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소. 두
젊은이의 아름다운 미래가 눈앞에 뽀얗게 떠오르기
도 하더군.

그런데 어느해 여름, 대학생들에게 즐거움과 랑만
의 시절인 방학이 찾아왔소. 다들 정든 고향으로 뿔
뿔이 헤어져갔소.

림운성도 한미랑과 함께 북방의 고향땅으로 떠나
갔지.

나는 그때 학년말시험 한 과목때문에 방학기간을
호실에서 책과 함께 지루하게 보내고있었소. 일이
안될 때라 삼복더위시절에 그만 악성감모에 걸쳐 뒤
주일 입원했었거던. 나처럼 시험에 무락된 몇학생만
이 남아 텅빈 기숙사를 지키고있었지.

그런데 방학이 아직 채 끝나지 않은 어느 일요일,
림운성이 불쑥 호실에 나타났소.

<아니 왜 벌써 돌아왔나? 곰!>

내가 의아해서 묻자 그는 약간 당황해하며 허구프
게 웃더군.

그는 더 말하기 싫은듯 자기 침대로 다가가 벌렁
누워서 지긋게 천정만 바라보더군, 이쯤되면 그의
심사가 좋지 않다는것을 알수 있었지.

그날밤에야 림운성은 나에게 사연을 이야기했
소.》

유보도엿, 넓은일정향나무의 취할듯한, 그윽한 향
기가 코를 찌르는 숲속 돌의자에서 젊은이들의 나직
한 속삭임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점차 흐려오는 하늘.
도시의 화광을 받아 별거우리해진 구름째으로 별이
그리고 달이 빛나고있었다. 우주의 신비스러운 푸른
빛발들이 대동강을 다양한 색조로 물들이기 시작했
다.

심진의 추억은 계속되었다.

림운성은 기다리던 방학이 오자 자기가 그것을 오
래동안 고대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아직 평양은 무더운 여름철이었으나 북방인 그의
고향땅에서는 유혹적인 단풍철이 바야흐로 시작될
것이었다.

그는 한미랑과 함께 북행열차에 오르자 문득 자기
로서도 어쩔수 없는 감상적인 상념에 잠겨 안절부절
을 못하며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눈물의 징검다리, 봄소나기를 굿던 향긋한 쑥내 풍기는 풀초막, 거기 파란 밀보리가 설레는 등판들과 양무리 흐르는 산기슭의 이름없는 오솔길들에 미랑이와 함께 뛰어놀던 동요 시절의 미소들과 사연들이 간직되어있었다.

이제는 가까이 맞아줄 사람도, 해바라기가 얼굴을 가웃이 내민 고향집도 없었던만 그래도 이 땅 그 어디에 가나 잊혀지지 않고 그리울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던 추억의 땅이었다.

하긴 이제 자기가 들어서면 버선발로 달려나와 기쁨의 눈물로 옷깃을 적서줄 그리고 따뜻이 품에 안아줄 외삼촌어머니가 계셨다...

《그래 이번에 미랑동문 고향에 가서 뭘하려고?》

림운성은 차창에서 물러나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앉아 열심히 책을 들여다보는 한미랑쪽으로 돌아앉았다.

《졸업도 한해밖에 남지 않았는데 논문준비를 해야지요.》

한미랑은 크고 시원한 눈에 애뜻한 미소를 담고 상긋이 웃었다.

《참, 미랑동문 이번 졸업논문으로 북방풍토에 맞는 감자종자를 연구한다지요?》

림운성의 은근한 말에 한미랑은 그저 조용히 미소를 그려보였다.

림운성은 다시 차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해방후 처음으로 찾아가는 고향길이었다. 얼마후 차창밖으로 낮익은, 조그마한 간이역사가 보였다...

고향땅에서의 첫 며칠간은 림운성의 들뜬, 감상적인 기분을 식혀줄새 없이 흘러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한적한 시골생활은 점차 그에게 따분하고 적적한 감을 불러일으켰다.

한미랑은 고향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을사람들과 함께 밭에 나가 살았다. 파아란 교복을 수수한 검정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엉덩퀴며 풀송구리들이 뒤엉킨 산기슭 감자밭에서 해종일 땀별아래 돌아치다가 첫별이 뜰 때야 오곤하였다.

어쩌다 집에 붙어있을 때에도 그 녀자는 가방에 잔뜩 넣고온 실험기구들을 펼쳐놓고 감자종자들을 연구하곤하였다. 림운성은 그 녀자의 실험모습을 무료하게 지켜보다가는 소리없이 떠나오곤하였다.

드디어 림운성이 자기의 의향을 알리려고 한미랑을 찾아갔을 때 마침 그 녀자도 행장을 꾸리고있었다.

《아니 미랑동무도 벌써 가려오?》

림운성의 물음에 그 녀자는 배낭을 꾸리던 손을 들어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 올렸다.

《이번에 마을사람들의 방조를 많이 받았어요. 봄에 시험포전에 심은 감자종자가 잘되었거든요. 대학에 가서 화학분석을 해야겠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귀교길에 올랐다.

간이역으로 나가려면 령을 넘고 크지 않은 강을 건너야 했다. 외삼촌택이 억지로 궁겨준 이고장 특산물인 감자떡과 돌배를 넣은 크지 않은 러행가방을 든 림운성에 비해 그 녀자의 러장은 부산스러웠다. 그 녀자는 무엇인가 뽕뽕히 들어찬 커다란 배낭을 등에 지고 손에는 실험기구며 책들이든 보꾸레미를 들고있었다. 림운성은 그 보꾸레미를 억지로 빼앗아 들고 걸었다.

나루터까지 왔을 때 문득 그 녀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멈춰섰다.

《어마나, 어찌나! 집에 감자종자 봉지를 깜박 잊고왔네.》

림운성은 안개가 자욱히 서린 강물위로 물결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매생이를 지켜보며 시답지 않게 대꾸했다.

《뭘 그러우, 정 필요하다면 어머니에게 소포로 보내달라면 될게 아니요.》

그러자 한미랑은 금시 울상이 되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리질을 했다.

《아니예요. 발아기간을 연구하지 못하면 가까운 한해를 잃게 돼요. 미안스러운대로 운성동무가 먼저 역에 나가 기다려주세요.》

림운성은 감자 몇알때문에 험한 령길을 되달려가는 그 녀자의 심리가 어린 아이처럼 천진스러워 보였으나 그런대로 허거프게 웃으며 그의 짐까지 모두 안고 들고 먼저 매생이에 올랐다.

운수가 나쁜 하루였다. 매생이에서 내려 아직도 퍼그나 먼 역으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섰을 때 낮부터 흐렸던 하늘이 차거운 비를 휘뿌리기 시작했다.

짐은 무겁고 갈길은 멀었다.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림운성은 어깨를 지리누르는 한미랑의 배낭을 내려놓고 아가리를 열어보았다. 배낭안을 들여다본 림운성은 어처구니가 없어 허허 웃고말았다. 그를 고생시킨 배낭속엔 그 무슨 진귀한 북방특산물이 아니라 뜻밖에도 부식토가 조금 섞인 흙이 있었다.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일이었다.

림운성은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 혼자 두덜대다가 자기를 고생시킨 흙을 말끔히 털어버리고나서 보자기안의 물건들을 배낭속에 집어넣고 역으로 향했다.

비는 조금마한 역청사의 청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다. 남행렬차가 도착하려면 아직 시간이 있었다. 림운성은 딱딱한 나무의자에 걸터앉아 비뿌리는 창밖, 푸성귀들이 싱싱게 아지를 친 밭을 내다보았다.

얼마후 비에 함초름히 젖은 미랑이가 살결이 맑은 흰 얼굴에 흘러내린 까만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대합실에 들어섰다.

그 녀자는 무료하게 앉아있는 림운성앞으로 총총히 다가왔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혼자서 술한 짐을 지고오느라 고생했겠어요.》

그 말에 림운성은 짐짓 낯을 찌프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말두 마오. 내가 좀더 우둔했더라면 그 흠배낭까지 지구 끄짱거릴뻔했소.》

처음에 한미량은 그게 무슨 소린가싶어 약간 놀란 듯 커다란 눈에 의아한 빛을 띠더니 급기야 흠대신책이며 실험기구들이 들어있는 배낭으로 다가갔다.

그 녀자의 얼굴이 불안간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녀자가 너무도 상심한 표정이기에 림운성은 당황해지고말았다. 그 고향의 흠에 미량의 소박한 꿈이 담겨져 있음을 림운성은 썩 후에야 알게 되었다. 미량은 그 흠을 대학으로 가지고 가서 북방토질에 맞는 새 감자종자를 심고 가꾸려는 것이었다.

림운성은 어쩔바를 모르고 그자리에 서있었다.

불쑥 그 녀자가 림운성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 녀자의 말고 커다란 눈에는 순간 이슬이 맺혀 파들거렸다.

《어쩌면 동문… 고향의 흠을 그렇게 무심히 버릴때… 너무도 제 심정을 몰라주어요…》

그 녀자는 자신을 억제하며 조용히 말하더니 책돌아서서 대합실문을 열고 나갔다.

림운성은 그 녀자를 따라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그 녀자를 부르려 하였으나 어쩐지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 녀자는 보슬비 뿌리는 들판길로 달음치듯 총총히 걸어가고있었다.

림운성은 망연히 서서 질어가는 어둠속으로 사라져 가는 그 녀자의 뒤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부터 림운성은 말이 적어지고 늘 생각깊은 표정으로 검질기게 책과만 씨름하기 시작했소. 일요일이면 찾아오곤하던 그 녀자도 어쩐지 이때쯤은 발길이 뜸해지더군. 아마 노여웠던게지.》 심진은 잠깐 말을 멈추고 코트깃을 올렸다.

갑자기 랭기가 대기를 가득 채웠다. 그러자 가는 보슬비가 연하게 휘뿌리기 시작했다. 어느덧 우리는 박사의 집가까이에 와있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듯이 아무말없이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청춘기가 오래전에 지나갔으나 아직도 스러져 가는 미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상심은, 인상적인 검은 눈매를 가진 상냥한 심진의 안해가 웬일인지 생각깊은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나는 심진을 따라 응접실로 들어갔다.

심진은 안해가 가져다놓는 차잔을 들어 조금 마셨다.

창밖을 내다보니 벌서 하늘은 별빛하나 없이 캄캄하게 어두워있었다. 멀리 개선문쪽에서 비쳐오는 불

빛이 창밖을 흰히 만들고있을뿐이었다.

이윽고 보슬비가 점차 굵어져서 이따금 유리창에 부딪치는 가벼운 비방울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울렸다.

심진 박사는 잔기침을 깃더니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나는 림운성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되었소…

그 시절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못잇을 격동적인 나날이었소. 교정의 꿈에도, 사랑의 번민에도, 평화스러운 우리의 생활에도 드디어 검은 구름이 밀려들었소. 다음해, 전쟁이 일어났던거요…

우리는 앞을 다투어 전선으로 탄원했소. 림운성은 전선으로 떠나는 첫 대학생대오의 한성원이었소.

출발직전의 역함이 지금도 눈에 선하구만.

나는 동급생들과 함께 귀중한 벼를 바래우려 역에 나갔지.

불구름 타래치는 하늘, 실밥이 그대로 붙어있는 새 군복을 입고 총창을 번득이는 병사들의 대오, 장갑렬차의 차량들이 부딪치는 소리, 노래소리 포웅과 작별의 모습들…

나는 출발을 앞둔 군용렬차의 맨끝에, 군복을 입어 어쩐지 의젓하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림운성과 나란히 서있었소. 리별을 앞두고 품은 이야기, 남겨두었던 사연, 부탁들도 다 말했고 이제는 마지막 포웅만이 남아있었소.

그는 자주 개찰구쪽을 바라보곤했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희망의 빛과 초조감과 일종의 향수가 엇갈려 비끼곤했소.

나는 그의 심정이 이해되었소. 전날 저녁 나는 너성기숙사에 찾아가 미량을 만났었으니까… 림운성도 그걸 눈치챘었지.

그러나 미량은 나타나지 않았소. 나의 마음도 웬일인지 허전하고 림운성의 얼굴을 마주 바라볼수가 없더군. 이윽고 떠나자고 재촉하는듯 심장을 뚫이며 군용렬차의 기적소리가 울렸소.

림운성은 문득 상념에서 깨어난듯 나의 손을 억세게 틀어쥐었소.

<그럼 심진, 전승의 날 교정에서 다시 만나세.>

나는 다른 팔로 그의 어깨를 부여안았소.

<우리도 며칠내로 떠날걸세. 뭐… 전할 말이라도 없나?>

림운성은 예리한 눈으로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았소.

그는 무슨 말인가 할듯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소.

<아니… 성실하게, 조국앞에 부끄럼없이 싸워주길 바라네!>

그는 서둘러 내 손을 놓더니 군용렬차의 맨끝 승강대에 올랐소.

그러자 또다시 기적소리가 울렸소. 열차는 흠칠떨더니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소. 역쪽은 사람들의 물결로 설레었소.

이때 역쪽 저쪽 끝에서 분꽃가루같이 하얀 얼굴의 날씬한 처녀대학생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있었소.

<운성동무!->

우리는 동시에 그쪽을 돌아보았소.

미랑이가 하얀 들꽃뭉음을 한아름 안고 소리치며 뛰어오더군.

림운성의 눈에는 기쁨의 불꽃이 튀겨 나오는것 같았소.

열차는 점차 속력을 내기 시작했소.

그 녀자는 숨가빠 달려와 림운성에게 들꽃뭉음을 넘겨주며 다급하게 속삭였소.

<운성동무, 전쟁이 끝난 다음... 우리가 늘 가던 모란봉 부벽루앞에서 다시 만나요!... 기다리겠어요!...>

<...알겠소!>

림운성은 승강대아래로 몸을 굽히며 황황히 대답했소.

그 녀자는 열차를 따라가며 더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안타까이 림운성을 올려다보았소.

군용열차는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며 멀어져가고 그 녀자는 바람부는 철길옆에 서서 손을 흔들었소.

열차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그 녀자는 오래동안 그자리에 서있었소.

나는 그 녀자와 묵묵히 폭격에 파헤쳐진 거리를 걸었소.

미랑은 문득 포장도로위에 나딩구는 부러진 버드나무가지 하나를 주어들더니 나를 얼핏 올려다 보았다. 그 녀자의 눈에는 그 어떤 서글픔과 녀성적인 아련함이 가득차있었소.

<난 운성이가 동무를 보지 못하고 떠나는줄 알았소.>

나의 말에 그 녀자는 눈길을 떨구며 상심한듯 중얼거렸소.

<저도 래일 전선으로 떠나게 될것 같아요. 군사동원부에서 그만 시간이...>

평화와 행복이 차넘치던 거리로 긴장한 얼굴들을 한 시민들이 완전무장 한 병사들이 급한 걸음으로 오가고있었소.

나는 한참 말없이 걷다가 그를 돌아보았소.

<미랑동무, 동무에게 이런 말을 하기 뭣하지만... 운성은 심장이 뜨거운 친구요. 그런 인간은... 변함이 없을거요.>

나는 진심으로 이 말을 했소.

<.....>

그 녀자는 나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며 아무말도 없었소.

다음날 나는 그를 전선으로 바랬고 또 며칠후에는 나도 총을 메고 군용열차에 올랐소...

내가 그 녀자를 다시 본것은, 아니 마지막으로 본것은 그때부터 몇해가 흐른, 전쟁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소...》

심진의 얼굴빛이 어두워지였다.

밖에서는 보슬비가 그냥 그칠줄 모르고 내렸다. 거리로 무궤도전차가 지나갈 때마다 전선줄에서 파란 불꽃이 튀겨나와 창문가에 언뜻언뜻 비끼군했다.

전선서부의 상공은 석양노을이 물든 해지기전의 하늘처럼 밤이건만 불그레한 화광이 어려있었다. 사단정찰참모로 갓 조동된 심진은 참모장으로부터 직접 임무를 받고 적구도시로 가고있었다. 사선을 헤쳐넘은 길이었다. 그는 적구도시에서 자기 사업을 끝마친 한 동지를 안내하여올데 대한 과업을 받았었다. 전선이 이동하는 간고한 나날 사단이 수행한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들에 이바지한 귀중한 동무라고 참모장은 강조하였었다.

심진은 다음날저녁 그 동지와의 상봉지점인 전선도시 장교구락부에 도착하였다. 천정이 낮은 방은 지독한 담배연기와 전장에서 지쳐버린 장교들의 몸에서 풍기는 역겨운 땀내로 숨가쁠 지경이었다. 귀가 떨어진 낡은 전측에서 흘러나오는 류행가에 섞여 술김에 부르는 어지러운 군가소리가 희뿌연 창유리결에 앉은 심진의 귀를 멍하게 만들었다.

카운다결 구석진곳에서 진밤빛 사복을 입은 얼굴이 거무스레한 사나이가 어개를 드러낸 검은 원피스를 입은 요염한 녀인과 마주앉아 시들어서 축늘어진 아마리리스화분 사이로 자주 심진을 주시하고있었다. 심진은 이상한 불안을 느끼며 조심스레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상봉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심진은 술에 젖어 누렇게 된 메뉴를 번지며 주위를 살폈다. 카운다쪽에서 함치르르한 검은 머리칼을 길게 드리운 탄력있는 녀자가 날씬한 팔로 쟁반을 쳐들고 총총히 식탁들 사이로 걸어오고있었다. 심진의 심장은 문득 고동을 멈추는것 같았다. 흰 얼굴, 맑고 커다란 수심을 띤듯한 눈매... 그는 다름아닌 한미랑이었다. 그 녀자의 봉긋한 가슴에는 약속된 흰비둘기 모양이 뿌로지가 부연 전등불빛을 받아 반짝이고있었다...

그날밤 늦어 심진은 도시의 서북쪽 바다로 흘러드는 강하류기슭에서 그 녀자를 기다렸다. 이윽고 전조등도 켜지 않은 군용찢차 한대가 그에게로 다가왔다.

운전칸에서 한미랑이 긴장한 눈길로 심진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심진동무, 어서 타세요. 놈들이 장교구락부에서부터 눈치를 쬔어요!》

심진은 진밤빛옷의 사나이를 생각하면서 급히 차

에 올랐다.

차창을 맞받아 싸늘한 강바람이 마구 불어왔다.

그들이 교외의 강기슭을 거슬러 얼마쯤 달렸을 때 뒤에서 추격하는 적들의 모터찌클이며 군용차들이 전조등불빛을 번뜩이며 달려들었다.

《미랑동무, 조금만 더 가면 숲이 나질거요.》

미랑은 심진의 말에 가속답판을 더세게 밟기 시작했다.

심진은 그 녀자가 넘겨주는 기관단총으로 뒤따르는 불빛들에 대고 몰사격을 퍼부었다.

추격은 검질겼다. 점점 거리가 좁혀졌다.

문득 옆에서 그 녀자가 심진에게 검은빛 가방을 넘겨주며 말했다.

《심진동무, 안되겠어요. 먼저 강을 건느세요!》

《무슨 소릴 하오!?》

《가방안엔 이 도시 해방을 위한 중요문건이 들어있어요. 이걸 조국이 저에게 준 마지막 명령이에요. 어서요!》

그 녀자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하였다.

《안되오! 그럼 동무가 먼저 건너가우!》

그러자 미랑은 반사경에 비쳐드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듯 입술을 감빨았다. 그 녀자의 머리카락이 마구 불어오는 강바람에 마구 흩날렸다.

짧은 순간 그 녀자의 눈에는 그 어떤 애룩한 감정과 승고한 빛이 얼핏 떠올랐다.

《심진동무, 전 정말... 좋은 감사품종을 만들어 고향땅을... 림운성동무에게 저의 이 마음을 전해 주세요...》

그 녀자는 무슨 말인가 더 하려다가 와락 심진을 옆으로 밀쳐버렸다.

심진은 달리는 차에서 길옆의 강물로 나가떨어졌다...

그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벌써 그 녀자가 탄 차도 추격하는 불빛의 흐름도 이미 지나간 뒤였다. 심진이 쓰러린 가슴을 안고 건너편 강기슭으로 헤여 갔을 때 멀리 산굽인돌이에서 자지러진 총소리에 뒤이어 폭파소리와 함께 총천하는 불기둥이 하늘을 태우며 치솟았다. 그는 불기둥을 중심으로 적들이 까맣게 물려들어 기총사격을 퍼붓고있었다. 심진은 머리를 싸쥐고 두눈을 감았다... 너무나도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서 그는 이 모든것을 현실로 믿을수 없었다. 무서운 진실이 그의 심장을 압박하였다...

그는 얼마후 그 녀자가 최후를 마친 그 운명적인 자리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불타버린 군용차들에서 매캐한, 이상한 냄새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었다.

(그 녀자가 죽다니... 그 맑은 눈동자, 그 별같은 인간이, 그 창창한 미래를 안은 처녀가 이 이름모를 강기슭에서 재가루로 날려버리다니... 아, 운성! 이

일을 어쩌면 종단말인가.?)

비릿한 물내를 풍기는 강바람이 사납게 불어와 강기슭의 험벗은 관목숲을 부어잡고 부르르 덜었다.

심진은 눈물을 머금은 시선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푸른 하늘에서는 무정한 별들이 쏟아질듯이 반짝이고있었다.

심진은 피로운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원탁우에 놓인 재털이에는 어느새 담배꽂초가 수북이 쌓이였다.

《그때의 나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소. 차라리 내가 그 녀자 대신으로 달려갔다면...얼마나 순진하고 아름다운 녀성이었겠소. 그를 생각하면 지금두 내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구만

전쟁이 끝난 다음 나는 모란봉 부벽루앞에서 림운성을 보았소. 제대군관복차림의 그가 부벽루절벽밑을 거닐며 한미랑을 기다리고있었소. 작가동무, 나 무뎠을 때 숨어서 차마 그의 곁으로 가지 못하고 피로운 가슴을 쥐어뜯으며 서있어야 했던 사나이의 심정을 생각해보우. 참, 세상에 그런 숙명적인 야속함이 어디 있겠소. 난 끝내 그의 곁으로 다가가지 못했소.

그날저녁에야 나는 림운성이 들어있는 제대군관숙소에서 그와 마주앉을수 있었지. 피로운 추억과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는 속에 한밤이 흘러갔소. 내가 전해주는 한미랑의 마지막 말을 듣던 림운성의 눈빛을 나는 지금도 잊을수 없소. 그 눈빛은 뭐라고 할가? 아픔, 아니 모든것을 잃은듯한 뼈아픈 실망과 무아경의 빛이라 할가.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는 창백해 지고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서리는것이였소. 아마 사람들에게서 심장을 불로 지져낸대도 그보다는 아프고 피로운 표정이 떠오르지 않으리라 고 나는 믿고싶소.

우리는 그 밤을 뜬눈으로 새웠지. 창밖이 푸름푸름 밝아오고 희끗희끗한 미명의 하늘아래 폐허로 되어버린 도시의 모습이 드러나자 림운성은 머리를 번쩍 들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소.

<심진, 미랑동무가 희생된 장소를 기억하고있을 테지?>

그의 목소리는 저즈기 부드럽고 침착하였소.

나는 침통한 낮빛으로 그를 마주보다가 눈길을 돌려버렸소.

<알고있지...>

<거길... 좀 대주게.>

<아니, 그건 왜?>

나는 저즈기 놀라 그를 다시 바라보았소. 그는 나의 눈길을 피함이 없이 조용히 대답했소.

<한번... 찾아 가보고싶어 그러네.>

<...?!>

이상할 정도로 그의 결심은 굳은것이였소. 나는 그러한 그의 결심을 말릴수 없다는것을 깨달았소.

어쩌면 그의 아픔을 더 크게 해줄 길이었으나 또한 피치 못할 길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소.

<언제 가려나?>

<오늘 곧.>

나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소.

<좋네. 정 소원이라면 나두 함께 가지. 난 고향으로 가던 길이었어. 대학으로 되돌아가려면 시간은 충분하니 좀 에둘러가지.>

림운성은 나의 제의에 반대하지 않았소.

우리는 그날 늦은 저녁 남행열차를 타고 출발하였소. 밤이 깊어 마감역인 항구도시에 도착했자. 아직도 가야 할 곳까지는 몇백리가 남아있었소. 더구나 그 쪽은 선해방지구였소. 돌아치다가 겨우 그 쪽으로 가는 화물선에 오를수 있었지. 밤바다는 울씨년스러웠소. 승객들을 잔뜩 태운 화물선은 기름내를 풍기면서 검푸른 서해바다를 느리게 달렸소.

림운성은 갑판우에 서서 밤바다를 말없이 바라보고있었소. 나는 그의 곁에 서서 가끔 우리열에서 손뽕금을 울리며 유쾌하며 떠드는 제대병사들의 웃음소리며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승객들을 단속하는 나이 지긋한 갑판장의 엄한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소.

<운성이, 아직 멀었는데 선실로 내려가 눈을 좀 붙이게.>

나는 림운성의 팔을 잡아끌었소. 그는 나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소.

<일없네. 어쩐지 저 바다를 바라보니 가슴이 펴 안정되는것 같구만.>

<...>

<자넨 이제 집에 들렀다가 대학으로 돌아갈테지?>

림운성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평온했소.

<응, 그런데 동문?>

나의 물음에 그는 희끄무레하게 트이는것 같은 밤바다 멀리 수평선쪽을 바라보았소.

그는 더는 아무말도 없이 해풍이 불어치는 갑판우를 천천히 오가기 시작했소.

불쑥 견장을 떼 군대שמ옷을 걸치고 얼굴에 먼도 자리가 푸릿한, 나이 지긋한 갑판장이 담배불을 병긋거리며 내 곁으로 다가왔소.

<임자들은 왜 선실로 내려가지 않나?>

그는 갑판에서 서성거리는 림운성을 아니꼽게 흘깃 바라보았소.

<갑판장아바이, 저 친구를 그냥 뉘주십시오...>

나는 더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소.

갑판장은 내 말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곁에 있는 바줄통구리에 엉겨주춤 걸터앉아 담배를 빼금빼금 빨았소. 그는 성냥을 찾느라 주머니를 뒤적거리

는 나에게 목직한 구식라이트를 선뜻 넘겨주었소.

<그래 임자들은 어딜 가나?>

나는 어쩐지 걸보기와는 달리 텅텅하게 느껴지는 그에게 마음이 끌려 함께 갑판에 마주앉았소.

<전쟁시기 함께 싸운 한 전우가 운명한곳을 찾아 갑니다.>

그러자 갑판장은 기침을 클럭클럭하며 림운성쪽을 던지시 바라보았소,

<어디서들 오나?>

<평양에서 떠났습니다.>

<음, 먼길을 오누만.> 하고 갑판장은 한결 누그러진 눈길로 나를 스쳐보더니 말을 이었소. <참 끝날같은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갔소... 난 전쟁기간 이배를 탔는데 우리 선장두 전선수송을 하다 잘못됐소. 전쟁이 끝났는데 이젠 고향 어촌으로 돌아가 고기배를 다시 탈 마음이 들지만 선장동무 생각이 나서 이배를 내리지 못하우... 여보게, 젊은이, 그들을 잊어서는 안되우. 난 전쟁전에 가까운 친구를 산에 묻으면서 새로 신은 신발에 진흙이 묻을가봐 흘끔흘끔 땅을 내려다보며 추도문을 읽던 사람들도 본일이 있소... 참, 이렇게 무슨 피가 뛰는 인간이겠소... 죽은 사람들은 아마 그가 살았던 생활루 우리와 굳게 이어져있을게요...>

갑판장의 말은 나의 가슴을 울려주더군, 곁에서 천천히 갑판을 오가던 림운성도 그 말을 유심히 듣는것 같았소...

멀리 잊을수 없는 도시의 재빛 룡박이 미명의 하늘아래 우렷이 드러나기 시작했소.

화물선이 항에 정박하자 그 나이 지긋한 갑판장은 부두까지 따라내려왔소.

<배가 저녁쯤 떠날것 같으니 일을 본후 찾아오우. 기다리겠소.>

나는 진정이 담긴 갑판장의 손을 으스스리게 틀어쥐었소.

<아바이, 고맙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선량하고도 친근한 그 어떤 믿음과 감동의 빛이 어려있었소.

얼마후 림운성과 나는 도시를 꿰지르는 강줄기를 따라 한참 올라가다가 그 녀자가 희생된 장소에 도착했소. 그 몇달사이 벌써 풀이 무성하여 그날의 싸움의 흔적을 가리우고있더군.

림운성은 불타버린 재무지앞에 오래도록 서서 묵상하고있었소.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내 가슴은 쓰렸소. 그 순간 그가 무엇을 생각했겠소. 즐거웠던 시절, 잊을수 없는 나날, 봄종달이처럼 다정하고 아름다웠던 그 녀자, 그의 앓는 가슴에 별처럼 새겨진 그 눈동자, 조국을 위해 가을비 뿌리는 들길로 달려가던 모습, 전쟁이 끝난 다음 정든땅에서 다시 만나자고 웨치며

달리는 군용렬차를 따라 들쭉날쭉 흔들던 그 모습
... 아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순결한 자기의 마음을
전해 달라던 그 목소리를 생각했을거요. 그게 어떤
추억였겠소. 지워버릴수 없는 부상자리와도 같은것
일는지...

림운성은 문득 그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니
파편과 재무지를 헤집고 흙을 두손으로 그러쥐었소.
그는 손수건을 꺼내어 그 흙을 조심스레 싸쥐고 자
리에서 일어섰소.

그 흙! 그 너자의 넉과 피가 스민 그 흙 한줌! 그
흙을 부여 전 림운성의 손은 떨렸소.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아팠소. 저러났소... 이
틀후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소...》

심진박사 이야기를 끝마친듯 자리에서 일어나 밖
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때 이르게 굵어진 봄비가 억수로 퍼부
으며 흐린 밤하늘을 질은 어둠속에 묻히게 했다.

락수물소리가 나의 심장을 서늘하게 하며 주룩주
룩 불안스레 들려왔다.

나는 그의 다음말을 기다렸으나 심진은 오래도록
침묵하였다. 나의 눈앞에는 전우의 피가 스민땅에서
한줌의 흙을 손에 쥐고 비분강개한 눈빛을 번뜩이며
서있는 림운성의 모습이 련상되었다.

그 흙이 그 어떤 흙이었겠는가. 평화로운 나날에
는 그 흙의 무게를 실직한 어깨의 힘으로도 지탱할
수 없어 털어버렸던 림운성... 과연 그때 그는 그 한
줌의 흙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느꼈는가?...

《작가동무, 그후 림운성은 교정으로 돌아오지 않
았소. 기다리고 또 알아보았으나 소식한장 보내지
않은채 종적을 감추었소. 전쟁이 끝난후 몇해가 흐
르도록 소식을 모르던 그를 내가 다시 만난것은 십
년세월이 흐른 뒤였소. 어느날, 과학원 문헌조사실
에서 그를 보는 순간 나는 반가왔다기보다 분격이
먼저 치밀었소. 변했더군. 나두 변했지만 그에게서
전쟁전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소.

사색깊은 눈매, 다소 구부정한 허리, 관꼴이 두드
러졌으나 철빛이 도는 역센 얼굴... 그 눈만이 예나
다름없이 인정깊게 빛나고있더군.

이외에도 나를 보는 그의 눈길은 온화하고 침착했
소.

열렬한 상봉의 흥분이 지나가자 다음 순간 그 어
떤 서글픔이 나의 가슴은 침습했소.

나는 어리둥절하면서도 격동된 마음으로 그를 따
라 거리로 나왔소.

우리는 대동강반을 따라 걸었소.

<운성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응? 그렇게
두 소식 한장 없다니! 동물 얼마나 찾았는지 아나?
자네 친구들이 그렇게두 안중에 없나? 대체 지금 어
디서 무엇을 하나?>

나는 그의 어깨를 와락 부둥켜안으며 거칠게 물었
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나의 손을 잡더군.

<용서하게, 심진, 난 아직 조국이 바라는 탐구의
종착점에 도달하지 못했네... 자네 소식은 언제나 듣
고있었네. 사실 그게 힘이 되더군. 난... 북방의 채종
농장에서 일하고있지.>

<그럼 전공을 바꾸었다말인가?>

나는 아연해져서 그에게서 물러났소.

<자네 아마 날 보고 웃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내 심장이 가리킨 길이었네. 난... 미량동무
가 흘린 피를 헹고이 하고싶지 않았네. 그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던 꿈을 실현시켜 주고싶었네. 그래서
채종농장에서 감자연구를 하며 그 사이 농업대학 연
구원두 나왔지...>

그의 말을 듣는 나의 심장은 터질듯이 쿵쿵 뛰었
소. 그러니 그는 지금까지 그 너자의 꿈을 지켜 탐구
의 먼길을 걸어왔단말인가? 지독한 인간... 나의 눈
앞에는 바람세찬 화물선의 갑판우에서 망연히 바다
를 바라보던 그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찢르르
해왔소.

<날 모질다고 탓하지 말아주게. 어쨌든 인간은 심
장이 하나가 아니겠나. 사람에게 조국이 하나이고
고향과 어머니가 하나이듯이 심장도 분명 하나일걸
세. 내 심장속엔 그 인간이 살고있었네. 전우의 귀중
한 모습을 지워버릴수 없었네...>

솔직히 말해서 난 그때 자네와 헤어진후 대학통신
때문에 평양에 올라온적이 있었네. 자네를 찾아갔었
지. 그날은 자네가 첫 문론을 발표하는 날이더군. 나
는 질어가는 어둠속에서 불빛이 흘러나오는 론문번
론장 창가를 올려다보았네.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속
에 자네의 변론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더군. 자네는
떠나간 전우들의 몫까지 합쳐, 교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학우들의 념원을 꽃피워 사랑하는 이 땅에 강
철숲을 일떠세우겠다고 말하더군. 대학강당앞의 은
행나무밑에 서서 그 불같은 목소리를 들었네. 들어
가보고싶었으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 자네앞에
그리고 떠나간 전우들앞에 내가 아직은 면목이 없음
을 느꼈네. 그 순간 자네는 나에게 힘을, 격려를 주
었네. 자네의 빛나는 첫 탐구의 열매와 자랑찬 목소
리는 간고한 그 시기에 나를 떠미는 힘이었네.

나는 그길로 구역체신소에 들려 자네에게 짤막한
전보를 날리고 역으로 향했지. 내 기억이 틀림없다
면 내용인즉 이러했을거야.

《심진, 고맙네. 전우들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길
을 가고있네!》

그날 밤, 나는 북행렬차에 오르면서 마음을 굳혔
네.

(그렇다. 청춘시절의 사랑은 한순간이여도 그 너

자가 생명을 바친 거대한 어머니 조국에 대한 사랑은 영원할것이다. 귀중한 전우가 그토록 바라던 아름다운 꿈을 북방의 고향땅에 실현하자.

이것은 당이 부르는 길이며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다. 그 길에서 나의 운명과 삶의 가치와 인생의 행복을 찾으리라. 이것이 나의 사랑이며 조국애이다!...

심진, 이렇게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행복했고 떴했네.

그 심정을 안고 지금까지 스스로 들어선 이 강행군길을 걸고있네.>

림운성의 말을 듣는 나의 가슴은 목구멍으로 불덩어리라도 삼킨듯 핫핫 달아올랐다.

우리는 천천히 대동강기슭을 걸었소.

<어쨌든.>하고 나는 한참만에 침묵을 깨뜨렸소. <자네 너무하구만. 우리가 떠나간 전우들을 잊지 않는다는게 자네처럼 사는걸 의미할까? 자네가 금속공학을 계속 연구한다고 누가 그걸 비난하겠나?...>

림운성은 나의 말에 오래동안 아무 대답없이 걸음을 옮기더니 이윽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아니 옳을수도 있네. 그러나 내 심장은 나의 의지를 꺾어버렸네. 과연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고 행복이란 무엇이겠나?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불행하게도, 피박하게도 보일수 있지. 그러나 떨치고 누리는것만이 행복이겠나? 간직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면, 청춘이 흘러 백발이 되어도 행복할걸세. 난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전우의 그 소중한 조국애를 빛내주고싶었네. 그것이 또한 당이 바라는 길이고 내 량심에 떳떳한 길이라는것을 나는 지금도 굳게 믿고 있네.>

그의 말은 나에게 긴 여운을 남겼소.

나는 자기를, 함께 불비내리는 전선길을 걸으며 생사를 같이한 전우들앞에 떳떳하다고 자부했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덧 중년기에 들어서서는 안식과 평온만을 바라는 인간이 된것 같거든. 우리의 강행군길은 결코 끝난것이 아니지...

림운성은 그렇게 자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यो. 그는 얼마전에 새 감자품종연구에서 일정한 진

진을 보았소.

중간시험분석자료를 가지고 과학원에 올라왔던 그를 나는 오늘 만났었지.

이번에는 집에 꼭 들러 하루밤 묵어 가라고 그렇게도 간곡히 청했건만 그는 부득부득 우기며 기어이 저녁차로 떠나야 한다는거였소.

역홈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던 말이 귀에 생생하오.

<...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네. 어쨌면 오늘래일 감자꽃이 필지도 모르겠네. 마지막실험을 해야겠어. 래일새벽엔 꼭 도착해야 해. 참, 여보게, 방학때 아이들이랑 우리 시골에 보내주게. 아름다운 고장일세. 우리 집에서 다들 반가와 할거야. 마을 사람들도 순박하고 진실한 사람들일세. 자네도 한번 와서 우리 리당비서랑 만나보게. 철탑을 받들고있는 고임돌처럼 믿음성있는 사람들을 사귀게 될걸세...>

심진박사는 원탁우에 놓인 차잔을 들어 단숨에 쪽들이켰다.

나는 창가로 다가갔다. 열어젖혔다.

비는 조금 멎었는지 다시 가는 보슬비가 부드러운 바람결에 밀려와 내 얼굴을 가볍게 밀려와 내 얼굴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나는 불빛 환한 도시의 서북쪽, 림운성이 떠나간 먼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다.

아직은 그 어디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느덧 인생말년에 달한 그 평범하고 순박한 인간, 이 순간도 청춘시절의 그 심정으로 귀중한 전우의 희망우에 자기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름다운 리상의 억센 싹을 키워나가고있는 사람. 그가 성공할수 있을까? 언젠가는 기어이 령마루에 올라설것이며 그의 순결한 량심과 진심이 열매를 맺을것이다. 아니, 그는 성공하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나 일생을 그렇게 말없이 사랑하는 이 땅을 지켜 먼저 걸어간 귀중한 전우들의 뒤편까지 합치여 우리 당과 어머니조국을 받들어 가는 그 운명의 길에서 그의 심장은 영원히 하나로서 변함이 없으리라.

내 삶의 영원한 시절

김 일 규

다감한 청춘기에
이 몸에 폭 배인 습관이던가.
돌격대의 명단에서 내 이름 부를 때
나도 몰래 발꿈치 소리나게 붙이며
명령받던 병사시절 그 마음인듯
오돌찬 대답속에 울렁이는것은...

이마에 돌힌 소금버캐 흠치며
내 땀은 언제우에 걸터앉노라면
대양을 타고앉은 기쁨속에
병사시절 그날처럼 고지를 타고있던
그런 날의 환희로 이 가슴 설레이는것은...

따로 깊이 생각은 안해도
위훈의 나날속에 물결쳐오더라
이 가슴에 이 가슴에
벅찬 투쟁속에 삶의 기쁨 맛보는
한생 변함없을 생의 닳을 울린
병사시절이

행복을 의무로 받아안고
사랑을 운명처럼 지니고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라난 이 몸
나를 키운 그 사랑 그 행복
이 땅의 그 모든것 위해
이 한몸 바쳐서도 받들어야 함을
이 가슴에 지녀준 병사시절이여

한 시절에 있다가 변하는것이라
땀젖은 군복 언땅에 맞비비며
이 땅 흙 한줌 시내물 한줄기도
내 살결처럼 피줄거럼 간직한것이
한생 조국 위해 정보로 갈
총대처럼 곧은 자세 익혀온 그 걸음이
세월의 흐름속에 변하는것이라

내 오늘날
언제우에 다지는 이 한줌 타임물도
전호턱에 다치던 그 흙갈아
다시금 다지고다치고
날바다를 가르며 부채를 쌓노라면

돌격선을 달리던 그날의 마음인듯
한구간한구간 흘리는 땀방울
그렇듯 값있게 바치는것이

못잊을 인연속에 느끼는것이던가
아이적 버릇 여든 간다고
피뿜는 청춘기에 새기고새긴
삶의 참된 진리 한시절에 버리랴
독살앓은 손바닥 침발라 비비며
달려갈 진격로, 수평선 바라보면
자꾸만 자꾸만 총전 시절처럼
마음의 신들메 조이고조이는것은
아마도 병사시절 몸에 익은 습관인지

군복입은 그 시절
총맨 어깨너머 비껴오던 그 푸른 하늘
초소의 밤 그러안던 그 참호뒤에
이 몸 바쳐 지켜야 할 조국이 있어
눈비속에도 식지 않던 이 가슴
머리에 서리내려앉은들 식으랴

한시절의 자서전을 밤으로 새겼다고
그것으로 한생 자신을 위안하랴
창조의 열정속에 투쟁하는 행복
위훈으로 영생하는 생의 보람은
끝없는 내 삶의 전부이여니

조국앞에
우리 당앞에
땀뿜이 사는 보람 습관처럼 익혀준
나의 병사시절이여
너는 정녕 생의 한시기에 보내고
추억으로만 돌이켜 자랑스러운
그런 시절 아나구나

이미 흘러간 그 시절은
흘러간 먼먼 생의 나날에
조국에 바치는 창조의 끝없는 열정으로
당에 대한 의리의 영원한 시절속에
투쟁속에 위훈으로 나를 떠미는
내 삶의 영원한 시절이여라

삶의 위치

강 귀 미

그림 주 용 일

조국방문단 성원들을 태운 렬차는 평양으로 달리고있었다.

민족의 녀를 잃지 않으려는 속마음이 엿보이는 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온 차칸에 가득찼다.

큼직한 국화꽃이며 연분홍 진달래꽃을 수놓은 천으로 정성스레 조선치마저고리를 지어입은 녀인들의 설레는 모습...

그중에서도 흰꽃이 다문다문 수놓아진 곤색비로도 치마저고리를 입은 순미의 생기있는 얼굴이 눈에 뜨인다.

렬차는 씩없이 가고있었다.

누군가 부드럽고 정성깊은 노래를 조용히 불렀다. 창가에 앉은 순미는 꼼짝않고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조국이 그리울 때마다 간절히 불러보던 선물이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일본땅에서는 것처럼 절절하게 들리고 때로 눈물도 어리게 하던 노래가 오늘은 왜 저리 명랑하고 밝게만 안겨오는것일까.

차창에 비껴 지나는 수려한 산천이며 구름같은 흰 연기를 내뿜는 공장굴뚝들, 트락또르 달리는 풍요한 전야의 여러가지 음향과 감각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주었다.

모든것이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조국이다.

순미는 10 년전에 귀국한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다.

화보와 신문, 영화를 통해서만 본 조국, 지금 그 조국땅, 어머니가 기다리고있는곳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조국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언니는 귀국해서 평생소원이 풀렸다니까요.》

옆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시마네현 심심산골의 비천한 집에서 태어난 솟구이로 처녀시절을 보냈다는 덕실의 목소리였다.

《언니와 나는 언제나 가마니에 솟을 담뎀했지요. 손이며 얼굴에 온통 검댕이칠을 하고있었구요.》

그러던 언니가 귀국하여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답니다.

흰 위생복을 입은 언니 사진을 받아본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해서 <검댕이 천사>라 불리우던 녀희언니가 <하얀 천사>가 됐구나 하며 사진을 놓지 못했

어요.》

순미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인생의 비극같은것은 웃음으로 날려버릴듯 명랑하고 몸도 뚱뚱한 덕실은 저고리웃고름에 익숙되지 않아선지 말을 하다가도 이따금 거기에 손이 간다.

맞은편에 앉은 경상도 밀양아바이가 머리를 끄덕이며 장단을 맞추었다.

《우리 둘째녀석도 흠씩 발전을 했습니더. 공부를 해보겠느라 3 년석달 우유배달로 눈물을 짜디만 조국에 와서 쇠돌박사가 됐고...》

조국에 와서 달라진 가족친척들, 친지들에 대한 이야기는 자리마다에서 번지고있었다.

순미는 문득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그려보았다. 꽃밭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 떠올랐다.

뒤켠에 앉은 청년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도간 도간 순미의 귀에 들려왔다.

《뭘 도로청소부?... 설마... 귀국해서까지 부디 그런 일을 끌라하는 사람이 있을라구.》

《자, 이것 보라구. 오늘 신문이네 사진까지 나와있네.》

《참 한평생 도로청소부라! 무엇인가 깊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인생철학이 있네.》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있던 순미는 갑자기 얼굴이 해쓱해 지더니 얼굴을 창가로 돌렸다. 더말을 듣지 않으려고 창밖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무엇이 가는지, 산인지 논밭인지 나무들인지 가릴수 없었다.

도로청소부, 도로청소부...

뇌리에는 그 말만이 자꾸 되풀이되였다.

순간 순미는 머리깃이 일어서는것 같고 가슴까지 서늘해지는 감을 느꼈다.

귀전에서 썩 썩-하는 비자루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아득히 먼곳에서부터 점점 가까와왔다. 모든것이 안개속에 잠긴 우중충한 골목에 울려퍼지는 비자루소리.

순미는 얼어드는 가슴을 꼭 껴안고 눈을 스크르 감았다.

어느 자그마한 산간역에 머물렀던 렬차는 다시 달렸고 날은 저물어갔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무겁고 둔중한 차바퀴소리에 가슴만이 더 답답해졌다.

고르러운 동음은 그를 과거에로 과거에로 떠밀었

다.

눈앞에 흰수건을 눈언저리에까지 깊숙이 내려쓴 어머니의 모습이 밟혀오고 자기의 어린시절 가지가지 일들이 눈앞에 내달려왔다.

순미의 어린시절은 낮에도 해가 잘 비치지 않는 이국땅 고베시의 어느 골목에서 흘러갔다.

밤마다 어머니는 그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소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자랐다.

웬일인지 엄마별은 어디가고
애기별만 혼자서 울고있어요

어머니의 노래는 늘 문물에 젖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철이 들면서 알았다. 그리고 노래가 끊어지면 어머니가 어디론가 가버린다는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소녀는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며 자기를 잠재울 때마다 불안해져서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있곤했다. 하지만 전기불이 없는 습기찬 어두운 부엌쪽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재록재록 들려올 때면 졸음을 이기지 못해 굳잠이 들어버린다.

그날도 바로 그렇게 되어버린 날이었다.

새벽에 깨난 순미는 눈을 비비며 엄마를 찾았으나 없었다. 잠자리를 차고 일어나 손때묻은 피창문에서 보이는 쪼박 하늘에는 애기별이 깜박거렸다. 자기를 두고 가버린 어머니가 야속하였다.

우리 엄마는 어디로 갔을가.

슬픈 마음은 해가 뜨자 날아나버렸다. 소녀는 집 모퉁이의 풀이 무성한 공지에서 마을애들과 뛰놀았다. 다른 애가 안고온 인형아기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잡초속에 다문다문 피어있는 삼색제비꽃을 머리에 꽂고 《각시》가 되기도 했다.

해가 저물어지자 또 엄마 생각이 났다.

같이 놀던 아이들은 모두 엄마들이 찾아 집으로 가버렸다.

우리 엄마는 왜 안올가.

소녀는 기울어져 가는 《하모니카집》 맨끝채인 자기 집 문앞에 오도카니 앉아있었다.

신작로쪽으로 자주 머리를 기웃거렸다. 돌개바람이 길바닥에 흩어진 종이장과 검부레기들을 락엽처럼 말아올리며 불어 왔다.

एं거주춤 일어난 소녀의 물날은 치마가 바람에 팔락거렸다. 발자국소리가 나서 신작로쪽에 눈길을 돌렸다.

외동이 매달린 전주대밑에 눈익은 어머니의 흰머리수건이 나타나는가 했더니 제포래 처녀애 몇이 몰려오고있었다. 아직 날이 채 어두어지지 않아 멀리서도 그들이 자기 동네아이들이 아니고 부자촌애들

이라는것이 알렸다. 모두 무던히도 조잘거렸다.

그들중 빨간 구두를 신은 애가 순미를 유심히 보더니 소리쳤다.

《애들아, 거지아이 봐라. 엄마가 쓰레기를 모은단다. 도로청소부야!》

《오, 도로청소부의 딸, 거지의 딸!...》

순미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저 애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있을가.

어린 그의 눈에는 자기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빨간 구두만 눈에 비쳐들었다. 나비가 달린 구두구나. 참 끔기도 해라.

《너 엄마 보고 쓸라고 하렴.》

빨간구두 신은 애가 바나나껍질을 던졌다. 다른 애들도 따라서 제가끔 껍질이며 사탕종이를 내버리고 간 다음에야 그는 얼굴을 들었다.

왜 저희가 먹고서는 우리 엄마보고 껍질을 쓸라고 할가. 저 애들은 여기에 버리고 우리 엄마는 쓸어야 하나?...

참으로 이상스러웠다.

도로청소부라는것은 또 무슨 말일가. 리해할수 없는 슬픔을 품은채 공지쪽을 바라보았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아이들이 제세상처럼 뛰놀더니만 어느새 버림받은 땅처럼 호젓해진 공지에는 어스름이 깃들어가고 있었다.

빈민굴의 찌그러진 창마다에 비치는 얼룩얼룩한 불빛이 공지에 내려앉았다. 그 불빛에 멧없이 자란 잡초들은 보여도 앓은땀이 삼색제비꽃은 보이지 않았다.

이끼끼 도랑가에서 우는 풀벌레가 그의 마음을 더욱 서글프게 했다.

그는 외로웠다. 그리고 무서웠다.

엄마는 언제 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에 애기별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별을 보느라니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구절이 생각났다.

웬일인지 엄마별은 어디 가고

애기별만 혼자서 울고있요

소녀는 어린 마음에 애기별도 자기같아서 눈물이 글썽해졌다.

(애기별아, 너와 나는 어찌면 같으냐. 너도 엄마가 없느냐? 나도 홀로 있어 나는 왜 홀로? 너는 왜 홀로?...)

가슴에 까닭모를 애수가 젖어들었다.

순미는 그때 7 살이었다.

13살 나던 해 봄.
 원족을 앞둔 어느날 순미는 일갓다온 어머니앞에서 줄라댔다.
 《엄마, 나 래일모래 원족가요. 신발을 사줘요.》
 《그래.》
 어머니의 낯색을 살펴보던 딸은 또 한마디 덧붙었다.
 《어머니, 빨간 신발...》
 모녀가 저녁을 치르고난 뒤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다.
 《부엌에 나가 망치를 가져오너라.》
 딸은 의아해 어머니를 말끄러미 쳐다보다가 시키는대로 일어섰다.
 어디에서 꺼냈는지 어머니의 손에는 빨간 우편통 모양의 사기저금통이 쥐여져있었다.
 가난한 집 애들이 한일의 용돈도 아껴 아구리에 넣으면 다시는 꺼낼수가 없어 억지로 한일두일 모아지는 눈물겨운 통이다.
 딸은 저금통을 들어보았다. 목직했다.
 《야, 많이 들어있네. 엄마 많이 모았구나.》
 딸은 환성을 울리며 서슴없이 저금통을 내리갔다.
 박살난 조각들과 함께 동전들이 다다미바닥에 와르르 흩어졌다.
 딸은 입을 다물지 못한채 동전들을 한줌 쥐어서는 소낙비처럼 방바닥에 쏟아부었다.
 동전들이 데굴데굴 굴러 사방에 달아났다.
 어머니의 얼굴에도 보일락말락 웃음이 어렸다.
 철없는 장난을 나무라지 않았다.
 《하나, 둘, 셋...》
 딸은 기쁨에 넘쳐 소리내어 돈을 세기 시작했다.
 웬일인지 딸이 신이 날수록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갔다.
 10원짜리 동전 한일이면 방 한조각...
 딸은 돈있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몰래 점심 한끼, 두끼 번진 회수를 세고있었다.
 《엄마, 합해서 천사백오십원이야요.》
 어머니를 올려다본 딸은 회색이 만면했다.
 서글프게 웃는 어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있었다.
 딸은 그것을 얼핏 보았지만 기쁨에 겨운 나머지 그것이 웬 눈물인지 생각할수 없었고 생각하기엔 아직 나이 어렸다.
 다음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저녁녘 온몸이 폭젖은 어머니는 구두가 들어있는 함을 안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옷 갈아입을념도 않고 딸을 보자 함을 열어제끼고 구두부터 그에게 신겨보았다.
 순미가 난생처음 신어보는 구두였다.

딸은 어쩔줄 몰라했다. 신발을 신은채 방안을 왔다갔다했다.
 《어머니 좋아요?》
 딸을 보고 어머니가 빙긋이 웃었다.
 《종구말구.》
 《아끼꼬와 같은 구두야요!》
 그는 자기를 보고 돌려주던 아끼꼬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였다. 이제 나도 너와 같은 구두를 신었어. 다신 우리 엄마보고 바나나껍질을 쓸라고 하면서 우쭐대지 말어.
 래일 자기 신을 보고 깜짝 놀라 비실비실 피해 갈 아끼꼬를 생각하면서 순미는 벌써부터 의기양양해졌다.
 젖은 옷을 벗던 어머니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허구쁜 웃음을 지었다. 다음날아침이었다. 그의 마음을 알아선지 밤새 내리던 굵은비도 언젠가 그치고 하늘은 맑게 개였다.
 순미는 토방에 앉아 흙 한번 묻히지 않은 반짝반짝한 구두를 다시 마른 걸레로 정성스레 닦아신고 문턱을 나섰다.
 따각, 따각...
 아스팔트길에 들어서니 구두소리는 더욱 경쾌하게 울렸다. 순미는 마음이 유쾌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구두만 보는것 같았다.
 소녀는 이윽고 미루나무가 늘어선 큰길로 접어들었다. 늘 다니는 소로길로는 학교까지 15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소녀는 그 길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통로로 가고있었다.
 웬 까닭인지 어머니가 이 길로는 절대로 다니지 말라고 당부하였지만...
 춤추듯이 걸어갔다. 미루나무잎들도 그의 빨간 새신이 곱다고 사랑살랑 거렸다.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가 순미는 주춤거렸다. 멀리 앞쪽에서 낯익은 흰수건을 본것이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딸을 보지 못하고 웅덩이의 물을 사방에 뿌려엿애느라고 비자루질만 했다.
 그앞으로 두 신사가 양복저고리를 어깨에 걸치고 가까이에 걸어가고있었다.
 딸은 반가와 어머니에게 딱 달려갔다.
 그런데 소리쳐 부르려던 순미의 목소리는 갑자기 잦아들고 말았다. 그리도 좋아서 나풀나풀거리던 걸음도 더 나가지 않았다. 자꾸만 미루나무위에 몸이 더 깊이 감추었다. 보지 말아야 할것을 본것이다!
 《여, 도로청소부! 눈깔이 멀었나?》
 흔들흔들 걸어가던 패들중 어떤자가 바지가랭이에 튕 한방울의 흙물을 두고 고래고래 소리치는것이

였다.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떠듬거리며 공손히 사죄했다.

그러나 높은 수그러들지 않고 채 피우지 않은 담배를 어머니의 발치에 내던지며 쏘아붙였다.

《잔말 말고 깨끗이 닦아!》

어머니는 와들와들 몸을 떨며 연신 몸을 앞으로 굽혔다.

옆에 섰던 다른 노뎡이가 부채질을 했다.

《도로청소부치고는 지나치게 고운걸. <재빛인생>에 미인이라...》

《흥, 미인이니까 못닦겠단말이지.》

높은 순식간에 어머니가 들고있던 비자루를 뺏어 멀찌감치에 가서는 어머니를 향해 휙 집어던졌다.

흙탕물이 어머니의 얼굴과 몸에 튀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어머니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은 조선말 억양이 진한 일본말이였다.

힐끔힐끔 돌아다보던 노뎡이들이 내뿔었다.

《조선인이구나.》

어머니는 머리수건을 벗어 얼굴과 옷에 묻은 흙물을 문지른 뒤 다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길을 쓸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 도로청소부, 도로청소부란 바로 저런 것이었구나...)

순미는 숨을 죽이고 이 모든것을 보았다. 한걸음도 어머니에게 다가갈수 없었다. 비자루 소리가 가슴을 허렸다.

딸을 돌아섰다. 그리고 발자국소리를 죽여 가며 어머니를 피해 달아났다,

멀리, 더 멀리... 비자루 소리가 들리지 않고 어머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러나 어머니는 계속 보였다. 비자루 소리도 더 세게 울려왔다.

눈물에 젖은 《자장가》... 처음으로 알게 된 도로청소부... 저금통... 돈을 셀 때 눈귀에 맺혔던 이슬... 비오는 날에 안고 온 빨간 구두... 이 길을 한사코 오지 못하게 하던 어머니...

어머니의 모습은 계속 뒤쫓아왔다.

따각따각-

구두소리가 지못게 따라왔다.

빨간구두만 신으면 청소부 딸이라는 모욕을 받지 않으리라던 환상을 여지없이 짓밟히면서...

방금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을 그렇게도 사로잡던 봄원족의 기쁨을 가뭇없이 잊은채 그는 달렸다.

큰길을 피해 지름길로 정신없이 걸었다. 집근처에 있는 공지에 이르자 가운데에 막혀있는 바위돌에 펴

씩 주저앉았다.

봄기운을 안고 제멋대로 푸르러 가는 공지의 여기저기에 한창이던 앓은뱅이 삼색제비꽃은 웬일인지 이리저리 쓰러져있고 군데군데 검은 색말뚝만이 우뚝우뚝 서있는것이 보였다.

(말뚝! 여기에 땅임자가 무슨 독한 연기가 나는 공장을 세운다 하더니...)

순미는 일어나 걸었다. 몇발자국 가다가 그는 자기를 올려다보는 시들어진 삼색제비꽃송이를 보았다.

너는 이제 어디에서 피어나...

그날 그는 빈방에서 종인 울었다. 밖이 어둑어둑해진것도 몰랐다.

아이들이 한 구들 되는 옆집에서 물이 지난 정어리 굽는 냄새가 코를 찌를 때에야 얼굴을 들었다.

그 평온하게 느껴지던 생활의 냄새조차 구는 싫어졌다.

정신을 가다듬고 불을 켜다. 어머니가 돌아올 시간이 된것이다.

밖에서 귀에 역은 어머니의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왔을 때는 형클어졌던 머리까지 단정히 빗은 뒤였다.

그 아픈 수모를 받고오는 불쌍한 어머니, 혼자 남몰래 울었을지도 모를 어머니, 위로하고만 싶은 마음이였다.

자기도 슬프지만 어머니는 더 슬펐을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위로해야 한다는것을 순미는 어린 마음에 도 생각했다.

그러나 문이 열린 순간 딸은 놀랐다. 축수낮은 불빛아래 나타난 어머니의 얼굴은 뜻밖에 평온하였고 화기마저 어려있는것이였다.

《그래 잘 놀고왔니? 무슨 놀음들을 했니?》

《.....》

《네 구두를 보고 모두 놀라게 앓더냐?》

여느때는 향이 없던 어머니다.

딸은 울먹거렸다.

(엄마는 가슴아프지도 않아요. 뭐가 그리 좋아서...)

방금까지만 하여도 어머니를 위하여 흐르던 눈물마저 깨끗이 닦고 그 분한 마음을 달래이던 자기자신이 어리석게 여겨지면서 어머니에 대한 빈 발이 솟았다.

《어머니, 난 원족 안갔어요! 다 봤어요! 봤어요, 큰길가에서...》

참았던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왔다.

어머니는 문턱에 걸터앉아 흙물은 지하족끝만 내리다 보고있었다. 이윽고 딸쪽으로 몸을 돌렸다.

종이장처럼 창백해 진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다. 우느니보다 더 피로와하는 마음이 적힌 얼굴이었다. 도저히 표현할길 없는 분노와 피로움으로 어머니의 가슴이 갈갈이 찢기고있었다.

어머니는 딸이 아까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흙물은 구두를 깨끗이 닦아 토방우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순미는 그만 어머니의 가슴에 안겼다. 파고들며 간절히 빌었다.

《어머니 이 산발을 안신겠어요. 이제 청소부를 그만두세요. 제발그만두세요. 네, 어머니!》

어머니의 눈에 고통스러운 체념이랄지 폐부를 찌르는 쓰라림이랄지 분간할수 없는 빛이 어리었다.

《그래 그만두겠다.》

《정말요?》

《응, 정말이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눈빛은 더 흐려졌다. 그 약속을 결코 지킬수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다음날 안도감에 잠겨 잠들었던 딸이 깨나 보니 어머니는 없었다. 벽에 걸렸던 머리수건도 지하죽도 없었다.

딸하고는 아무런 약속도 없었던듯 예전과 같이 생존을 위한 일을 떠난것이었다.

순미는 기울어져 가는 집기둥에 기대여 움썹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찾지도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자기로서 아직 리해할수 없으나 어쩔수 없는 운명의 법칙이 어머니를 그길로 또 떠나게 하였음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던것이다.

멍하니 앉아있는 순미의 눈에 어제밤 어머니가 반들반들하게 닦아 토방우에 올려놓던 빨간 구두가 흐릿하게 안겨왔다.

《이것이 내 신발인가, 청소부딸의 신...》

그는 마음속으로 서글프게 속삭였다.

얼없이 바라보고있노라니 불현듯 허리를 구부정하고 길을 쓰는 어머니의 어두운 모습이 반들거리는 구두우에 나타나더니 눈앞에는 도로청소부의 딸이라고 것처럼 자기를 아프게 짓궂어주던 아끼꼬의 경멸에 찬 얼굴이 떠올랐다.

빨간구두, 그것만 신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아끼꼬와 같은 위치에서 보아줄줄 알았고 아끼꼬가 다시는 자기를 숱보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도 어리석었음을 순미는 깨달았다.

(도로청소부의 딸, 도로청소부의 딸!...)

아끼꼬의 쟁쟁한 목소리가 그에게 조소의 메아리로 귀전에 울려왔다.

순미는 부르르 몸을 떨고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새 구두를 침침하고 누기찬 허청칸에 던져버렸다.

그가 오직 바라보는것은 어머니로 하여금 도로청소부의 신세를 면하도록 하는것, 오직 그것뿐이었다.

학교도 원족도 구두에 대한 공상도 다 옛말로 되여버렸다.

머칠후 그는 더는 생활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없이 소학교를 그만두고 신발공장 소녀로동자로 되었다.

그로서 그의 소녀시절은 끝났다.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소녀시절이 너무나 일찌기 끝나버렸다.

하루일을 끝내고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할 그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때마다 버릇처럼 별들을 올려다본다.

웬일인지 엄마별은 어디가고

애기별만 혼자서 울고있어요

조용히 입속으로 부른다.

소녀시절에서 남은것은 오직 그 노래 하나뿐이었다.

밤 기적소리가 은은히 울리었다. 차창에는 어둠이 드리웠다. 하늘에서 무수한 별들이 반짝였다.

달빛에 함뿍 젖은 전주대며 나무들이 뿔뿔이 지나가고 절벽들이 뒤로 뒤로 달음질쳤다.

밤이었으나 흥분에 휩싸인 차칸에서는 누구도 잠들지 않았다.

열좌석에서는 아직도 숯구이 딸이 무엇인가 끊임 없이 말하며 웃었고 뒤견에서는 청년들이 이야기가 계속되었으나 순미는 흘러들었다.

귀국의 배길이 열리자 어머니는 먼저 조국으로 떠났다. 그때 갓 결혼한 순미는 어머니와 헤어져 이국 땅에 그냥 남아있게 되었다.

어머니와 리별한 후 순미는 편지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른다. 조국의 품에 안겨 새 생활을 찾은 어머니의 놀라운 소식을 어서 알고싶었다.

그후 기다리고 기다린 첫 편지가 왔다.

조국의 꽃우표가 붙은 편지를 받은 딸은 인차 봉투를 뜯지 못했다.

어릴적부터 《자장가》를 불러주며 품에 안아키워 준 어머니의 채취가 느껴져 편지에 얼굴을 묻었다.

편지안에는 꽃속에 묻혀 웃고있는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나이에 비해 걸음이 버린 눈가의 주름살은 여전했지만 그렇듯 환하게 웃고있는 어머니를 여직 본적이 없었다.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면서 그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것봐요. 길가에서 락엽이나 쓸면서 고생하던 어머님이 오늘은 꽃을 즐기고있어요!》

어머니는 편지에 썼다.

《...지금 내 생활에 대하여서는 편지에 아무리 써

야 잘 알수 없을것이다.

내 걱정은 아예 말아라. 이국땅에서의 지긋지긋했던 청소부 일을 옛말하면서 살아가고있다...》

순미는 편지를 접으며 혼자 속삭였다.

(어머니의 도로청소부 시절은 끝이 났구나.)

렬차는 조국에 대한 크나큰 기대를 안고 변모되었을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는 딸의 마음을 싣고 평양을 가까이 하고있었다.

평양역홈에서 어머니와의 상봉이 가져다준 감격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 집으로 향하는 승용차만 해도 순미는 줄곧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다.

어렸을 때 종일 혼자 기다리기에 지치고 서러워 울기까지 했었지만 어머니가 나타나면 반가와 매 달리던 손이었다. 그 손은 언제나 께렘했다. 하지만 그 감촉을 느낄 때가 그에게는 하루중 제일 즐거웠었다.

그런데 이상스러웠다. 웬일인지 그 손이 오늘도 어딘지 께렘한것처럼 느껴졌다.

장미꽃무늬 명주수건을 두른 자기 어깨를 어루 만질 때의 촉감때문인지.

하긴 나이 든 사람의 손이 어찌 비단결같겠는가, 더우기 젊어서 고생한 어머니가 아닌가.

차가 네거리 앞에서 툭 멈춰섰다. 날씬하게 생긴 교통안전원처녀가 춤추는듯한 물동으로 사내대장부 운전수들을 지휘하고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놀림 하나로 차들이 물결처럼 흘러가는데 하면 성미 급해보이는 운전수가 급정거하기도 했다.

눈이 휘둥그래져서 거리 정경을 바라보던 순미는 피곳 오른쪽 아담한 소공원에 눈길을 주었다. 어찌된 일인지 거기에서 그는 인차 얼굴을 돌려버렸다. 곤색작업복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손에 비자루를 든 두 녀인, 《도로청소부》들을 본것이다.

조용할줄 알았던 어머니의 집은 뜻밖에도 흥성거렸다. 방 한복판에는 커다란 음식상까지 차려있어 흡사 잔치집같기도 했다.

《아니, 어머니,웬 음식을 이리도 많이, 내가 뭐 손님인가요. 이 돈을...》

순미는 어리둥절해서 그앞에 섰뜻 앉지 못했다.

《얘야, 이젠 예미가 차린것이 아니란다. 어머니와 같이 일하는 이 위원장어머니를 비롯해서 직장 사람들과 동네사람들이 성의를 다해준것이다.》

《직장과 동네 사람들이요?!...》

《그렇다...》

어머니가 부엌에 나가 버리자 순미는 어머니가 위원장어머니라고 하던 녀인에게 인사를 올렸다. 그는 밤색치마저고리를 단정히 입고있었는데 갓 흰살 녀어보였다.

퍽 점잖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녀인이었다.

《먼곳에서 오느라고 수고했구만. 어디 보자. 어머니와 신통히도 똑같이 생겼구나. 저 새까만 눈을 보지. 이런 고운 딸이 보고싶어 어떻게 헤어져 사는지...》

순미는 얼굴을 붉히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

그 녀인이 큰일을 맡아하는 사람이라는것이 대번에 느껴졌다.

일본에서 주로 책임자를 회장이나 리사장 등으로 알고있었던 그는 위원장이란 말이 그보다 훨씬 무게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직책으로 여겨졌다.

청소부로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오던 어머니가 저런 간부와 같이 일한다니까 남부럽지 않은곳에서 일할것이다.

어머니가 좌석에 앉았을 때 순미는 들고온 려행용 가방에서 자그마한 함 하나를 꺼내어 어머니앞에 내놓았다.

《저, 어머니 그때 어머님이 귀국선에 오를 때 새 신발을 신지 못하고 갔길래...》

함안에는 새 구두가 들어있었다.

딸이 내놓은 구두를 본 사람들은 한마디씩 했다.

《정말 살뜰한건 딸이야.》

《너무 멋쟁이 구두라지 저 어머니한테 어울리겠나. 호호호》

한 젊은 녀인이 우스개소리를 하는바람에 말없이 구두를 내려다보고있던 어머니도 따라웃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은 다 돌아갔다.

어머니는 폭신한 이불을 깔아주며 먼길에 피곤하겠는데 어서 쉬라고 했다.

《어머니, 어머니 언느 직장에 다녀요. 네?》

《그래. 차차 알게 되지, 차차.》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온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았다.

《응, 빨리 말해요. 그래, 꼭 요란한곳이지요? 그 아끼꼬네 공원처럼 꽃도 많고...》

《응. 그래그래. 꽃이 많지...》

순미는 빙설빙설 웃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딸을 짝 짝 놀래우고싶은 생각으로 이것저것 추측해 보았다.(그래 묻지 말고 래일 함께 가보자. 꼭.)

순미는 행복한 환상에 잠겨 어렸을 때처럼 어머니의 고르로운 숨소리를 자장가로 따듯한 온기를 온몸으로 그대로 느끼며 헤어져있던 사이의 일들을 소곤소곤 이야기하다가 잠들어버렸다.

새벽이 되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일어나는바람에 그는 눈을 떴다.

주섬주섬 옷을 입는걸 보니 밥을 지으려는것 같았다. 좀더 날이 밝은 다음 함께 하자고 말하러 어머니

쪽을 돌아본 순미는 그만 놀랐다.

어제아침, 공원을 지나올 때 본 두 《도로청소부》들이 입었던것과 똑같은 작업복에 머리수건을 쓴 어머니를 본것이다.

쓴 어머니를 본것이다.

순미는 그만 아연해져서 눈을 감았다. 다시떴다.

도로청소부처럼새? 설마 어머니가 아직도 도로청소부...

어머니는 죽어도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딸이 갠줄 모르는 어머니는 불을 끄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화닥닥 일어난 순미는 불을 켜다 말고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10 년만에 만난 어머니가 정말 도로청소부란 말인가,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다.

모든것이 잠든 새벽거리를 사라져 가는 어머니의 발자국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는 창가에 서있었다.

이윽고 불을 켜다. 방한 구석에 자기가 가지고 온 어머니의 검은 구두가 삐죽이 내다보고있었다. 별로 어머니와는 인연이 없는 신발처럼 느껴졌다.

순미는 코트를 어깨에 걸친채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머니를 찾아 허둥지둥 새벽거리를 나섰다.

희끄무레 밝아진 거리에는 간밤에 떨어진 락엽이 밟혔다.

코트를 고쳐 입고난 순미는 락엽을 밟으며 정처없이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의 한평생이 도로청소부로 이 락엽처럼 속절없이 끝나 버리는것이 아닐까.

(여생을 편안히 보내줬다면 어머니, 어머니는 어찌하여 그런 일을 잡았나요?)

조국에 온 사람들은 다 희망이 꽃피고 달라졌는데 어머니만은...

그래서 어머니는 저에게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했군요.

아- 어머니 어떻게 사람의 한생이 비자루에 매여 서만 흘러간단말이에요. 예?!...)

순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흐느꼈다.

서늘한 아침 대기가 축축히 젖은 그의 두볼에 차갑게 스며들었다.

하늘같이 들리더니 날이 희뵘히 밝아왔다.

어머니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곧게 뻗은 거리로 걸고 또 걸었다.

무엇으로도 달랠수 없는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아직은 한가닥 기대가 깃들어있기도 하였다.

씩, 썩, 썩-

잇달린 건물들을 지나 12 층탑식 아파트 앞에 이르자 비자루 소리가 들려왔다.

순미는 몸을 떨며 무춤 서버렸다. 정신을 가다듬고 사방을 둘러봤다.

길을 쓰는 소리가 아파트굵인돌이에서 들려오고있었다. 너무도 귀에, 익고 가슴에 맺힌 소리다.

누가 쓸고있을가. 혹시...

뛰여가고싶었지만 불쑥 온몸을 휩싸인 두려움에 그는 숨소리마저 죽여 가며 조심히 걸음을 옮겼다.

제발 어머니가 아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며 갔다.

곧 허리를 구부리고 길을 쓸고있는 녀인의 뒤모습이 나타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낮익은 모습이다.

길을 쓸던 녀인이 옆으로 몸을 돌리자 순미는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가물거리던 한가닥 기대는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순미는 도로청소부인 어머니를 보았다.

조국에 와서도 여전히 비자루를 들고 길을 쓰는 어머니.

순미는 났을 잃은듯 가로수에 몸을 의지하였다.

나들이옷을 모른채 작업복을 걸친 어머니는 길 다란 비자루만 연신 놀린다.

어머니의 로동화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순미의 눈에는 눈물이 핑 고이였다.

(남들이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될 때 어머니는 어찌하여 그 로동화도 벗지 못했나요?!)

마음이 마구 태를 쳤으나 발은 땅에 뿌리내린듯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가 남몰래 가슴치며 울고있는데 길을 쓰는 어머니는 뭐가 좋은지 얼굴에 미소마저 어려있었던것이다.

저런 로동화를 신고서도 웃음이 나올가.

순미는 그런 어머니에게 한달음에 달려가 비자루를 빼앗고싶었다.

남들처럼 자기 처지를 왜 바꿀줄 모르는가고 가슴에 파고들어 묻고싶었다.

좀 떨어진곳에서 놀란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저 로친이 정신이 나갔나?!》

저쪽 굵인돌이에서 일하고있었는지 역시 비자루를 켜 다른 《청소부》가 어머니쪽으로 팔을 휘저으며 달려오는것 이 보였다.

《10 년만에 찾아온 딸을 두고 일을 나오다니 원 그만큼 직장 간부들이 쉬라고 하였는데 왜 나왔나. 어서 들어가게.》

《딸이 와도 내 할 일이야 해야지.》

《이 못난 사람아.》

그 《청소부》가 어머니의 비자루를 빼앗으려 들었다.

순간 그의 얼굴을 알아본 순미는 놀랐다.

《아니 위원장어머니?!》

밤색치마저고리를 입은 몸가짐이 의젓하고 품위 있어 보이던 그 녀인이 도로청소부란말인가.

그럼 왜 위원장어머니라 했을가.

뭐가 뭇지 뒤죽박죽이 되어버려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어머니와 《위원장어머니》의 싱갱이가 계속되었으나 순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종시 《위원장어머니》가 지고말았는지 허를 차며 자기가 출던곳으로 도로 가고만다.

키가 늘씬하고 어깨가 쭉 펴진 두 젊은이가 어머니앞으로 가고있었다.

곤생양복에 조화를 잘 맞춘 넥타이, 가죽가방에 방금 닦아신은듯한 구두...

일본에서라면 신문기자 정도로 볼만치 품위있고 멋진 차림을 한 《신사》들이었다.

도로청소부와 신사, 순미는 신경을 도사렸다.

일본에서 길을 쓰는 어머니를 볼 때의 버릇처럼 가로수위에 깊숙이 숨었다.

공교롭게도 바람이 두 젊은 이쪽으로 불었다. 먼지가 날렸다.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는 부지런히 비자루질만 했다.

순미는 불안해졌다.

그들의 반짝반짝한 구두에 먼지가 날아갔다. 순미는 불안해졌다.

아니나다를가 《신사》들이 우뚝 멈춰섰다.

아니 저절 어찌나?!

그 다음에 잇닿은 광경을 차마 볼수 없이 순미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다음순간 《어머니》하는 다정한 부름소리에 머리를 들었다.

분명 그 친근한 목소리는 《신사》들쪽에서 났다.

《어머니, 수고하십니다.》

그들이 먼지를 날린다고 욕설을 퍼붓기는커녕 인사부터 하는바람에 순미는 아연해졌다.

《벌써 출근하는구나. 오늘은 내가 좀 늦었나봐.》

어머니도 태연하게 응당한듯이 인사만 받는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허리를 꼳꼳이 펴고 《신사》들을 마주 바라보며 웃고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순미는 이해되지 않았다.

사람들앞에 언제나 머리를 낮추고 온갖 모욕을 감각없는듯 소꿉이 감수하던 어머니가 아니었던가.

한 젊은이가 왜 그런지 어머니의 비자루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머니, 비자루를 새로 타셨군요.》

그는 길옆 돌의자에 가방을 놓고 뒤적거리며 무엇인가 찾더니 가느다란 쇠줄을 꺼내들었다.

《마침 댔군, 인주세요. 어머니.》

《괜찮다. 늦겠다. 어서 가보아라.》

어머니가 만류하자 다른 젊은이가 비자루를 얹어가지고 땅바닥에 퍼터앉더니 쓰기좋고 든든하게 허리부분을 촘촘히 엮기 시작했다.

저런... 양복바지가 어지러워질텐데...

《어머니, 이 비자루가 닳도록 우리 출근길을 쓸어 주겠지요.》

《임자들 덕분에 잘 쓰게 되었네.》

어머니와 한식구나 되는것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비자루를 다 엮은 두 젊은이는 웃을 툭툭 털며 일어섰다.

그들은 인사하고 웃으며 떠나갔다.

순미는 잠시 멍하니 서있었다.

《재빛인생》의 미인에게 흉탕물세례를 안긴 《신사》는 알고있어도 그를 위해 비자루를 손질해준 사람은 처음 봤다.

길을 쓰는 도로청소부가 어디나 같겠는데 아마 조국의 《신사》들은 인정이 많고 동정심이 많아서 그런것인가.

《이보라구. 전기공장의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또 새 기계의 시운전을 한대-》

어머니는 무엇이 기쁜지 신명이 나서 비자루질을 하며 《위원장어머니》를 향해 소리친다.

마치 자기 아들자랑을 하는것처럼 얼굴에 웃음이 계속 피여있다.

순미는 어머니가 것처럼 기뻐서 흐뭇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 일이 어머니에게 그렇듯 기쁨을 주는지 알듯하면서도 채 이해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쓰레기를 여러군데 쓸어 모아 놓자 《위원장어머니가》가 자그마한 바퀴가 돌돌 굴르는 밀차를 끌고왔다. 그들은 쓰레기를 모으는데만 정신이 팔려 승용차 한대가 큰 길가옆에 쓰르르 멈춰선것을 못보고있었다.

차안에서 몸집이 좋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 내렸다. 보매 높은 간부같은데 도로청소부들이 일하는곳에 왜 차를 세웠을가.

공연히 가슴이 옥죄여져 걱정어린 시선으로 차에서 내린 간부를 바라보던 순미는 그 사람이 바로 어제아침 평양역에서 자기네 방문단일행을 맞이해준 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인줄 알아보았다.

위원장은 길한쪽역에서 밀차를 끌고가는 《위원

장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오늘은 왜 장갑을 잊어버리고 나왔습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하얀 실장갑을 꺼내었다.

《원, 작업장에 또 있는걸 가지고...》

그 대답에 순미는 놀랐다.

(그럼 저이가 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어른의 어머니란말인가?)

그러니까 진짜 위원장어머니였구나.)

순미의 눈은 더 커졌다.

《새벽부터 또 온 구역을 돌아보시는구만요.》

순미의 어머니가 인사를 하자 위원장은 오히려 수고가 많겠다고 하며 일손을 도울 모양으로 팔소매를 걷어 올렸다.

《위원장, 옷바리겠수. 손을 아예 대지 마사유.》

순미의 어머니가 막았다.

설마 위원장이 쓰레기를 추올라구 하고 순미가 생각하는데 그는 정말 쓰레받기를 쥐고 푹푹 퍼담는 것이었다.

생각하는데 그는 정말 쓰레받기를 쥐고 푹푹 퍼담는 것이었다.

위원장의 어머니는 넌지시 웃고 순미의 어머니는 송구스러워했다.

위원장은 쓰레기를 청소차에 다 담고서야 허리를 폈다.

그리고 순미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딸이 왔는데 이거 도리가 안되었습니다. 어서 들어가보셔야겠습니다.

뒤일은 우리 어머니에게 맡기고...

딸이 우리를 보고 욕하겠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왕고집>에 이런 일을 맡겨 둔것만 하여도 그런데...

제발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여생을 편안히 지내십시오.》

《여생이라니...》 어머니가 노여운듯이 말하며 비자루를 만지작거리었다.

《위원장, 그런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섭섭하네. 내 한생은 이제 시작이지요... 시작이구말구... 바로 이 길에서 시작되었다우... 언제든 나라일에 바쁘신 우리 수령님께서 지나가실 이 길에서 말이우. 나는 여기에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고 내 나라를 알게 되었소...》

빙긋이 웃으며 어머니를 지켜보고있던 위원장은 먼 하늘가로 얼굴을 돌렸다.

《위원장, 이번에 글썄 딸이 10 년만에 만나러 오면서 이 에미에게 새 구두를 하나 가져왔수다. 조국으로 떠나오던 날 에미한테 새 신 하나 신겨 보내지

못했던 일이 못내 가슴에 맺혔었나보지요,

가룩한 그 마음이 담긴 신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도 모르겠소. 그 구두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고 별로 남의 신만 같더라말이요. 딸한테는 섭섭해할가봐 말을 못했지만... 나한테는 나라에서 준 이 로동화가 더 귀하지요. 이 신을 나는 벗을수가 없소. 이 신을 벗으면 락을 잃어버릴것만 같지요...》

어머니가 푹 가라앉아서 더 무슨 말을 하려는데 《할머니!》 하고 한 무리의 아이들이 와- 달려 왔다.

귀여운 얼굴에 뺨들이 빨강게 익어 가지고 숨을 할딱이는걸 보니 아마 아침달리기라도 한 모양이다.

장난꾸러기 한 총각애가 어머니의 비자루를 빼앗아 들고 도와주겠노라고 비자루질을 한다. 별로 쓸어 낼것이 없다. 그러자 맹랑한듯이 불부은소리를 했다.

《깨끗하구나 뭐. 그런데 할머니는 왜 자꾸자꾸 쓰나요?》

《정말?!》

다른 애들도 눈이 동그래서 어머니를 올려다본다. 어머니는 옆에 서있는 단발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빙그레 웃을뿐이었다.

애들과 함께 눈부신 아침해살이 비낀 어머니의 얼굴도 장미빛으로 물들었다.

장미빛, 분명 장미빛이었다. 순미의 가슴에 못 박힌 재빛이라는 말과는 너무도 다른...

그곳의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두고 흔히 《장미빛인생》이라 했다.

재빛인생과 장미빛인생!

순미는 머리를 들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감동과 충격의 파도가 세차게 일고있었다.

아 이것이 조국을 의미하는가. 나는 늘 세상리치를 모르고 살아왔구나.

어릴 때에는 아끼꼬와 같은 빨간 구두를 신으면 그와 같은 아이로 될줄 알았던 내가 오늘을 어머니의 로동화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모르고있었지. 그것이 어머니의 삶을 값높고 보람있게 해준 다는것을 모르고 그저 새 구두를 드리면 기뻐하실 줄 알았으니까.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비자루를 들고 길을 쓰는 일이야 같은것이라고 생각했지. 어머니가 이 땅에서 얼마나 존엄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있는지 상상도 못했어.

순미는 불과 몇발자국 앞에 서있는 어머니가 아득히 먼곳에 서있는것처럼 느껴졌다.

정녕 어머니의 생각은 얼마나 높은곳에서 달리 고있는것인가.

그러자 어머니에게 그 어떤 죄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발길을 돌렸다.

조용히 걸어가는 뒤에 비자루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도 아츠럽게 들리던 그 소리가 다정하게 가슴벽을 어루만져주었다.

저 소리는 우리 인민의 삶, 자신의 새 삶이 시작되고 또 꽃피어나는 이 땅이 너무나 귀하여 쓰다듬는 소리, 어머니가 조국땅을 정성스레 쓰다듬는 소리구나.

얼마쯤 걸어갔을 때 그앞에 꽃이 만발한 화단이 나타났다.

깨끗하게 정돈된 화단앞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나 미소짓고 있었다.

어쩌면 이리도 고울가. 순미는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홍초, 국화, 다리아... 그 꽃들속에 의젓이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키낮은 보라색꽃!

삼색제비꽃이었다. 잊을수 없는 꽃이었다.

순미는 화단복판에 너무나 품위있게 피어있는 그 꽃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어린시절 가냘픈 그 꽃을 보면 어디론가 가버린 엄마 생각이 나고 불쌍한 엄마를 보면 들판에 쓸쓸하게 피어있는 그 꽃이 떠올랐었다

필곳 없어 잡초 무성한 들판에 피어 짓밟히다가 자취를 감추어 버린 꽃이었다. 언제나 애달픈 그 무슨 사연을 하소하듯 바람에 하느적이던 꽃잎...

어머니를 기다리며 그 꽃잎을 하나, 둘 뜯던 순미의 어린시절 추억과 함께 그 꽃은 남아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웬일인지 엄마별은 어디 가고

애기별만 혼자서 울고있어요

그러나 그 노래는 어린시절 자기 가슴을 괴롭히며 머리속에 굳어져버린 과거생활의 고독감과는 다른

새로운 감정과 의미로 가슴속에 조용히 퍼져갔다.

순미는 오늘에야 그리도 찾고싶어한 《엄마별》을 찾았다.

밝은 인민의 웃음과 꽃속에 묻힌 《장미빛인생》으로 사는 어머니모습을 찾았다.

사람이 한생을 다 겪어서도 깨닫지 못한것을 지금이야 깨달았다. 말로만 들어왔던 조국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사람이 태를 묻고 거기에서 자라며 시련을 겪고 느끼는것을 한꺼번에 깨닫는것 같았다.

앞이 자꾸만 흐려왔다.

어머니의 눈물 겨웁던 젊은 시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남편과 함께 먹고 사는데만 아글타글 애쓰나마지 총련애국사업에 낯을 적게 돌린것까지 후회되었다. 조국을 알기 위해 좀 더 노력했더라면 어머니를 벌써 오래전에 리해했을것이다.

뒤늦은 깨달음은 끝이 없었다.

뉘우침속에서 화단을 바라보니 그 꽃속에서 환하게 웃고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그것은 조국에서 보내온 첫 편지속에서 본 그 어머니였다.

순미는 기쁨으로 떨리는 손으로 한송이 삼색제비꽃을 꺾었다.

생활의 갈피속에서 잊어버렸던 그윽한 향기가 폐부에 깊이 스며들었다.

문득 그 꽃을 어머니의 머리에 꽂아주고싶은 충동이 북받쳐올랐다.

순미는 꺾어든 꽃을 소중히 안고 발길을 돌렸다.

한순간도 어머니와 갈라져 살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

씩, 썩, 썩- 비자루소리나는곳 조국이 어머니에게 새 삶을 준 그곳으로 순미는 한걸음 한걸음 다가갔다.

머리를 깊이 숙이고...

영생하는 사람들

최치영

세상에 오랜 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나는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이 있다는것은 알아도 그들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는 모른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전사로 살며 싸우는것은 우리들이 심장속에 간직하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지켜야 할 혁명적의리입니다.》

뜻깊은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는 정초 일요일.

현관문앞을 지나는 그 많은 발자국소리중에서도 아버지의 발자국소리는 류별난것인지 내가 문을 열기 바쁘게 유치원 낮은반에 다니는 둘째 아들이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뽀르릉 튀어나오며 충알처럼 말한다.

《아버지, <월미도> 영화 못봤지요? 이자 방금 텔레비에서 했어요.》

《응, 참 좋은 영화를 했구나.》

아들애는 내가 듣건말건 저녁밥을 먹는 나의 옆을 떠나지 않고 썩썩... 하면서 리태운중대장이 적함을 통쾌하게 박살내는 장면이며 취사원 종섭이가 밥가마를 이고가는 장면... 그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신이 나서 이야기한다.

그러더니 그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버지 그 아저씨들은 세밤동안 용감하게 싸움했어요. 세밤동안...?!》 하고는 아무런 말없이 내 밥상옆에서 우물거리던 그 애는 불현듯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나도 크면 인민군대가 될래!》

아마 그 어린 가슴에도 《월미도》 영웅들의 불멸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강한 충격을 준것이다.

그리고도 아이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려 한다.

나는 밤도 깊어 빨리 잠자리에 눕기 위해

《응 됐다, 됐어. 나두 다 봤다. 난 2.8 문화회관에서 천역색광폭영화로 봤다.》 하고 밀막아버리고 말았다.

자기의 뜻이 실현안되나 기가 죽어 우물우물하던 둘째는 불현듯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아버진 군대나갔댔다면 왜 영웅이 못됐니?》

너무도 천만뜻밖의 질문이다.

아직은 한밤 자면 유치원에 가고 또 한밤 자면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주시는 책 타러 인민학교에 간다고 손가락을 세여가며 웅성과 어리광으로만 자란 애가 영웅들의 살을 그렇게 세여가며 아버지도 영웅들처럼 살았는가고 묻고있지 않는가.

나는 자라는 어린것의 가슴에 벌써부터 아버지로써의 빚진 대답을 줄수 없어 얼굴을 붉히며 단호히 말했다.

《내가 군대나갔을 땐 전쟁이 끝난 다음이야.》

그러자 아들애는 《싸움하면 아버지도 영웅됐겠지요.》

참으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숨가빠지는 질문이다.

이 밤 나는 쉽게 잠들수 없었다.

이제 겨우 짜깨바지 신세나 먼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둘째가 나의 가슴속에 저어놓은 충격이 너무도 컸기때문이다. 그전같으면 이제 겨우 발간것과 파란것 단것과 쓴것이나 알수 있을 저 이런것이 월미도 영웅전사들의 3일을 한밤 두밤 세밤 세여가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그리도 소중히 간직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그렇다, 나도 아이도 이 땅에 100년 160년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당과 수령을 위하여 가장 준엄한 시기 단 3일간을 싸운 《월미도》 영웅들에 대해서는 안다.

세월은 그들의 령전에 눈비를 날리며 뿌리였어도 영원히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진 중대장 리태운, 중사 최석준, 열일곱 꽃나이의 무전수 영옥이, 당분조장 민국아바이, 취사원 김종섭의 모습은 영원히 지울수가 없었던것이다.

아, 부르고 부르고 또 불러도 못다 부를 월미도 영웅전사들의 그 업적.

그들은 가장 준엄한 시기 조국을 위하여 단 3일간을 살며 싸웠다.

3일! 기나긴 한생애 3일이란 한순간이다.

그러나 그 한순간, 때없이 다가서는 준엄한 순간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가 하는것은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가장 귀중한 시금석으로 된다.

만일 리태운중대장이 조국의 준엄한 시각을 앞두고 차레진 려단포병참모장으로 승급되어 가는 그 길을 걸었다면 그는 지금도 그 아름답고 리지적인던 녀대학생과 사랑에 숨가쁘던 수양버들 휘늘어진 호수가를 계속 걸을수 있을것이며 나 어린 무전수 영옥이나 당분조장 민국아바이들도 물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 길을 걸었다 해도 그들을 두고 그 누가 시키지도 않는 죽음의 길을 왜 스스로 걸었던가.

그것은 맥아더의 5만군대앞에서도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쫓겨우게 된 종달새우짓은 조국땅을 생각했기때문이며,

그것은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것보다 그 행복을 위해 자기의 생을 바치는것이 조국앞에 부끄럼 없는 영원한 삶이라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이었다. 하기에 그들은 조국은 곧 장군님의 품이라고 긍지 높이 웨치며 사과꽃 하얗게 피던 고향의 봄언덕과 가을엔 황금이삭 물결치던 벌을 안고 영생의 길을 가지 않았던가.

세상에는 지금까지 100년 160년이 되도록 오래 산 사람들을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월미도영웅들이 조국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며 보낸 3일간이 조국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며 보낸 3일간은 30년, 300년, 3,000년 아니 영원한 삶으로 무궁한 조국의 번영과 함께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그렇다, 인간의 생은 길이 빛나는것이 아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위하여 바쳐진 삶-그것은 짧아도 아름답고 영원한것이다.

항일의 선렬들이 그렇게 살았고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수많은 영웅전사들이 그렇게 살았다.

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이 커질수록 그 행복에 스며든 그들의 피의 대가를 것처럼 귀중히 여기며 뜨겁게 추억하고있는것이다.

밤은 깊어 시계는 어느덧 두점을 친다.

그러나 나는 쉽게 잠들수 없다.

그들이 피흘린 땅위에 흘러간 저 룡남산언덕 교정의 불빛던 창가며 지금은 또 온세상이 우러르는 주체사상탑과 마주한 아파트 창가 나의 집, 실로 이 모든것을 생각할수록 머리가 숙여지고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달아오름을 금할수 없다.

아침이면 티하나 없이 반반한 보도길로 안해와 아

이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직장으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그 시간에 다시 돌아오는 퇴근길,

행복이 무르녹는 그 길을 걸으며 차례지는 행복이 커질때마다 그래도 제판엔 늘 생각했다.

(나도 준엄한 그런 시각이 오면 그렇게 살수 있다.)고.

그러나 축적이 없는 힘이 어찌 순간에 무적의 힘을 낼수 있겠는가.

요새 며칠만 해도 그렇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하는 거창한 시대에 귀중한 하루마저 휴식일이라고 이집저집 의의없이 보내는 나.

그것은 벌써 나를 시대앞에 멀리 떨어놓고있지 않는가.

나와 함께 배움의 층높은 문을 나서며 좋은 글을 많이 쓰자고 첫 출발한 많은 친구들이 벌써 멀리 앞서가고 있다.

그들을 따라가자면 나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하루하루가 흘러간다면 먼 후날지금 단잠이 든 저 어린것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가고 다시 물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아, 그들의 3일간과 나의 3일,

내 한생의 삶이 영원히 우리 당을 받들어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위하여 3일간을 영웅하게 싸워 수십수백년을 영생한 월미도영웅전사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심장은 세차게 고동치는데...

깨끗한 그 마음 번치 말라고 뜻깊은 함박눈이 내리고내린다.

생활의 논리와 동화적환상의 진실성

문 재 흥

동화적환상이 포괄하는 생활의 영역은 무한대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생활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

왜냐 하면 엉뚱하고 기이한 이야기를 진실로 믿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이란 별것이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진실을 쓰는것입니다.》

진실성은 예술작품의 생명이다. 진실한 형상만이 뜻깊은 생활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줄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예술적감동을 안겨줄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 있는바와 같이 동화적환상도 생활의 논리에 따라 창조됨으로써만 그 진실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그것은 환상이란 생활에 기초하고있으며 생활을 반영하기 위하여 창조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생활은 동화적환상을 낳고 그것을 더욱 풍부히 하도록 이끌어주며 그 형식까지 특징지어준다.

생활이 주지 않는 환상이란 없다. 때문에 동화적 환상은 생활과 떼려야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생활의 리론에 따라 동화적환상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환상의 생활적전제를 충분히 주는것이다.

동화적환상은 언제나 발생하기전에 자기를 낳아줄 생활적전제를 요구한다.

마치 지느러미가 물을 찾고 날개가 대기를 찾듯이 환상은 나래를 퍼기전에 전제를 찾는다. 그것이 바로 생활이다.

생활적전제가 튼튼할 때 동화적환상은 자유분방하게 나래를 펼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몸소 들려주신 이야기를 옮긴 동화 《날개 달린 룡마》에서는 셋째가 룡마를 타고 구룡산으로 달려가 신기한 《북채》를 얻어오는 환상의 세계를 펼치고있는바 이 환상의 생활적전제는 용맹과 슬기를 키우고저 밤마다 자지 않고 말타기 훈련을 열심히 하는 셋째의 생활을 깊이 있게 그려준데 있다.

만일 작품에서 용맹과 슬기를 키우는 셋째의 생활을 동화적환상의 생활적전제로 충분히 깔아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기적적인 환상을 펼칠수 없었을것이며 진실성을 보장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동화적환상의 생활적전제를 튼튼히 마련하자면 우선 환상을 펼칠수 있는 동화적인물과 사건을 인상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주어야 한다.

동화적인물과 사건을 인상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주어야 하는것은 환상이 다름아닌 바로 그 동화의 인물과 사건에 의거하여 그 작품속에 펼쳐지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동화에서는 환상을 펼치기전에 동화적 인물과 사건을 인상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화적인물과 사건을 인상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데서는 환상을 펼칠 직접적담당자인 동화적인물과 사건에 력점을 힘있게 찍어주는것이 중요하다.

환상을 펼칠 동화적인물과 사건에 력점을 힘있게 찍어주는것은 환상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들려주신 이야기를 옮긴 동화 《날개달린 룡마》에서는 첫째, 둘째의 성격을 보여주는 생활도 그려주고있지만 용맹과 슬기를 키우기 위해 밤마다 자지 않고 말타기 훈련을 열심히 하는 셋째의 성격과 동화적이야기에 력점을 힘있게 찍어준것을 찾아볼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철학적 환상을 창조할수 있었던것이다.

환상을 펼칠 동화적인물과 사건을 인상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그 인물의 성격을 돋구어줄수 있는 꼭 필요한 동화적이야기, 사건만을 주는것이다. 여러가지 동화적이야기 사건을 펼쳐보이게 되면 환상적형상은 흐려지게 되며 인상적으로 안겨오지 않게 된다.

생활의 논리에 따라 동화적환상을 창조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동화에 나오는 현실적 인물, 사건, 무대로부터 환상적 인물, 사건, 무대로의 자유로운 이행으로 창조된다.

동화적환상창조에서 이 계기를 논리에 맞게 잘 지어주어야 환상의 진실성을 보장할수 있다.

동화적환상창조에서 현실세계와 환상세계의 호상관계는 여러가지 형태로 맺어진다.

현실세계로부터 시작되어 환상세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환상세계에서 시작하여 현실세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몇가지로 구분해 보면 크게 현실→환상→현실, 환상→현실→환상, 현실→환상→현실→

환상→현실 등과 같다.

동화적환상창조에서 생활의 논리에 의한 교차의 계기만 진실하다면 현실적인물이 환상적무대에도 등장할수 있으며 또한 현실적인물과 환상적인물이 같은 계기에 환상적무대에도 등장하고 현실적 무대에도 등장하는 자유로움이 허용될수도 있다.

동화만이 허용되는 이러한 자유분방한 세계를 잘 인식하고 리용할 때 환상은 끝없이 나래치게 되며 동화적이야기를 폭넓게 끌고나갈수 있다.

현실로부터 환상, 환상으로부터 현실세계로 넘어가는 계기를 잘 지어주는데서 중요한것은 계기의 함축과 비약을 없애는것이다.

계기의 함축과 비약은 계기와 계기로 넘어가는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주지 않고 경충 뛰어넘을 때 생긴다.

계기의 함축과 비약을 없애자면 계기와 계기를 이어주는 생활을 깊이있게 탐구하여 설득력있게 주어야 한다.

현실세계에서 환상세계에로 넘어갈 때에는 환상적세계로 넘어가는 동화적이야기, 사건이 충분히 마련됨으로써 필연적으로 환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들려주신 이야기를 옮긴 동화 《날개 달린 룡마》에서는 위협에 처한 마을을 구원하자면 이틀동안에 사슴골짜기에 가닿아야 한다는 긴급한 동화적정황, 사건을 충분히 마련해 줌으로써 드디어 셋째가 갈뼁을 탈고 사슴골로 가는 흥미있는 환상을 창조할수 있었던것이다.

이와 같은 실례는 동화 《할아버지가 되었던 영수》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어느날 영수라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결상을 타고 앉아 프락포르놀이를 하고있다. 이 부분은 현실세계 그대로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수는 꿈을 꾸다. 즉 환상세계에로 들어간다.

영수가 타고놀던 그 결상이 눈물을 흘리며 달아난다.

결상이 없이는 래일부터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에 영수는 애타게 부르며 따라간다. 그러다가 소나무숲에 이르러 결상을 놓쳐버리게 된다.

영수의 딱한 사정을 듣고 애 어린 소나무들이 결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래서 영수는 부지런히 나무를 키운다. 마침내 소나무들은 우적우적 자라나더니 좋은 결상이 되어 영수에게 안긴다. 영수는 결상을 받아안고 유치원으로 간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놀던 모든 아이들이 영수를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영수가 자기도 유치원생이라고 하자 모두들 배를 그러쥐고 웃는다.

어떻게 된 일인가. 영수는 거울을 본다. 그랬더니 참말로 거기에는 머리 흰 할아버지의 얼굴이 비껴있지 않는가. 영수는 소스라쳐 놀란다....

이러한 꿈, 환상세계에 뒤이어 다시 현실세계에로 이야기가 바뀐다.

즉 꿈에서 깨어난 영수가 선생님에게 할아버지가 되었던 이야기를 한다.

그러자 선생님은 바로 그렇게 결상은 오랜 세월 부지런한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산에서 자란 나무로부터 된것이라고 하면서 결상에 앉을 때마다 그 나이를 잊지 말자고 이야기해준다.

영수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프락포르놀이를 하면서 찌그러뜨린 결상을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고쳐놓는다.

현실로부터 환상, 다시 현실세계로 옮겨진 이 동화적환상의 계기는 영수라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결상을 타고 앉아 그것이 마사지는줄 모르고 프락포르놀이를 하고있는 장면에서 이루어지고있다.

여기서는 계기와 생활적이야기가 충분하고 타당하므로 교차되는 현실과 환상의 세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환상세계로부터 현실세계로 넘어가는 경우에 환상은 그 진폭과 비상성을 점차 낮추면서 환상세계와 련관성있는 현실세계에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계기를 조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비상이 높아졌던 환상의 진폭과 비상성을 갑자기 떨구어 현실세계로 들어간다면 아무런 예술적감흥도 주지 못할것이며 독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을것이다.

우에서 실례로 든 동화 《할아버지가 되었던 영수》에서는 환상적인 세계에 있던 영수가 다름아닌 자기의 유치원선생님한테 찾아가 할아버지가 되었던 이야기를 함으로써 무리없이 현 세계를 펼쳐놓을수 있었다.

생활의 논리에 따라 동화적환상을 창조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환상을 끊임없이 변화발전시키는 것이다.

동화적환상은 평면적이고 단조롭지 않으며 굴곡이 있고 복잡하며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 발전할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동화적환상이 다름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생활을 반영하기때문이다.

생활속에 환상이 있고 환상속에 투쟁하는 인간들의 광만적인 생활이 있다.

환상을 창조하는 목적은 생활의 이러한 본질을 보

다 깊이있게 인식시키자는데 있다.

때문에 환상에는 인간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이 현실세계보다 더 다양하게 펼쳐진다.

환상속에 생활이 있다는것은 바로 때문이다.

동화의 환상이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는것은 그것이 발생하는 조건과 정황이 다양하기때문이다.

동화적환상이 펼쳐질수 있는 정황과 조건이 다양한것은 반영하는 생활적내용이 역시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만일 동화적환상을 한자리에 머물러있게 하거나 변화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생활의 논리에 맞지 않으며 진실감을 주지 않게 된다. 이로부터 동화적환상은 생활의 논리에 따라 굴곡을 주면서 다양하고 변화 무쌍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것이다.

동화적환상을 생활의 논리에 따라 굴곡을 주면서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게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동화적인물과 사건에 의하여 산생되는 환상적정황, 조건을 잘 지어주는것이다.

그러자면 동화적이야기, 사건을 극적으로 잘 엮어주어야 한다.

동화적이야기, 사건이 강렬하지 않고 미미하면 환상적 정황도 미미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일어나는 동화의 환상은 그 세계가 높지 못하고 비상히 발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동화적사건, 이야기가 강렬하고 기적적이면 환상적정황도 그만큼 높아지며 펼쳐지는 동화의 환상은 강렬하고 기적적으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창작실천에서 찾아볼수 있다.

로동을 사랑할데 대한 문제를 주제로 한 어느 한 동화에서는 일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는 꽃나비의 미미한 생활적이야기속에서 환상을 주려고 시도했

기때문에 환상의 굴곡과 변화무쌍한 발전을 볼수 없었지만 동화 《산막집의 장수감자》에서는 탐욕적인 지주와 부지런한 농민의 서로 상반되는 관계를 극적인 이야기로 잘 엮어주었기때문에 기적으로 커지는 감자에 대한 환상을 창조할수 있었다.

동화적환상을 생활의 논리에 따라 굴곡을 주면서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게 발전시키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환상적정황, 조건을 하나의 이야기 사건선에서만 줄것이 아니라 꼬리를 물고 이어져가는 동화적사건, 이야기의 매듭들에서 타당성있게 끊임없이 주는것이다. 그래야 환상의 폭과 다양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동화적환상을 생활의 논리에 따라 굴곡을 주면서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환상을 창조할수 없다.

환상의 시공간적 무대를 무단히 이동시키려면 현실로부터 환상으로, 환상으로부터 현실로 그리고 현실세계와의 교차를 더욱 긴밀히 조직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들려주신 이야기를 옮긴 동화 《날개 달린 룡마》에서는 현실세계에 있던 셋째가 룡마를 타고 달맞이산으로 가는 환상세계가 펼쳐지며 이 환상세계에서 다시 룡마를 타고 구룡산으로 가는 환상세계으로 이어지며 이 환상세계에서 《복채》를 얻어 가지고 현실세계로 돌아오는 등 환상의 시공간적 무대를 자유롭게 이동시킴으로써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동화적환상을 창조하는 귀중한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생활의 논리에 따라 동화적환상을 창조하는것은 형상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때문에 창작에서는 생활의 논리에 따라 동화적환상을 창조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사소하게나마 그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예술의 생명인 진실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탄전의 새 주인들이 온다

한 상 호

홍성이는 탄광마을 역구내로
하나같이 림름한 제대군들이 온다
은희야 옥이야
초소에서 수고하고 오는 동무들에게
어서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자

가슴은 산악같이 억세여보여도
우리의 꽃다발 받으라니
얼굴을 붉히는 그들
채탄기를 총대처럼 틀어잡을 대장부답게
어서 축하의 꽃다발을 받으래자

우리의 정성으로 아름답게 엮은 꽃다발
붉게 희게 웃는 꽃속에
꿈많은 탄광마을 처녀들의
살뜰한 정성이 깃들어있음을 잊지 말래자

잊지 말래자
전호를 박차며 고지로 오르던
병사의 그 용맹 조금도 헛됨없이
하루에 수십척 탄벽을 밀며
우리의 미더운 동지가 되어주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고르고 고른 꽃다발임을

수천길 막장에 석수가 쏟아지면
총탄처럼 헤쳐가고
암반이 막아서면
한몸이 그대로 정날이 되어 뚫고가며
항시 당의 믿음에
하늘높이 석탄산을 쌓아 보답하기 바라는
그 간절한 당부로 피우고 피운 꽃다발임을

가슴깊이 안으래자
땅밑에서 우리 캐는 석탄 석탄이

보기엔 정말 수수하여도
온 나라 집집에 넘쳐나는 불빛이고
설레이는 풍년벌에 아름다운 노을이고
필필이 흐르는 문양고운 비단이고
펼 펼쳐 끓는 용광로에 작열하는 백광임을

오, 그때문에
아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대병사들을 불러
목숨으로 조국을 지키던 그 심정으로
여기 탄전을 굳건히 지키라고
맡겨주신 초소라고
검은 금이라고

날씨도 푸르구나
탄전에 새 주인들 맞는 기쁨처럼-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부풀어도
얘들아!
이것만은 귀속말로 속삭여주자

이땅 그 어디나 석탄산을 높이 가려
우리 조국이 그 보화의 탑우에 받들리워
오늘보다 몇배 더 아름답게 빛날 때
그때엔 금별메달 가슴 번쩍이며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그때엔 어머니도 허락할거라고-

은희야 옥이야
이제는 그만 꽃다발을 안겨주자
오늘은 우리 주는 꽃을 받아도
래일엔 쌓고쌓은 검은금보화로
천만가지 꽃을 피워 조국에 바칠
제대군인들이 온다
탄전의 새 주인들이 온다

한 혈육

한 원 희

나는 아직 몰라라
불타는 집에서 나는 안아낸
중국인민지원군용사의 얼굴
자기의 팔에서 피를 뽑아

어린 내 몸에 수혈해주던
지원군누나의 그 얼굴도

나는 아직 몰라라

고지 우에 쓰러졌던 아저씨
내 어머니의 피를 넣어
다시 소생한 지원군아저씨
그대 지금 어데 있는지

용서하라 용서하라
세월이 다 한대도 못잊을 용사들아
그대들을 기억해두지 못한채
서른해도 너머 흘렀구나

행복한 날에도
준엄한 날에도
이 가슴에 높뛰는 피방울
어느것이 내 피이고
어느것이 그대들의 피인지

기쁨도 함께 나누며
위훈도 함께 떨치며
혁명의 먼길을 걸어왔기에
그 또한 분간 못해라
오늘의 우리 행복과
오늘의 그대 행복을

피를 나누어
우리는 한형제
정을 나누어
우리는 한가정

하늘을 가른대도
땅을 가른다 해도
떼여놓을수 없어라
피로써 맺어진 한몸
조선과 중국의 한마음

아, 전화의 날
내 너무 어렸던탓에
그날의 지원군용사들을 기억 못해도
흘러간 세월속에 나는 알았다

중국을 위함에
내 아껴둘 목숨 따로 없음을!
조선을 위함에
그대들 아껴둘 목숨 따로 없음을!

직행렬차

김 휘 조

만났다 헤어지면 또 만나고싶은
형제의 마음이나
갈길을 재촉하는
차바퀴소리 차바퀴소리

평양-베이징행 직행렬차
오늘도 평약역을 떠나네
친선의 사절을 싣고
하늘가에 울리는 기적소리 기적소리
노래처럼 그윽한 정을 담았네

끝없이 오가건만
갈적마다 새로운 정
강건너 들지나... 베이징은 멀어도
마음이 가까와 같곳도 지척인듯
만수대언덕의 밝은 해빛을
차창마다 비껴담고 오늘도 가네

하나의 운명으로 이어진 두 나라
사나운 불비를 한전호에서 헤쳐온
공화국기, 오성기 붉은 빛발이
거리마다 봄빛으로 넘친 두 나라

부르면 언제나 웃으며 다가서는
벗들이 오늘도 철길 저 멀리서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손저어 부르는듯
서로 도와 오가는 조선의 마음이
차창의 저 얼굴마다 웃음으로 비졌구나

렬차는 가네, 웃음속을 노래속을
함께 온 천만리 길은 멀어도
폭풍도 눈보라도 언제나 함께 헤칠
벗들의 의지를 싣고
신념을 싣고

오가는 그곳이 어이

베이징과 평양만이더나
 새 행복의 새 기슭으로
 두 나라가 어깨결고 함께 가는길

 혁명의 의리로

다저진 철길로
 쉽없이 오고가는 천선의 이 길에
 오늘도 가까이 다가오고있네
 눈부신 번영의 새 리정표들이
 아, 직행렬차, 승리의 렬차

꼭지순가락

김 석

전쟁의 포연이 흐르던 이 땅
 불탄 그자리에
 그 몇십번 봄은 오고
 꽃은 피고 졌던가

 사과꽃 하얗게 핀 산기슭에
 전호를 파던 병사들
 뜻밖에 분노를 안고 몸부림친다

50년대
 원쑤에게 무참히 희생된
 애국자들의 유해와 함께 나온
 꼭지순가락을 쥐고 치를 떤다

잠결에도
 손에 꼭 잡고
 꿈결에서조차
 행복의 불웃음 피워주었을
 어린아이의 꼭지순가락-

아침저녁 밥상에 마주앉아
 그 고사리같은 손으로
 꼭지순가락을 쥐고 밥을 먹을 때
 네 모습 하도 대견해
 엄마는 두볼을 도닥여주었으리

꼭지순가락!
 너는 아이의 기쁨이였고
 엄마의 기쁨이였고
 가정의 기쁨이였거니

거는 원쑤의 총구앞에서도
 굴함없이 서있는 엄마를 찾아
 꼭지순가락 흔들며
 한발자국 두발자국...
 아장아장 걸었을 귀여운 아이
 어느놈이 너를 쏘앗단말이나?!

세월은 흘러 30여년
 흙속에 녹이 쏘고 색깔은 변했어도
 엄마를 찾는 아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
 아이를 부르는 엄마의 피타는 웨침
 저 산발에 메아리쳐오는듯
 병사의 이 가슴을 찢는다

너 살았다면 지금은 내또래 나이
 행복의 락원속에 생의 기쁨 마음껏 누리며
 수령님 받드는 한초소에서
 나와 함께 어깨 나란히
 충성의 붉은 꽃 피워가련만...

아, 꼭지순가락!
 너는 그날에 한 아이의 행복과 념원
 다는 꽃피워주지 못했어도
 만천하에 원쑤 미제를 고발하는
 력사의 증견자로
 해와 별 빛나는 이 강산에
 오늘의 이 행복 어떻게 지켜야 함을
 병사의 가슴속 깊이깊이 심어주누나!

방수아바이

전 동 철

1

석양이 질어갈 무렵이었다.

교대 고동이 울리기 바쁘게 두툼한 책을 맡아준 애젊은 청년이 구내길을 바삐 걸어가고있었다.

그가 멍게멍게 흰 연기를 맡아올리며 기관차가 지나간 구내선을 건너 가공직장 앞마당에 들어설때였다.

교대를 마친 호기심 많은 가공직장 선반공처녀들이 창문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다.

《아니 저게 누구야?》

《애두 운수직장 선로공 류성동무 아니야.》

《으-응 <수학박사> 말이지.》

《글쎄 저 동무가 대학에 추천받았대.》

《그래서 저렇게 사기났구나 애》

《호호호...》

입빠른 처녀들의 말은 뜬소문이 아니었다. 바로 어제저녁에 세포비서가 류성이를 만나 상급학교에 갈 준비를 잘하라고 말했던것이다.

류성은 지금 직장장이 찾아서 가고있었다.

(아마 직장장동지도 그 때문에 찾을거야... 혹시 공부를 하라고 시간을 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그는 어느덧 빨강고 노란꽃들이 소담하게 피어난 구내길화단을 에돌아 직장사무실마당에 들어섰다.

그는 문을 두드리려고 선뜻 내밀었던 손을 움츠려뜨렸다. 직장장이 웅글진 목소리가 방안에서 울려나왔던것이다.

《여러분들도 알다싶이 <80년대속도>창조운동에 펼쳐나선 우리 공장 로동계급들앞에는 5개지구전선 건설장에 보낼 대상설비생산을 종전의 2배로 늘여야 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이 대상설비생산을 제때에 만들어 보내자면 연료와 자재를 비롯한 물동들도 두배로 늘어날것입니다. 그러자면 화차회귀일수를 줄여야겠는데 현재있는 구내선을 가지고는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장당 위원회에서는 구내선을 더 늘이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공사에 필요한 침목을 해결해야 한다 그말이겠지요?》

직장장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누군가가 하는 말이였다.

방점을 옳게 찍었다는듯 직장장은 책상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린 침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벌지인 봉두산에 사람을 보내야 한단말입니다. 말하자

면 이동작업을 말입니다. ... 누굴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봉두산!》

류성은 침목채벌지인 봉두산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잘 알고있었다. 그곳은 광궤열차를 타고 하루, 협궤열차를 타고 반나절, 그리고도 걸어서 20리나 더 들어가야 하는 심심산골이었다.

(과연 그 먼곳으로 누가 이동작업을 가게 될것인가?)

사무실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모두 조용히 침목을 지키고있는것이 분명했다.

류성은 먼곳이어서 누구도 선뜻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는것이라고 짐작했다.

이때 그의 이런 물음에 대답이나 주려는듯 누군가가 《삐거덕-》 의자소리를 내며 일어나는것 같았다.

《제가 가겠습니다.》

회의때마다 언제나 구석진곳에 앉아 침목을 지키다가도 이따금 요긴할 때에만 문득 입을 열군하던 2분기소조장의 동안뜬 말소리였다.

방안에서는 술렁거렸다.

《아니 자네가 간단말인가... 집에서 장작하나 패지 못해 너편네 손을 비는 사람이 누굴 웃기자고 그래.》

《хах하...》

장대한 몸을 가진 3분기소조장이 빈정거리며 말하자 갑자기 폭소가 터졌다.

류성은 이 롱담섞인 말에 불임성 없는 2분기소조장이 얼굴을 붉히고 어쩔줄 몰라할 모습을 그려보니 저절로 웃음 나갔다.

《그래도 내썸 가야 어깨를 들이밀 맛이 있지.》

말은 하지 않아도 응당 자기가 가야 한다는 배신을 내밀며 3분기소조장이 하는 소리였다. 하긴 힘풀이 세서 공장적으로 씨름경기에서 우승을 하여 돼지 한마리를 상으로 탄적까지 있는 3분기소조장이고보면 그럴만도 했다.

하지만 누굴 보내는가 하는 문제는 쉽게락착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한시도 가만 있지 못하고 해종일 공장구내를 좁다하게 달려다니는 기관차 반장이 열을 울리고 다음에는 수리반장이 지지 않았다.

직장장은 뜨거운 걱정애 감동되었는지 헛기침만 몇번 툄더니 큰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자, 이렇게 모두가 펼쳐나서니 누굴 보냈으면 좋을지 모르겠구만...》

그러자 사무실안은 다시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이쯤 되고보니 이동작업을 선발하는 문제가 자못
심중해지는데 같았다.

한참후에야 침묵을 깨뜨리면서 석싹한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왔다.

《직장장동무, 거긴 내가 가야 합니다.》

마치도 그렇게 하는것이 옹당하다고 여기는듯한
목소리를 듣고 류성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방수아바이가 어떻게 이동작업을 간다구?!...)

그는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아바이를 말리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때마침 아바이에게 권고하는 직장장의 목소리가
그를 멈추어세웠다.

《아바이, 아바이 어떻게 그런 채벌지로 보내겠습
니까?》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권고하는 말소리들이 복도
에까지 울려나왔다.

《아바이, 이젠 침묵을 베오는 문제쯤은 걱정 마십
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바이인 쉬셔야 할 나입니다.》

그러나 방수아바이의 고집은 이만저만 아니었다.

《원 당치 않은 소리, 그래도 거긴 내가 가야 하
네.》

류성의 눈앞에는 한결음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아
바이의 고집스러운 표정이 보이였다.

《이 공장구내에 첫 기관차가 들어올 때부터 난 봉
두산에 가서 침묵을 베왔네. 이젠 거기에 가면 어디
에 침묵으로 쓸만한 나무가 있는지 손금보듯 하는
날세...》

《물론 그렇습시다만...》

아바이의 말을 침착하게 다 듣고난 직장장은 그래
도 딱한듯 난처해하는 눈길로 사람들에게 돌리는것
같았다.

문밖에 그냥 서있는 류성의 마음은 안타까웠다.

60이 다 된 로인이 그 먼산에 가서 나무를 베면
얼마나 베겠는가? 아바이가 아간다고 일일 안월리도
없는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부득부득 갈을 걷고 나선
단말인가?

이윽해서 또다시 직장장의 음성이 또다시 울렸다.

《정 아바이의 소원이니 어찌겠습니까? 하나 그대
신 방조자를 든든한 사람으로 하나 골라 보냅시다.
누굴 데리고 가겠는지 아바이가 마음대로 선정하십
시오.》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류성은 자연히 긴장해졌다.
도대체 아바이가 누굴 데리고 가겠다고 하겠는지 매
우 우려되었던것이다.

아바이 역시 심중하게 여기고 섣뜻 입을 열지 않
는지 잠잠했다.

직장장이 대신 방조자를 선택해주자고 하면서

《3분기소 제대군인 교수머리총각말입니다. 그 동

무를 보내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예. 그 동무가 좋을 겁니다.》

아바이가 가는것을 잔뜩 불안스러워 하던 3분기
소조장 이 큰 숨을 내쉬며 수긍하는듯싶었다.

그러나 아바이는 무엇이라고 반대하는것 같더니
이어 석싹한 목소리가 다시 또렷이 들렸다.

《나는 류성이를 데리구 가겠수다.》

《?!...》

류성은 와들 놀라며 문가에서 한걸음 물러섰다.

《아니... 아바이가 나를?》

류성은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당장 시험치러 가야겠는데 그런곳으로 데리고가
다니 아바이가 그걸 모른단말인가?

공부를 하라고 집에서 연구사가 된 아들이 보던
책도 가져다주고 분기소에서 공부하는걸 보면 밤이
이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퇴근해주던 아바이,
자기가 대학추천서에 이름이 들어갔을 때는 누구보
다 기뻐하며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등까지 두드려
주던 아바이가 아니었던가?

그런 아바이가 언제 시험치러 떠나야 할지 모르는
이 림박에 저렇게 발목을 잡으리라고 생각지 못했
던 류성이였다.

자기가 그토록 존경하며 따르던 아바이가 무엇때
문에 저렇게 나오실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며 원망스
러워졌다.

그는 돌아섰다.

이젠 직장장을 만날 필요가 없었던것이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공장구내는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다.

초 저녁부터 류달리 깜박이던 하늘의 못별들도 구
름에 가리워 구내는 어둑컴컴하였다.

제탄에 괜히 흥분한 류성은 어디로 가는지조차 인
식하지 못하고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향방없이 달리던 그는 무엇인가 앞을 막아서는 환
각에 멈춰섰다. 환각이 아니였다. 앞에 마주 서있는
것은 분기구간의 마지막 전철기였다.

류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철기의 손잡이를
잡았다. 순간 아바이와 함께 전철기를 보던 어제일
들이 새삼스럽게 되살아났다.

2

운수직장에 배치받은 류성은 로동과를 나서 구내
선길을 따라 직장으로 향했다.

큰길로 가도 되지만 자기의 일터를 한순간이나마
빨리 밟아보고 싶었던것이다.

굽인돌이길을 돌아가던 그는 어느 분기점에서 발
걸음을 멈추었다. 색칠을 산뜻이 한 나비형날개를
인표식전철기가 신기하기도 했던것이다.

그는 날개를 애무어런 마음으로 어루만졌다.

(전철기! ... 이제부터 내가 이것과 함께 일하게

원단말이지.)

류성은 부푸는 마음을 누르며 한번 시험동작이라도 해보려는듯 지레대를 뽑아들고 힘겹게 잡아 당겨 다른 구멍에 넣었다. 그러자 분기날개가 이쪽레루에서 저쪽레루에 가서 철썩 붙는다.

몇번 반복동작을 해본 그가 막 지레대를 뽑아 다시 돌리려고 할 때였다.

《쩍-》 하는 기적소리와 함께 고탐소리가 들려왔다.

웬 로인이 숨이 터기에 닿아 달려오고있었다.

류성은 전철기손잡이를 놓고 뒤로 흠칫 물러서고 말았다.

헐떡거리며 뛰어온 로인은 그가 제껴놓은 전철기 방향을 본래대로 밀어놓았다. 순간 쓴살같이 달려오던 기관차가 그의 앞을 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갔다.

그제야 모두숨을 후- 내쉬고 로인은 류성이를 쏘아보며 노발대발했다.

《누가 함부로 전철기를 다치라고 했느냐 엉?! 이게 뭐 장난감인줄 아느냐?》

아바이는 무슨 큰 변이나 생긴것처럼 펄쩍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숙이고말았다.

그때 직장장이 달려오지 않았던들 아바이는 류성이를 로동안전파로 끌고 가자고 했을것이다.

《아바이, 이거 왜 이러십니까?》

직장장은 펍 놀라며 류성과 아바이를 번갈아 보았다.

류성은 자기가 저지른 일때문에 아무말도 못했다. 아바이만이 들고온 걸레로 전철기의 먼지를 닦으며 노염스럽게 말했다.

《전철기에 함부로 손을 대기에 내 욕을 좀 했수다.》

《그래요.》

직장장은 매우 난처해하며 아바이 앞에 사과하듯 말했다.

《아바이, 이 동무가 아바이네 분기소에 새로 배치되어 왔습니다. 류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로동현장에 나와 몇해 단련해가지고 대학에 가겠다고 한대던 그 학생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따라 나오지 못하다나니...》

《그런걸... 이거 안됐네. 류성동무, 날 용서하게...》

아바이는 친근한 음성으로 동무라고 하며 매우 반가와하였다.

그렇수록 류성은 더욱 송구스러워 고개를 숙이였다.

《초면인사가 별나게 됐구만... 어쨌든 아바이, 류성이를 잘 돌봐주십시오.》

사람좋은 직장장은 이렇게 부탁하고 오던 길로 되

돌아갔다.

방수아바이는 전철기옆에 걸터앉아 담배연기를 풀풀 태우며 못내 귀여운듯 한동안 류성이를 들여다 보았다.

류성은 레루우에 앉아 아바이의 눈길을 마주볼수 없어 머리를 떨구며 자갈을 집어 레루에 금을 벅벅 그었다.

《그래 아버지, 어머니는 무얼하느냐?》

《아버지는 화학공장 기사구 어머니는 가내반에서 일합니다.》

류성은 계집애처럼 수줍음을 타며 머리를 숙인채 대답했다.

《음... 그런데 넌 대학으로 곧바로 가지 않겠단말이지?》

《일하다가 대학에 가면 못습니까?》

류성은 시무룩 웃으며 아바이를 쳐다보았다.

《아, 그러니 로동계급의 심장을 안고 대학으로 간단말이지... 참 기특한 생각이다.》

로인은 투박한 손으로 류성의 어깨를 도닥여 주며 대견해하였다.

그날부터 류성은 아바이와 함께 이 마지막 분기점의 전철기를 맡아보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내길로 차들이 오갈 때 그는 퍼그나 먼곳에 있는 이 마지막 분기점의 전철기를 제끼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뛰어다니군했다.

그러면서도 잠시간이 있으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아바이는 출근할 때 통근차에서 잡담을 하는데 귀가 솔깃해있는게 아니라 책에 정신을 팔고 있는 류성이를 기쁨에 넘쳐 바라보군하였다.

어떤 때는 류성이가 고심스레 푸는 문제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자기도 안타까운듯 담배연기를 입귀로 풀풀 내보내며 《안풀리냐?》하고 물었다.

그러다가 그가 기어이 수학문제를 풀어낼을 때는 자신의 일이 잘된것처럼 담배대를 한손에 뽑아 들고 흐뭇한 웃음 짓군하는것이였다.

아바이는 공장의 《창의고안명수》였다. 자도 대지 않고 연필로 쭈쭈 그린 창의고안의 략도들에는 류성의 노력도 얼마간 들어가있었다.

그래서 아바이는 직장에서 증명할 때면 종종 《류성이가 계산한데 의하면...》, 《그가 푼데 기초해서...》 하고 말하군했다.

이것이 총각들의 흥을 말하기 좋아하는 처녀들이 《수학박사》라는 굉장한 이름을 붙여 직장안에서 부르기 시작하던것이 온 공장에 퍼진것 같았다.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날도 류성은 일찍 출근하여 교대시간전까지 휴게실에 앉아 수학문제를 풀어보고있었다.

문제는 여간만 까다롭지 않아 시간을 많이 빼앗아냈다. 문제풀이의 고리를 찾지 못해 고심하던 류성

은 갑자기 들리는 기적소리를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교대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교대차여김시간이 다 되었던 것이다.

류성은 풀던 수학책을 집어던지고 분기점으로 향해 뛰었다.

몇번이나 돌부리를 걸어차고 침묵에 걸려 엎어질 듯하면서 분기점까지 뛰어간 그는 그만 그자리에 굳어져버리고말았다.

그때까지 교대를 인계하고 벌써 퇴근했어야 할 아버지가 전철기를 제끼고있었던 것이다.

류성은 뜨거운것을 울적 삼키며 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아버지, 왜 교대시간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급히 뛰어오나. 원, 엎어지면 어쩔라구...》

아버지는 혀를 차며 오히려 류성이를 탓했다.

류성은 코마루가 쟁했다.

그것도 한순간이었는지 그는 태연한 기색으로 교대를 하는 것이었다.

(하긴 내가 시험준비를 한다는걸 다 알고있으니 아버지도 이렇게 서있는것이이지...)

아버지는 그의 표정에서 이제껏 보지 못하던 이런 마음을 발견하였다. 비록 큰일은 아니지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만약 교대자가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이 일을 두고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채벌지에 그를 데리고가자고 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그러나 류성은 그것을 모르고있었다.

류성이에게는 다만 지금까지 진심으로 도와주던 아버지가 바쁜 목에 와서 이렇게 나설수 있는가 하는 불만만이 가슴에 가득 차오를뿐이었다.

류성은 생각할수록 섭섭하면서도 의문스러웠다. 그러나 인차 생각을 고쳐 하며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버지도 입학시험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와했던가. 언제나 실력이 승리와 위훈의 열쇠라고 일러주던 아버지가 아니었던가.

마음속으로는 뜨거운것이 치밀어 올랐다.

(아무려면 입학시험이 박두한 이때 외면해버리수가 있을까?... 혹 조용한 산골에 가서 시험준비를 시켜주실수 있어.)

그리고 보면 류성은 자기가 지레 웅졸한 마음을 내보인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다시 직장장을 찾아 사무실쪽으로 걸어갔다.

3

림지에 도착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금방 나무쪼기기를 끝낸 류성은 땀을 씻으며 송진이 내배여 그대로 허영게 말라버린 나무그루터에 걸터앉았다.

숲은 점심참이 되어 한층 고요한 정서에 감긴듯 싶었다.

이따금 봉두산줄기의 우거진 숲을 흔들며 살랑살랑 바람이 골짜기로 불어와 달아오른 몸을 건뚫하게 할뿐이었다.

기분이 상쾌해진 류성은 한동안 숲속의 정서에 취해있었다.

이따금 나무의 그윽한 송진내, 시큼털털한 나무잎새는 냄새, 감미로운 분비향기, 여러가지 산나물 내가코를 찌르며 폐부까지 스며들었다. 새들의 우짋음이나 또한 숲속을 울리며 귀맛 좋게 들려온다.

실로 신비스럽고 황홀하고 상쾌한 감을 느끼게 하는 숲이었다.

그러나 류성은 인차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늘 꿍무니에 차고 다니는 책을 뿜아들었다.

아침에 무엇때문인지 산등을 넘어 봉두산골짜기로 들어간 아버지를 기다려야 했다.

(아버지는 어디에 가 점심시간도 잊고있을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 시간까지도 아가와 서둘러 책에 눈길을 박았다.

(2원1차방정식의 유도공식이라...)

그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복잡한 공식에 정신을 쏟으며 그것을 해득하기에 온 심혈을 기울였다.

이때 머리위에 가로질러 나온 나무아지에 박새가 날아와 앉아 종알거리며 청아한 소리를 내었다.

《고놈의 새가 분수도 없군. 간곳마다 방해군들뿐인걸...》

류성은 헛손질을 하여 새를 쫓아버리고 다시 책에 눈길을 떨구었다.

《그렇지! 이렇게 유도한단말이지.》

그는 자기가 새 식을 발견한것처럼 귀뿌리를 어루만지며 놀라움과 기쁨을 표시했다. 공부에 정신이 팔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었다.

봉두산마루에 올랐던 해도 이제는 서쪽으로 기울었다.

그는 어디선가 풍겨오는 향긋한 담배내에 머리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수아버지가 저쪽에서 짙어놓은 나무통을 타고 앉아 차로 재고있었다. 그는 책을 꾸깃꾸깃 말아 쥐고 그리로 다가갔다.

《오셨어요?》

《으-음. 왜 고부를 더 하지...》

아버지는 애용하는 상아물부리를 입에 문채 입귀를 실룩거리며 돌아보았다.

류성은 그저 싱긋이 웃기만했다.
《오늘은 성적이 꽤 좋은 모양이지 헛헛허… 그래
이게 오늘 찍은 나무인가?》

《예.》

류성은 자 어때요 이만하면 괜찮지요 하는 궁지가
어린 얼굴로 아바이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그러나 아바이는 덤덤히 고개를 짓속이고 앉아 담
배만 빨았다.

류성은 심드렁해졌다.

아바이는 한동안 나무들을 더듬어보더니 몸을 일
으켰다.

《저 안골로 들어가보지 않겠나?》

《거긴 왜요?》

《나무들을 좀 돌아보자구.》

《그럼 식사는 어떻게요.》

《음- 식사, 가서 하면 안될가.》

《안돼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대구…》

류성은 아바이의 의논조 비슷한 말을 강대껌듯 밀
막으며 밥팩을 걸어놓은 나무로 다가갔다.

《헛허… 오늘은 별루두 식사에 관심이 높다. 제가
밥을 한것이니 단단히 뿔내고싶은 모양이지… 그건
아침에 다 보았으니 점심은 안골에 가서 하세나.》

아바이는 유쾌한 목소리로 말하며 성큼 한발을 산
등성이 쪽으로 옮겨놓았다.

안타까운 눈길을 하고있던 류성은 아바이의 마지
막 말에 피식 웃고말았다.

요전번 날이었다.

늙은 몸에 과하게 피로가 실린데다가 갑자기 소낙
비까지 맞은 아바이는 전쟁때 입은 상처가 도져 나
며 눕게 되었다.

그래서 류성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
다. 어머니가 지어주는 밥을 먹고 고스란히 자란 그
는 밥이라곤 해본적이 없었다.

그때 그는 장작불을 조절할줄 몰라 밀밥은 태우고
웃밥은 설게 만들었고 국은 너무 짜게 해놓아 앓는
아바이에게 식사도 못울리고 얼마나 바빠했던지 모
른다.

그다음부터 아바이는 류성에게 종종 이런 말로 통
을 놓곤했다.

《사내라 해서 밥할줄을 몰라서야 되나. 부끄럽지
만 어머니에게서 밥하는걸 배워가지고 올걸 그랬
네.》

그런 때마다 류성은 어느때든지 본때를 보여 《명
예》를 회복해 보려고 결심했다.

허나 자정이 넘을 때까지 공부를 하느라 눈을 쥐
여뜯다가 자고 일어나면 아바이는 아침밥을 다 해놓
고있었다.

오늘 아침에야 안골치기로 일찍 떠나려고 아바이
가 바빠 돌아치기에 아침밥을 지을수 없었다.

밥도 국도 어지간히 잘된것 같았다. 아바이도 식
사를 하면서 만족한듯 싶었다.

그 일을 생각하며 류성은 손에 들고있는 점심팩을
난처해서 바라보다가 저쯤 등성으로 올라간 아바이
를 따라갔다.

그들은 봉두산허리를 에둘러 한참 깊은 골로 들어
갔다.

개울같은 물이 줄줄 흐르는곳을 지나 활동처럼 등
그스름한 명마루에 올라섰다.

《자, 어떨가?》

아바이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밀도꼴도 없이 이
렇게 물었다.

류성은 손짓하는것을 보고야 무엇을 묻는지 알았
다.

한아름 될 나무들이 꼭 들어차있었다.

《끓지.》

《예… 끓긴끓곤요.》

류성은 시뚱해서 대답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잡관목숲이 보이는 한발 남짓한곳에 찍어넘긴 두
대의 나무가 있었다.

거기로 다가간 아바이는 그루터에 앉아 담배를 꺼
내들었다.

《이 나무들은 첫 침목을 베러 왔을 때 심은건데
다른곳에 비해 잘 자랐어. 나무도 밀거름이 좋아야
하는가보지…》

공장에서 첫 철길을 놓으려고 침목을 베러 와서
폭격에 불타버린 넓은 산에 나무모를 심던 그때를
회상하듯 아바이는 푹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담배연기가 눈에 들어간듯 눈길을 찡그
리며 류성이를 돌아보았다.

《이제는 여기서 나무를 찍어야겠네.》

《아니! 여기서요?》

류성이는 아바이의 말에 눈이 둥그래졌다.

《왜서?》

아바이는 놀라는 류성의 의아해서 바라보았다.

여기로 가져고 할 때 왜 그럴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이런 말이 나오리라곤 꿈에도 생가지 못했
던 류성이었다. 그는 불만어린 눈으로 아바이를 쳐
다보았다.

《저아래도 좋은 나무가 많은데 하필이면 여기것을
베려고 하다니요.》

《그것들은 다 미끈하게 자란거야…》

《미끈하면 더 좋지요 뭐.》

《아무래두 우리야 침목만큼씩 잘라 쓸게 아닌
가.》

아바이의 음성은 높아지려고 했다.

류성은 입을 다물었다. 아바이가 야속했다.

이미전에 숲속을 다니며 곧게 자란 나무들을 살펴
보면서 《참 잘 자랐군. 큰 원목감이 되겠는데…》

라고 중얼거리더니 그대로 넘길수 없는 모양이었다.

류성이에게는 안팎의 나무나 이미 벼넛의 나무나 별치 않은것 같았다.

애초에 떠나올 때 생각한 자기 미련대로 일이 되지 않았지만 류성은 힘든 채벌작업에서 한바탕 해제 끼면 어느정도 공간이 나리라고 위안하며 아바이를 도와 왔었다.

그런데 채벌장을 안팎에 옮기고 오르내리자면 아침 일찍 떠나고 밤이 이슥해서 내려가야 했다.

그는 마음이 초조해졌다.

일은 더 허망해 지는것만 같았다.

아바이는 여전히 담배만 빨았다. 이렇게 하다간 언제 공부를 한단말인가. 속깊은 아바이가 그걸 모를리 없는데... 도무지 리해할수 없었다.

류성은 날이 어떻게 저무는지도 모르고 줄곧 이런 생각에 잠겨 일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가고 황혼이 깃들기 시작했다. 수림속에서부터 땅거미가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토목장까지 나무를 끌어다놓은 류성은 아바이를 따라 산전막으로 내려오고있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류성의 마음처럼 길은 축나지 않았다. 이따금 아바이가 나무들에 붙은 기생살이닝쿨들을 베어주느라고 지체했던것이다.

오솔길에 접어들어 류성은 너무도 빨리 다가드는 어둠을 야속스럽게 바라보았다.

직장에서라면 아직도 하루일을 끝마치고 두어시간은 전등불 신세를 안질수 있을 때였다.

류성은 그 생활이 그리웠다.

불빛 환한 좁은 방안에 자그마한 책상이 있는 분기소와 탁상등이 깜박이던 서재같은 집의 옷방이 그리워졌다.

그는 깊숙이 밟히는 덩불우로 걸죽한 녹물이 올라와 몸에 짜릿한 감을 주어서야 정신이 들며 어두운 산천의 현실로 돌아왔다.

밋밋한 룡선을 내려서고있었다.

룡선을 넘어섰으니 산전막에 다 왔을것이라는 생각에 앞을 바라보았다. 저쯤 비탈아래 어슴푸레한 속에 산전막이 호젓이 서있는것이 보였다.

그는 아바이보다 몇걸음 앞서 먼저 걸어가 문고리를 잡았다.

불빛 한점 없는 산전막의 문안에 들어서자 설렁한 감이 안겨들었다.

그가 성냥을 그어들고 기름등잔이 있는 부뚜막쪽으로 다가갈 때였다. 바스락소리가 나며 병같은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쟁가당 하고 들렸다.

그 순간 류성은 깜짝 놀랐다. 들고있던 불까지 죽어 눈앞이 먹물을 풀어놓은듯 캄캄해졌다.

가다름 모든것이 조용했다. 기름내가 코를 찌르며 진하게 풍겨오기 시작했다.

뒤에서 빙긋하고 성냥불이 커졌다.

방수아바이가 불을 들고 부뚜막쪽으로 다가갔다.

그때에야 떨어진 사태가 희미한 성냥불아래에 드러났다.

기름이 부뚜막으로부터 걸쭉하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진 유리조각우에 밤깍지들이 너저분하게 떨어져있었다.

아바이가 방바닥에 떨어져 거꾸로 박힌 등잔을 들어 흐른 기름을 대충 문댄 다음 불을 달아 시렁우에 올려놓았다.

《허허... 다람쥐란놈이 교약하게 놀았군.》

아바이는 어이없는듯 입귀를 실룩거리며 웃고나서 천조박으로 기름을 묻혀 그릇에 담았다.

류성은 이 모든것이 어처구니가 없고 손맥이 풀려 멍청하니 보기만 했다.

다람쥐가 알미워나고 그놈을 잡지 못한것이 분했다.

얼마전에 본 만화영화에서는 다람쥐가 도적의 루명을 쓰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도 괜한 소린가싶었다. 자기 일을 다람쥐까지 방해하는 것 같았다.

아바이는 종이장을 쓰레박처럼 오그려 쥐고 한손가락으로 묵묵히 기름을 모아 담았다. 기름은 그릇의 밑굽을 겨우 넘을가말가했다.

그것이면 겨우 이틀이나 불을 봐낼것 같았다. 3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밤길도둑 공허하게 천정만 바라보며 터질것 같은 마음을 달랜단말인가!

류성은 어이가 없었다. 얼마후에 그는 돌아서 열어놓은대로 있는 문을 닫았다. 그바람에 등잔불이 가물가물했다.

그러나 인차 등불은 아무일 없은듯 여전히 등색안료를 묻힌 붓초리처럼 붕긋하게 피어올랐다.

4

읍으로 떠나는 방수아바이를 바래고난 류성은 막에 들러 도끼를 들 오솔길을 따라 산으로 향했다.

오전내 내린 비때문에 막에 내려와 점심식사를 한후 아바이는 이젠 한 열흘만 나무를 찍으면 채벌작업은 기본적으로 끝날것 같다면서 산에서 읍까지 나무나를 문제, 나무를 실을 화차를 신청하는 일때문에 역으로 내려갔던것이다.

오솔길이 끝나자 류성은 숲에 들어섰다.

아직까지 이슬방울을 털지 못한 침엽수들이 해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시게 반짝이었다.

그는 누가 나무를 찍어갔는지 들성들성 그루터기만 남은 채벌장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곳에서 나무를 찍는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토목장까지도 얼마 안되고 산전막도 가까와 제격 찍어 넘기고 내려가면 불 없는곳에서 다문 몇시간이

라도 얻을수 있을것이였다.

류성이에게는 여기서 아바이가 지적해준 안꿀치기 나무채벌장까지 가려면 아득히 멀어보였다.

류성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가까이에 있는 나무에 옮겨놓았다.

그러나 인차 주춤거렸다. 아까 아바이가 떠나면서 찍으라고 정해주던 안꿀의 굵은 나무들이 방불히 떠올랐던것이다.

류성은 건잡지 못할 동요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고 멍히 나무들을 바라보다 무언중 부화가 울컥 치밀어 자신에게 화를 내었다.

《에이 여기서두 특별히 전망 없는 나무만 골라 찍으면 될게 아닌가. 나무라는거야 자라면서 꼬부라질지 쪼질지 어떻게 알수 있담?... 괜히 아바이가 그러지.》

그는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위안하며 나무에 도끼를 박았다. 자신의 나약한 마음을 질책이나 하는듯 끼익끼익 도끼질을 세게 해냈다.

이렇게밖에 할수없이 만드는데것이 아바이의 고집으로 보였다.

도끼질소리는 먼산으로 울려 퍼졌다.

단숨에 한대를 찍어넘긴 류성은 얼굴로 철철 흐르는 땀을 목에 걸었던 타울수건으로 대충 문졌다. 어깨죽지가 뻘근해 오고 손바닥이 얼얼했다.

하지만 그는 사기가 등등하여 손바닥에 침을 뱉어 도끼를 든든히 잡아쥐며 다음 나무에로 다가갔다.

그가 실한 나무밑둥에 막 도끼날을 박으려 할때였다.

뒤에서 누가 도끼자루를 휙 나누켰다. 그는 엉덩방아를 찢으며 벌러 나자빠졌다.

류성은 얼굴을 들며 굳어졌다. 이제는 읊으로 가는 절반길은 갔으리라고 짐작했던 아바이가 숨을 헐떡거리며 서있었던것이다.

아바이 얼굴은 이그러질대로 이그러져 무섭게 보였다.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성을 내는 방수아바이를 그는 이때까지 본 일이 없었다.

어찌나 얼굴모습이 변하였던지 옷을 때마다 그윽하던 눈귀에 거미줄같은 주름살이 뒤엉키였다.

한참만에야 아바이는 주름살을 피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누가 이 나무를 찍으라고 했나. 누가?!...》

류성은 말을 먹어버린듯 중얼거리며 변명 비슷이 말했다.

《봉두산에서야 어디서 찍던...》

류성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이상 아무말도 못했다. 류성은 말을 먹어버린듯 중얼거리며 변명 비슷이 말했다.

아바이의 씩씩거리는 숨소리만 높아지더니 준절한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그것이 문제야. 자기만 쉽게 해먹겠다고 그렇게 행동하는것이 문제란말이야. 다들 그렇게, 그렇게만 생각해보라구!...》

《...》

류성은 고개를 번쩍 들었으나 무엇이든 녹여낼것 같은 아바이의 눈길에 머리를 떨구고말았다.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고 쉬운곳부터 찾아들기 시작하면 대학을 나온들 무슨 소양이겠는가. 살려거든 깨끗하게 살아야지. 물론 가까운데서 아무 나무나 찍으면 쉽지... 그게 로동계급의 일본새를 배운다는건가? 그레가지곤 몸값도 못할줄 알라구.》

아바이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류성이를 바라보다니 바람을 일구며 옆을 지나 등성으로 걸어갔다.

류성은 어깨를 떨구고 주저앉았다.

이때까지 쌓아온 량심의 성실한 탐이 줄지에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단 말인가? 변명할 여지없는 억울함이 겹쳐들었다.

(내가 과연 아바이가 말한것처럼 일해왔던가. 아니다. 3년세월 현장에서 철저히 고국과 혁명동지들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왔고 그 마음을 안고 대학에 가려고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왔다. 오늘도 시간을 좀 얻자고 했을뿐이지 결코 조국의 귀중한 재부에 내 후에 와서 일할 사람들을 생각지 않아서 여기서 찍자고 했던말인가?!... 아바이의 태도는 너무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위한 하기 위한 변명으로 밖에 되지 않는것 같았다.

아바이가 한 말은 온 산이 되받아 외우는듯 좀처럼 귀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모든것이 막막해지고 쓸쓸하기만 했다.

류성은 풀이 죽어 산전막으로 내려왔다. 그는 피창문가에 점도록 서있었다. 캄캄한 방안은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먼저 내려온 아바이는 간다온다 말없이 나간것이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젠 자정이 가까와왔다.

캄캄한 숲에는 이따금 비구름을 몰아오려는듯 바람만 불어댔다.

아바이는 읊으로 다시 나간것 같은데 그 성격으로 보아 그곳에서 밤을 새고 떠나올것 같지 않았다.

어디 오다가 길을 헛갈려 잡관목숲에서나 이름도 모를 골짜기에서 고생하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며 속이 덜컹해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봉두산의 지형을 손금보듯 한다는 아바이가 길을 잘못든것 같지는 않았다.

마구 찾아 떠날수도 없는 안타까움을 안고 류성은 아래목에 내려가 싸늘하게 식은 구들에 앉았다.

초저녁에 저녁밥을 짓느라고 장작을 조금 뺐더니

벌써 식은것이다.

어제선가 피상한 짐승의 단마디진 울부짖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그에 화답하듯 바람소리는 더욱 아우성쳤다.

책을 넣은 배낭에 얼굴을 묻고 아버이를 기다리던 류성은 어느결에 굳잠이 들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불티가 탁탁 튀는 소리에 눈을 뜨며 반쯤 몸을 일으켰다.

자기 몸무에 포근한 모포가 덮여져있고 구들이 뜨근뜨근해 왔던것이다.

벌떡 일어난 류성은 부엌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있으리라고 짐작한 아버이는 없고 아궁앞에 세워놓은 나무가지에 그의 저고리만 걸려 김이 물물 피어나고있었다.

류성은 아버이를 찾아 산전막의 문을 열고 나섰다.

밖은 푸름푸름 날이 밝아오고있었다.

그는 몸에 안기는 습기찬 차가운 공기와 좁은 석비레마당에 도랑처럼 पे인 물흐른 자리를 보는 순간 밤새 비가 왔다는것을 알았다.

류성은 굴뚝이 서있는 모퉁이로 돌아갔다.

집뒤로 돌아가는 그에게로 집을 에둘러 쫓 쩌놓은 도랑이 뿔뿔나게 눈에 안겨왔다. 그는 창고쪽으로 돌아나왔다.

거기에서 방수아버이가 쭈그러앉아 나무를 쪼개느라고 칼질을 하고있었다.

류성은 아버지에게로 조심조심 다가갔다. 그러나 전날에 있던 일로 하여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어깨가 추 처져 주저주저하였다.

아버이가 인기척을 듣고 돌아보았다.

《류성인가. 왜 더 자지 않고 일어났나?》

《잘대로 다 잤어요.》

그는 공손히 대답했다.

《허허... 제대에 도랑을 쩌놓지 않았더니 간밤의 홍수가 자네를 떼올뻔했다니까.》

순간 상긋한 광술냄새가 풍겨왔다.

류성은 그때에야 널려있는 광술나무조박들을 알아보았다.

《광술나무군요.》

《음- 늦어서 읍에 도착하다보니 기름을 얻지 못해 근심했었는데 오던길에 요행 죽은 소나무를 만나지 않았겠나...》

아버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다른 광술옹지가 붙은 아지를 잡았다.

류성은 가슴이 뭉클했다.

봉두산에는 소나무가 적었다. 그러니 아버이는 밤새 저것때문에 비를 맞으며 온 산판을 돌아다닌것이 아니겠는가?

류성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아버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토록 무섭게 성을 내던 아버지같지 않았다.

《이젠 밤새도록 공부하라우.》

아버이는 정겹게 류성을 올려다보며 다 찢긴 광술을 거쿨진 손으로 차곡차곡 모았다.

류성은 아버지앞에서 굳어진듯 움직이지 못했다.

참 이상한 아버지였다.

(아버이는 얼마나 너그럽고 대범한가!)

이때까지 꾸넌했던 생각이 재벌처럼 사그러지고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오늘 저녁부터 밤을 패야겠어. 항일유격대식으로 말이야! 나두 자지 않겠네.》

아버이는 산가치같이 묶어진 광술을 쳐들고 일어나 막으로 걸어갔다.

류성은 몇해를 함께 일하면서 알것 같으면서도 다 알지 못하고있는 방수아버이를 눈물이 그렇게서 바라보았다.

5

안골의 우측 산기슭에 붙어있는 벼랑턱에서 나무를 직기 시작한 이틀째부터 시작한 비는 연 닳새째 내렸다.

비물은 골짜기마다에서 꾸역꾸역 밀려나와 좁은 개천을 범람하여 넓은 강처럼 흘렀다.

오늘에야 봉두산허리로 안개가 자욱히 끼면서 비발이 성글어지는것 같았다.

류성은 마지막 나무통들을 톱줄로 매어 끌고 진탕길을 힘겹게 내려가고있었다.

그동안 해 나는 날을 기다려 내려가자고 나무를 찍어 전부 쌓아두기만 했었다. 그런데 채벌작업을 어제까지 끝내고 보니 별수없이 오늘은 끌어내리게 되었다.

발을 옮길 때마다 신발에 진흙이 잔뜩 달라붙어 질벅거리며 무겁게 매달렸다.

그는 두대의 나무가 서로 제작기 당에 머리를 박고 끌리지 않을 때마다 끄꽂 갑자르며 젖먹은 힘까지 다 뺐다.

조금만 더 끌고가면 벼랑턱까지 가닿을수 있었다.

땀과 비물에 잔등이 흠뻑 젖었다. 몸에 달라붙은 옷에선 김이 물물 피어올랐다.

류성은 모양없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바위를 에둘러 벼랑가예로 다가갔다.

턱끝에서 가스락물처럼 흘러 떨어지는 비물을 손바닥으로 훔쳐낸 그는 허리를 굽히고 나무를 벼랑아래로 굴리려다 아버이가 급하게 다가오는것을 보고 웬일인가 싶어 마주 일어섰다.

《떨구지 말라우.》

아버이는 손을 뻗 내저으며 말했다.

류성은 의아해서 아버이를 바라보았다.

《왜요?》

《나무들이 벼랑가에 모두 걸렸네.》

《예-?!》

류성은 눈이 둥그래졌다. 그는 벼랑가로 달려갔다. 비가 뚝뚝 떨어지자 자욱히 끼던 안개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째사리로 언뜻언뜻 무드기 쌓여있는 나무가 내려다보였다. 나무들이 벼랑중턱에 가로질러 나온 세 그루의 꼬부랑나무에 걸려있었던 것이다.

류성은 사전에 벼랑을 살피지 못한것이 가슴이 저리도록 후회되었다. 안개 낀 날씨가 야속스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연을 탓할것이 못되었다. 다 자기의 불찰이었다.

류성은 앞에 다가온 아바이의 얼굴표정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바이는 아래만 굽어볼뿐 말이 없었다. 그가 보기에는 얼굴이 류달리 컴컴해진것 같았다.

(걸린 나무들을 그냥 버릴수야 없지 않는가.)

다음순간 류성은 얼굴이 재물을 뒤집어쓴것처럼 활짝 붉어졌다. 그냥 벼랑가로 내려가 꼬부랑나무를 찍어 버릴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자기의 실책을 아프게 느끼며 아바이앞에서 더 지체할수 없었다.

서둘러 꿈무늬에 찻던 도기를 뽑아든 류성은 돌격전에 나선 병사마냥 아바이앞에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것을 다 잊고 한가지만을 생각하는 젊은 기백이 어려있었다. 그것은 희생성과 같은 담력이었다.

《아바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방수아바이는 한순간 병긋 불빛이 이는듯한 엄한 눈길로 류성을 쏘아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다시 절벽가로 얼굴을 돌렸다.

류성은 아바이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며 주저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생각많은 아바이들이야 그럴수 있지 않는가!)

류성은 성큼 아슬한 벼랑끝에 나섰다.

그찰나 아바이의 억센 손이 류성의 덤미를 잡았다. 류성은 넘어질듯 뒤걸음질쳐 나왔다.

아바이가 몹시 승엄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류성을 쏘아보았다. 뒤이어 아바이의 얼굴은 순간 변하더니 것처럼 만족어린 미소가 어렸다.

《이 자식아 일이라는게 항상 잘 되는게 아니야.》

《...?!...》

그리고는 류성의 도기를 뺏어들었다.

잠시동안 류성은 멀거니 서서 생각에 잠겼다.

산관로동에서 피치 못할 실수가 있다는것을 알고 있는 그였다. 그것을 모르고 벼랑가에 나선 류성이 아니었다.

각아지른듯한 절벽가에 해묵은 이끼가 비물에 젖어 미끈거리는 위험한곳을 내린다는것은 상상만 해

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다.

다음순간 류성은 아바이가 말린다고 이렇게 멍청하니 서있는 자신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는 그럴수록 자신이 내려가야 한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비는 끊을것 같으면서도 계속 내렸다.

류성은 결연한 태도로 아바이에게 다가섰다. 아바이는 큰 나무밑등에 바줄을 매고있었다.

《아바이!》

그러나 아바이는 류성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했다.

《내가 내려가야 하네.》

조용하면서도 저력있게 울리는 그 석실한 음성은 직장 협의회때 봉두산으로는 자신이 가야 한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던것처럼 승엄하게 들렸다.

류성은 흠칫 몸을 떨며 공포에 질리듯 황급히 아바이의 팔을 그러잡았다.

《아바이, 아바인 위험합니다.》

《류성인 이제 대학시험 치러 가야 할 사람일세. 앞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이구. 앞으로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산같이 기다린단말이야.》

류성은 가슴이 뭉클하며 목안으로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어올랐다.

이어 눈에 물안개같은것이 콧 끼며 앞이 보이지 않았다.

《아바이, 그런 말씀도 합니까? 대학이 문젠니까? ...》

걱정을 건잡지 못해 고개를 숙인 류성은 아바이의 손이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고 바줄이 쥐여지는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한몸바쳐 미래를 담보해줄줄 아는 훌륭한 로당원, 혁명동지를 부모와 같은 친절으로 위해주는 로동계급의 뜨거움이 갈마들면서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슴이 터져올뿐이었다.

순간이나마 아바이앞에서 자기도 그런 고귀한 인간으로 살고싶은 충격이 심장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딘가 모르게 사자와 같은 용맹이 가슴가득 콧 차오르는감을 느꼈다.

류성은 재빨리 팽팽하게 당겨여진 바줄을 타고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류성의 뇌리에는 방수아바이가 귀중한 인생의 한 전환의 시기에 자기를 왜 이리로 데리고 왔는가 번개치듯 납득되었다. 그럴수록 더욱 눈굽이 젖어내렸다.

그는 바줄끝을 더 든든히 부여잡고 미끄러져 내려가며 아래를 굽어보았다.

아바이가 가파로운 벼랑중턱의 꼬부랑나무에 기대어 서서 우를 올려다보고있었다.

건잡을것 같지 않던 눈물도 순간에 맺고 가슴이

짜릿해왔다.

벼랑가를 감싸며 느물느물 기어오르던 안개가 아바이를 삼켜버렸다. 그래도 류성은 웃음을 지으며 아바이의 손에서 도끼를 뺏아잡았다.

《자네 정신있나! 웅?!... 이 위험한곳에...》

《아바이, 류성인 위험하고 아바이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바인 년로한 몸입니다. 해방후 40년간 혁명을 해온 아바이를 이런 위험한곳에 나서게 한다는 것은...》

《뭐 뭐라구?! 녀석두 원!...》

오히려 방수아바이가 눈시울을 습벽이었다.

류성은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나무를 찍기 시작했다.

절벽이 쩡-쩡 울리고 허연 도끼밥이 아래로 떨어졌다.

아, 얼마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아바인가. 이런 로동계급들에 의하여 우리의 앞날은 담보되고 조국은 끝없이 부강해지는데가 아닌가!

류성은 혁명동지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느껴 본 적이 처음이었다.

어찌 대학에 간들 이런 위대한것을 배울수 있으랴.

류성은 한없이 행복하였다.

이런속에서 어느덧 비가 뚝뚝.

안개가 걷히자 봉두산마루에 해빛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깨끗이 미역을 감은듯한 숲과 절벽은 신비스러운 지경이었다.

잠시후에 도끼질소리가 멎고 우지끈 하는 소리를 내며 나무가 아래로 굴렀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굴러떨어지는 나무 사태에 절벽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나무 몇대가 탕탕 튕겨나 멀리 뿌러지며 개울물에 떨어져 뽀얀 물보라를 일으켰다.

류성은 만세라도 부르듯 도끼를 쥔 손을 들어흔들며 아바이를 돌아보았다.

방수아바이는 꼬부랑나무를 찍어낸 그루터에 서서 흐뭇한 눈길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땀을 씻고있었다.

류성은 젖은 눈시울을 빗내이며 병긋이 웃었다.

해빛이 한껏 밝아지며 푸른숲너머로 칠색무지개가 피여올랐다.

그것은 마치 로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린 배움의 꽃대문처럼 황홀하게 바라보였다.

두사람은 오래도록 절벽가에 서있었다.

-새책소개-

《5개지구전선문고》(1)《충진군의 발걸음소리》와 《5개지구전선문고》(2)《또다시 대고조예로》(국반판 200페이지)

문고(1)《충진군의 발걸음소리》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근로자들의 보람찬 투쟁을 형상한 5편의 단편소설들과 25편의 서정시가 들어있다.

문고(1)에 실린 단편소설 《교차점》(차승철)에는 방직공업부문 근로자들의 생활이 반영되어 있으며 단편소설 《궤도우에서》(림재성)에는 철도화물 역일군들의 생활이 그려져있고 단편소설 《첫걸음》(리화)에는 강철로동계급들의 생활이 형상되어 있다. 또 단편소설 《붉은 수건》(박미성)에서는 벽찬 현실속에서 힘있는 경제선동을 벌리고있는 우리 예술인들의 생활을 형상하고 있으며 단편소설 《아름다운 처녀》(팽문희)에서는 태천발전소 청년로동계급들의 생활을 반영하고있다.

또한 문헌(1)에는 5개지구전선들에서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로동계급들의 뜨거운 사상감정을 격조높이 노래한 여러편의 서정시들이 들어있다.

문고(2)《또다시 대고조예로》에는 단편소설 5편 서정시 22편이 실려있다.

여기에는 안주지구탄광 건설사업소 수직갱 청년 건설자들의 랑만적인 생활을 취급하고있는 단편소설 《불타라 심장아》(허인수)와 수도청년건설자들의 생활을 형상한 단편소설 《버드나무 한그루》(오창수) 그리고 순천지구비날론건설자들의 생활을 반영한 단편소설 《15분전12시》(조대환)가 들어있다.

또한 문고(2)에는 5개지구전선들에서 보람찬 투쟁과 생활을 펼쳐가고있는 우리 로동계급들의 산 숨결과 목소리를 그대로 느낄수 있게 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서정시들이 실려있다.

우리

리 종 덕

생각해보면
말을 배울 때부터
더없이 좋은 말로 익혀왔어라
우리 유치원 우리 동무...

내 자라면서도
노래처럼 불려왔어라
우리 분단, 우리 학교...
어른이 되어서도
더없이 친근하게 부르는
우리 작업반, 우리 농장...

어찌하여
내 땀으로 가꾼 첫이삭을 두고
온 농장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가
단한번 수행 못한 분공을 두고
어찌하여
동무들이 밤을 새우며 피로와했던가

자신의 이름보다도 더 귀중히 부르는
우리라는 이 말속에 나도 있어
조국땅 전부도
나의것으로 부를수 있는 크나큰 권리를 지니었나니
그래서 나에게는
먼 광산의 발파 소식을
단 하루 듣지 못해도
내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고
원앙어로에 나간 동무들 소식도
내집식구처럼 기다려지누나

그래서 나에게는
기쁨도 많아라
말못할 걱정의 순간도 많아라
어느 과학자의 놀라운 새 발견을 두고도
국경을 넘어 먼
어느 무대 어느 시상대우에 선

우리의 예술인 어느 한 체육인을 보고도

생각해보면
내 가꾸는 벼포기 또한 자라나는것 아니냐
용해공의 뜨거운 숨결속에
방직공의 비단결 마음속에

우리 수령님 높은 뜻으로
하나와 같이 숨쉬는 사람만이
천만이름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우리라는 이 말을
자신의 이름처럼 부를수 있나니

수령님께서 익혀주신대로 말을 하고
수령님께서 걸음마 시켜주신대로 걸 으며
수령님께서 띄워주신 눈으로 세계를 보는
우리! 우리!

천만의 이름도 하나의 의지로 불리우고
단 한사람도 천만의 의지속에서 떼낼수 없는 말
그래서 원썬들 가장 무서워하고
우리는 제이름보다도 더 즐겁게 부르는 말

어버이수령님께서 가장 큰 자랑으로 불려주시는
우리 인민의 한사람이 된 행복이여
우리 당의 한 전사가 긍지여
우리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위해서도
나를 바칠줄 아는
영광의 삶을 지니었나니

아,
우리 인민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우리라는 이 말속에 나도 있어
내 작은 가슴속에서도 숨쉬고있어라
주체로 빛나는 온 세계가!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다

-삼지연못가역에서-

김 진

내릴 때에는
여기가 종착역인줄 알았더니
떠날 때에는
아니구나!
여기가 종착역이...

한생 식물학에 머리흰 저 교수가
5호물동 진달래꽃잎속에 눈물을 떨구었다.
청봉 사령부천막가의 맨땅우에서
한밤을 지낸 용해공들이 여기 있다

아, 조국땅에 그 혼한 물도 없어
눈을 녹여 마셔야 했던 백두산밀영
엄혹한 그 겨울이 자꾸만 눈에 밝혀
답사식당 단물조차 마시기 괴롭다던
청산리의 너인들이 여기를 떠난다

목이 말라서 우리의 대학생들이
삼지연의 맑은 물 물통 가득 채운게 아니다
돌이 없어서 저 바다가의 소녀들이
대흥단의 부석돌 배낭속에 넣음이 아니다

정녕 여기 백두산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그렇듯 세차게 흔들어준
과연 무엇때문이뇨?

여기 한방울의 물, 한줌의 흙이
그렇듯 우리 가슴에 소중한것은
과연 그 무엇때문이뇨?

오오! 조국의 푸른 하늘이
저 백두천지에서 열리었고
우리 사는 조국의 풍요한 대지가
투사들이 품고 온 한줌 흙에서 펼쳐진줄
우리 그네들의 뜨거운 숨결과 함께
가슴 사무치게 피와 살로 받아안거니
정녕 우리 삶의 모든 시작은
이 땅이 아니냐!

그렇다!
우리 당과 인민의 만년초석-
주체의 혁명전통이 뿌리내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이 여기있고
누리를 밝히는 주체의 해불 황황히 불타올라
인류는 여기서 투쟁과 삶의 첫 자욱을 떼거니

오, 혁명의 성산 백두산기슭에 자리잡은
유서깊은 영광의 땅 삼지연 못가역이여
너는 우리 당과 인민과 인류 앞에
영원히 혁명의 첫 출발역으로 있으리라!
천만년 세월은 흘러 누리에 흘러도...